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40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7월 15일(음력 윤5월 22일) 수요일(주간)

사람 홍콩 영화배우 왕조현

실연으로 출가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캐나다 밴쿠버서 출가 VS 긴 머리 아껴 삭발 NO

'천녀유혼'으로 유명한 홍콩 영화배우 왕조현(42 · 사진)이 불법에 귀의해 스님이 됐다는 소식에 중화권 전역이 떠들썩하다.

중국 언론들은 뭇 남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왕조현이 6월 초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한 화교계 사찰에 비구니로 출가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대만에 머물고 있는 왕씨 가족들이 캐나다 밴쿠버 소재 사찰에 왕조현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사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왕조현이 단순히 사찰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 언론은 그녀가 비구니로 출가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사귀어 온 연인이었던 대만가수 치친(齊秦)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중화권 주요 사이트 시나닷컴은 왕조현 출가설에 대한 치친의 반응을 전했다.

시나닷컴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치친은 왕조현의 출가설을 듣고 가장 먼저 "모르는 일이지만 의외의 일도 아니다"며 "일찍이 캐나다를 방문해 왕조현을 찾았지만 전화연결이 안 됐다. 소식을 듣고 왕조현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지만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또한 왕조현의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은 왕조현의 출가설이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왕조현이 가장 아끼는 것이 그녀의 머리카락이었는데 삭발했을 리는 없다"고 말했다.

왕조현은 1980~1990년대 홍콩의 톱스타로 국내에서도 이름을 떨쳤던 배우다. 1967년 대만에서 출생한 그는 학교 농구선수시절 우연히 출연한 TV프로그램에서 광고모델로 캐스팅됐다. 장신의 키와 청순한 미모를 지닌 그는 '화중선' '청사' '신유성호접검' 등 수많은 영화에 출연해 멜로, 액션 코미디 등 다방면의 캐릭터를 소화해냈다.

또한 왕조현은 옛 연인 치친과 1992년부터 티베트 사찰을 찾기도 하는 등 불교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1999년 두 사람이 재결합한 뒤 결혼설이 나돌 때는 티베트에서 티베트식 결혼을 할 것이란 뉴스가 나왔을 정도로 티베트 불교 신도로 알려져 왔다. 최근 왕조현은 2003년 복귀작 '미려상해' 이후 연예계를 떠나 캐나다서 불법을 공부한다고 알려져 왔다. 출가 여부를 둘러싼 진실과 상관 없이, 왕조현이 불교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나은 기자

여름, 연꽃의 유혹이 시작됐다

봉선사 · 선원사 · 청운사 등 10여 곳 연꽃 축제


연꽃의 계절이다. 전국의 유명 사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백련으로 유명한 김제 청운사는 제8회 하소 백련축제를 개최했다.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북 김제시 하소백련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백련을 이용한 천연염색, 단청문양, 탱화그리기 등 각종 체험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박재완 기자

7월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전국의 사찰과 연꽃군락지에서는 연화장(蓮華藏)세계가 펼쳐진다. 지자체와 사찰이 주관하는 10여 곳의 연꽃축제에서는 연꽃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불교 및 전통문화행사도 열려 일석삼조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게다가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기에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간접 포교효과도 커지고 있다.

현재 연꽃축제를 준비중인 대표적인 사찰은 여섯 곳.

3만평의 백련지를 자랑하는 김제 청운사는 7월 18~19일 '백련, 눈으로 듣다'를 주제로 대금연주, 퓨전 살풀이 등 퍼포머스가 가미된 공연과 괘불사진전, 관음불화전, 조형미술전, 불교조각전 등 갤러리 형식의 문화축제를 연다.

전북 사암승가회와 전북불교문화원은 7월 18~19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유등제, 국악한마당, 청소년 페스티벌, 전통무술공연 등 문화체험장을 열고 사경, 연등만들기, 부처님 그리기, 다도체험 등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태고종 서울 봉원사는 7월 22일~8월 5일 제7회 '서울연꽃문화축제'를 연다. 24일 오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가 시연되고, 25일 오후에는 봉원사 풍물패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승무, 판소리 등의 행사가 열린다. 이어 8월 1일 오후에는 연꽃가요제가 진행된다.

2002년부터 연꽃축제를 연 강화 선원사는 8월 5~9일 '제1회 세계연꽃음식축제'는 펼친다. 연근차, 연냉면, 연칼국수, 연빵, 연소면 등 31종의 연음식을 맛볼 수 있는 축제에서는 자연염색, 연화 도자기 빚기, 대장경 판각체험, KBS전국노래자랑(8일) 관람도 할 수 있다.

남양주 봉선사는 7월 25~26일 제5회 연꽃축제를 연다. 25일 봉선사 공원인 승과원(僧科園) 개장기념 산사음악회를 열고, 26일 타악 퍼포먼스와 연꽃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완주 송광사는 8월 8일 산사음악회를 겸한 연꽃축제를 펼친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연꽃축제도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7월 10~19일 부여읍 동남리 궁남지에서는 '부여 서동연꽃축제'가 열리고, 7월 18일~8월 24일 태안 청산수목원에서는 '태안 연꽃축제'가 열린다. 또 7월 24~25일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에서는 '찻사발과 연꽃축제'가, 8월 6~9일 무안군 일로읍 회산 백련지에서는 '대한민국 연산업축제'가 대규모로 열린다.

이와 같이 날짜를 정해 축제를 열지는 않지만, 연꽃이 아름다운 사찰과 연 서식지도 적지 않다.

백련, 홍련, 수련 등 갖가지 연꽃이 시민을 반기는 사찰들은 제주 법화사, 아산 인취사, 완주 옥련암, 안동 덕왕사, 칠곡 망월사, 강진 백련사, 보성 대원사, 당진 정토사, 공주 영평사 등이 유명하다. 상주 공검지와 백련단지, 함평 달맞이공원, 진주 강주연못, 서산 성연천, 일산 호수공원 연꽃단지, 홍천 거북이마을, 화성시 제부도 연꽃농장 등도 구경할만한 곳이다.

해가 갈수록 연꽃을 보러오는 시민이 늘어나자 사찰과 지자체도 연재배지와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무안군 처럼 연꽃을 산업으로까지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의 포교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사찰이 불교문화 보급과 포교를 위해서라도 지역 연꽃축제에 참여하거나 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社告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금주의 Hot


철우 스님 14선지식


세웅 스님 08불자들


길희성 23강의실

법구경

어리석은 이는
지혜 있는 이 옆에 일생 살아도
그 지혜의 길을 알지 못한다.

현대불교@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상량식, 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기축년(운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 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행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

- 금강경의 눈으로 오늘의 한국불교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다 -

불교란 무엇인가, 출가 수행자란 어떤 존재인가, 참담한 심정으로 근본적인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한국 불교 오늘의 현주소이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몸짓이 절실하다. 뭇생명의 절절한 바람에 응답하는 참된 목소리가 목마르다. 이에 부처님, 대승 보살, 선사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참 대승, 새로운 대승불교인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을 연다.

야단법석 참여방법

- 일 정 : 불기 2553년 8월 14일 ~ 8월 18일(4박 5일)
- 장 소 : 지리산 실상사 일원(실상사, 작은학교, 한생명)
- 참가 대상과 동참금
  취지에 공감하는 사부대중
  (출가대중 10만원, 재가대중 20만원)
- 신청과 문의
  실상사 종무소 063-636-3031, 3191.
  입금계좌 : 513160-51-024632(농협: 예금주 실상사)
  * 미리 전화로 신청하시면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야단법석 법사
움직이는선원 조실 무비스님, 전국선원수좌 대표 혜국스님
움직이는선원 열중 향봉스님, 움직이는선원 열중 도법스님

야단법석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목 적
  ① 초기, 대승, 선, 현대 불교가 하나의 불교로 관통되는 불교관 확립
  ② 이론과 실천, 수행과 생활이 통일되는 수행론 형성
  ③ 생명 평화 위기로 표현되고 있는 현대 문명의 문제에 응답하는 대안 제시
- 내 용
  ① 소의경전 금강경의 눈으로 한국 불교 수행 문제의 실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무비 스님께서 표준 금강경을 교재삼아 금강경 정신으로 한국 불교 수행 문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진단하고, 오늘의 한국 불교 수행자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인 수행과 현실적 삶이 통일되는 수행의 정로를 제시한다.
  ② 선원 수좌의 눈으로 한국 불교 수행의 현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혜국 스님께서 그동안 선원에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 수행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부정적 측면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수행의 방향을 제시한다.
  ③ 치열한 수행을 통해 안목을 얻은 이의 눈으로 한국 불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활로를 모색한다.
  향봉 스님께서 외국에서 치열한 수행을 통해 얻은 안목으로 경전과 어록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불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④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하나의 불교 수행론으로 통합시키는 이론적 대안을 모색한다.
  초기불교 없는 대승불교는 없으며, 초기불교 또한 대승불교로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도법 스님께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가 서로의 분리 대립을 지양하고 하나의 불교로 회통하는 시론을 모색한다.
- 방 법
  ○ 60분~90분 강의하고 참여 대중들이 120분 이상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토론함.
  ○ 참가 대중들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단 내용을 더 다듬고 풍부하게 하여 한국 불교의 나아갈 방향과 바람직한 수행론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야단법석 일정표

	8월 14일(금)	8월 15일(토)	8월 16일(일)	8월 17일(월)	8월 18일(화)
04:00					
05:00		세면	세면	세면	세면
06:00		예불	예불	예불	예불
07:00		100대서원 절명상	100대서원 절명상	100대서원 절명상	100대서원 절명상
08:00		아침공양	아침공양	아침공양	아침공양
09:00		도량가꾸기 자유시간	도량가꾸기 자유시간	도량가꾸기 자유시간	도량가꾸기 자유시간
10:00		제2법석 (무비스님) 토론	제4법석 (무비스님) 토론	제6법석 (향봉스님) 토론	제8법석 (도법스님) 토론
12:00		점심공양	점심공양	점심공양	점심공양
13:00		자유시간	자유시간	자유시간	소감 나눔의 시간
15:00					회향식
16:00	입제식				
17:00	제1법석 (무비스님) 토론	제3법석 (무비스님) 토론	제5법석 (혜국스님) 토론	제7법석 (향봉스님) 토론	
19:00	저녁공양	저녁공양	저녁공양	저녁공양	
20:00	예불	예불	예불	예불	
21:00	만남의시간	움직이는선원과 지리산성지환운동	5년 탁발순례와 불교계의 생명평화운동	이야기가 있는 작은음악회	
22:00	취침	취침	취침	취침	

• 주최 :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준) [화엄사 · 쌍계사 · 대원사 · 벽송사 · 실상사] • 주관 : 실상사 • 후원 : 현대불교신문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부탄'의 행복 앗아간 TV

가난해도 행복한 나라로 유명한 '부탄'의 국민행복도가 3년 만에 뚝 떨어져 관심을 끈다.

'영국 신 경제재단'(NEF)이 발표한 국가별 국민행복지수(HPI)에서 부탄은 세계 8위에서 17위로 추락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년 초 수백달러에서 최근 5000달러 수준으로 급등했지만 행복도는 도리어 떨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산간 마을까지 보급된 TV에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불교와 농사만 알던 사람들이 TV를 보며,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진 결과다.

반면, 코스타리카(1위), 도미니카(2위), 자메이카(3위), 쿠바(7위) 등 '게으른 나라'로 치부돼 온 중남미 나라는 상위권을 휩쓸었다. 가정과 국가는 가난해도 이웃과 함께 노래와 춤을 즐기는 그들이 10위 안에 9개국가나 차지했다. 일본 75위, 미국은 114위, 한국은 68위였다.

특히 유전이 발견됐음에도 '생태보호'를 위해 시추를 막고 에너지 사용량의 99%를 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 충당한 코스타리카의 1위는 많은 운하 등 개발일변도의 정부정책에 교훈을 주고 있다.

불자들은 경제적인 부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일시적 만족감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돈'을 추구하는 이는 자신이 재력을 더 가져 더 행복하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도 비슷한 경제수준이 되면 그로 인한 만족감은 떨어진다. 결국 사회가 부자가 될수록 과시를 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절대빈곤을 벗어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영국 워릭대의 연구진은 80개국 200여만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 중 40대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낀 반면 70대는 어릴 때 더불어 가장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가 행복한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동년배의 죽음을 지켜보며 남은 삶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복은 마음쓰기에 따라 다르다. <법구경>에는 "탐욕의 그물로 가리고 애집(愛執)의 덮개로 씌워 감옥에 스스로 묶어 놓으면 고기가 통발 속에 들어간 것과 같아 노사(老死)의 옛 보는 바가 된다"고 이른다.

당장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주변의 힘든 다른 이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돈 걱정일랑 집어치우고 말이다.

사찰이 위기가정 돌본다

용주사 · 봉선사, 경기도와 손잡고 '무한돌봄' 사업협력

경지지역의 조계종 교구본사인 용주사 · 봉선사가 경기도와 함께 위기가정과 저소득 계층을 돕기 위해 나섰다.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과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7월 6일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업무협력을 맺고, 어려움에 처한 도내 저소득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학대와 이혼, 유기 등 위기상황에도 정부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이 불가능한 저소득계층을 도와주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으로 두 교구본사는 전담추진기구로 경기도 내 각 시 · 군에 설치되는 '무한돌범센터'와 더불어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를 배가 시킬 전망이다. 용주사와 봉선사 등 교구본사를 위시한 160여 지역 말사들은 위기가정을 발견해 무한돌봄센터에 알려주고, 신도회 자원봉사자를 통해 위기가정 봉사 등을 지원한다. 또 템플스테이를 통해 위기가정 · 노숙인을 대상으로 희망인문교육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어려운 이에게 자비를 펼친 부처님 가르침과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이 다르지 않다"며 "협약을 계기로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도 "봉선사를 비롯한 경기지역 불교계는 자원봉사 등으로 지역복지에 나서왔다. 이번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펴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는 "예부터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교계는 스스로 나서 나라를 지켜왔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사랑이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무한돌봄사업에는 그동안 위기가정 1만652가구에 약 61억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했다. △경기도공동모금회(간병비 등 30억원)와 △ 도내 206개 민간병원과 4200개 약국(진료비 감면, 의약품 지원) △ 421명의 변호사(무료법률상담) △ 230명 경찰대학생(가정학습) △31개 시군 기독교총연합회(대상자 발굴) △농협경기지역본부(쌀 16톤) △경기도시공사(10억원) △대한양돈협회(돈육 1톤) 등과 협약을 맺는 등 참여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이 사업에 총 4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환경부 · 청와대 · 정부 협의체 구성 추진"

조계종 "사찰은 스님들의 삶과 수행공간" 홍보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전국 본말사 주지스님 1500명이 모여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 등을 결의한 7 · 2 결의대회 이후 종단 방침을 밝혔다.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7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대회는 종단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종단 현안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한 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 언급됐던 산문폐쇄나 전국승려대회 등 물리적 행동에서 대폭 완화된 입장이다.

장적 스님은 "결의대회 후 조급히 답을 얻으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번 문제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임기 내 끝낼 수 있지 않을뿐더러 국민여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환경부 등이 이미 제안한 협의체 구성도 결국 민원해결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다"며 "종단 입장이 관철되기 위해 자연공원법을 전면 개편해야 하기에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참여하는 '큰 틀로서의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에 용역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환경부 협의체는 관련 위원회와 본말사 의견을 수렴해 종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의 재산권 요구가 자칫 '불교는 무소유'라는 국민감정과 부딪칠 수 있다는 지적에 스님은 "국민과 정부에 사찰이 스님들의 삶과 수행 공간임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계종은 1차적으로 전국 80여개 사찰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서명을 받는 등 대국민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정각선원 개원 14주년 봉헌법회



왼쪽부터 강창일, 최병국 의원. 지관 스님.

국회 정각선원이 '맑은 정신과 올바른 깨달음의 도량'으로 다시 태어났다.

국회의원 불자 모임인 정각회(회장 최병국)와 직원 불교신도회(회장 김창호)는 정각선원 내부를 새로이 단장하고 7월 9일 개원 14주년 봉헌법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지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공사를 뛰어넘어 항상 자비와 지혜로 연민중생, 파사현정을 실천하며 살라"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종회모독 참회하라" 자정센터 성명

제180회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종헌개정 표결 처리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펼쳐 보였던 무애 스님에게 참회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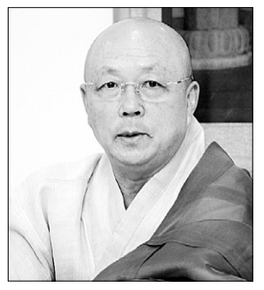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 이하 자정센터)는 7월 7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무애 스님의 참회를 다시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정센터는 성명서에서 "무애 스님은 종헌개정 표결 처리과정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장난스럽게 펼치는 행위를 벌이는 등 종회를 모독하고, 종회의원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정센터는 "종회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스스로 참회하고 사과해 종회의 권위와 종회의원 개개인의 독립성이 보장될 좋은 선례를 남겨달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수행하는 군종교구 만들터"

제2기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 임명



자광 스님

군종교구의 새 선장으로 자광 스님(용인 반야선원 회주)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7월 9일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군종특별교구장 임명식을 갖고 제2기 교구 출범을 알렸다.

자광 스님은 임명식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책임감이 무겁다. 1기 군종교구가 잘 한 점을 잇고, 미숙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자광 스님에게 "힘든 위치인 것을 알기에 축하보다 위로를 먼저 보낸다"며 "열심히 군포교 위해 일해 달라. 특히 군종교구와 종단의 관계가 밀접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식에는 총무부장 원학 스님, 기획실장 장적 스님, 재무부장 정념 스님, 사회부장 세영 스님, 호법부장 정만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등 총무원 부 · 실장스님이 함께했다. 또 제2기 군종교구 인수팀장을 맡은 정범 스님(중앙종회의원)과 예비역군승모임 허운 스님(죽전포교당), 고경 스님(조계사 사회차장)도 배석했다.

임명식에 이어 기자회견을 연 자광 스님은 "군종교구장은 벼슬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열심히 뛰며 시주 받아 군승들이 신바람 나는 포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임기 동안 연간 5만 명 장병 수계 및 사회 복귀 후에도 신행 생활을 이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이 당부했듯 군종교구와 조계종의 협조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총무원에서 (군승들이) 가사 장삼을 수하고 스님들과 자주 회의를 갖도록 할 계획"이라며 "교류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행정 분위기의 군종교구에서 수행풍토의 교구본사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자광 스님은 7월 24일 오후 5시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2층에서 이 · 취임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군포교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21일 취임법회에 참석해 달라"

동국대 정련 이사장 지관 총무원장 예방서 요청



동국대 신임 이사장 정련 스님(오른쪽)의 예방을 받고 환담하는 지관 스님.

동국대 제36대 이사장 정련 스님이 7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정련 스님은 "법인이 안정해 학교 본부와 화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관 스님은 "여러 경험이 많으시니 잘 챙겨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화답했다.

정련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은 누구보다 학교를 잘 알고 계시니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겠다. 지혜로 도와 달라"로 말했다.

이어 스님은 "(동국대가) 종립학교라 종단과 관계가 중요하다.

입학식과 졸업식에 총무원장스님이 법문해 주신다면 학생 등 동국대 구성원들의 신심이 고양될 것"이라며 "21일 이사장 취임법회에 참석해 꼭 법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학교행사는) 총장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며 말을 돌렸으나, 정련 스님은 "(취임식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겠다"고 정리했다.

조동섭 기자

태고총림 선암사 전산총회 의결 공고

태고총림 선암사에서는 2009년 6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적묵당에서 재적승려 전산총회를 열어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재적스님 92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적승려 전산총회 임시의장 윤법천 스님의 사회로 열린 이 총회는 시종일관 열띤 설전이 이어졌고, 그 동안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현안이 다루어졌으며, 거의 만장일치로 많은 현안이 의결되어 방법은 다르지만, 선암사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의결 사항

1. 기존 선암사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사법사규를 부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2. 현재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되어있는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소재의 도선암을 "도선암"으로 경정등기하여 기존대로 선암사 말사로 환원시킨다.
3. 선암사와 조계종간의 오랜 분규를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종회의원과 소임 선출

1. 종회의원
금봉, 보안, 상명, 성관, 성암, 시각, 운범, 원문, 월인, 월호, 정안, 지상, 혜신, 혜정, 호명스님(가나다 순)
2. 종회소임
의장 : 호명스님, 부의장 : 운범스님, 총무 : 시각스님, 서무 : 정안스님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친환경 가야산 생태탐방로 개설된다

2년여 노력 끝에 '가야산 관통도로' 변경 합의… 생태문화권 조성

수덕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이 2년 넘게 반대해 온 '가야산 관통도로'가 자연이 숨쉬는 '생태탐방로'로 변경됐다.

충남도는 최근 도청에서 지역 환경단체와 불교계 인사로 이뤄진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와 회의를 열고 가야산 생태탐방로 개설에 합의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백제불교문화권의 핵심인 가야산 생태보전을 위해 2007년 3월부터 30개월에 걸쳐 가야산의 가치를 알리고 개발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다.

당초 충남도는 서산과 예산, 당진 등 백제 문화유입지인 내포 문화권 개발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405억원과 도비 45억원 등 450억 원 규모의 서산~예산간 10㎞에 가야산 관통 포장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가 2007년부터 "관통도로가 개설되면 환경은 물론, 마애삼존불(국보 84호) 및 보원사지 등 찬란한 불교문화 유적까지 훼손된다"며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옹산)도 문중 스님들이 직접 나서 매년 포장도로 구간에 '백제 미소길 걷기 대회'와 템플스테이를 여는 등 불교문화 보호와 홍보에 주력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가야산의 생태환경과 불교문화 유산이 훼손되는 측면에서 사업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며 "가야산 주변을 지나는 기존 국도 49호선과 지방도 609호, 618호선을 개량해 같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덕사 총무국장 정암 스님은 "생태탐방로 개설을 계기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원사지 발굴과 더불어 가야사지 발굴, 주변 자생종 육성 등 다양한 생태 보존·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불교계도 다양한 연계 문화행사를 준비해 후대에 다시 생길지 모르는 포장도로를 막고 생태문화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내생에 더 큰 업적 남기소서"

故 노무현 前 대통령 49재 회향법회 · 안장식 엄수



봉하마을 정토원에서 열린 조무현 前 대통령 49재 모습. 사진제공=사람사는 세상 봉하마을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49재 회향법회가 7월 10일 봉하마을 정토원을 비롯해 조계종 전국 25개 교구 본사와 주요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봉하마을에서 열린 49재와 안장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등 100여 불교계 인사와 3만여 명의 추모객이 참석했다.

49재는 세민 스님 설법, 밀운 스님 천도법문, 보선 스님 추도사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49재를 마친 뒤 '노前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는 봉화산 사자바위 아래에 조성된 묘역에 안장식을 엄수했다. 안장식은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영상 상영, 21발의 조총 발사, 묵념, 비석설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장된 유골함은 태극기에 둘러 쌓인 백자합으로 만들어져 연꽃합이 있는 석함에 안치됐다. 석함 안에는 노 前 대통령의 재임시절 활동모습과 추모영상이 담긴 DVD 등 부장품도 함께 봉안됐다.

같은 날 서울 조계사와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조계종 전국 25개 교구 본사와 전국 주요 사찰에서도 49재가 거행됐다.

합천 해인사에서는 49재를 봉행하고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직접 영가 천도법어를 내렸다. 1000여 시민들이 함께한 조계사 49재에서 무진장 스님은 영가천도 법문을 통해 "현생에서의 좋은 의지와 업을 간직하여 내생에 다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좋은 업적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7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는 불자와 일반 시민 2000여 명이 함께 하는 노 前 대통령 추모 문화제 '일곱 걸음, 새 세상'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 조계종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유시민 前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화 스님은 추모시 낭송에 앞서 "이제는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승화시켜 결집할 때다.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찾고 지금 이 자리가 첫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언 · 박지원 기자

"하늘이 무너집니다" 사찰 앞에 버젓이 도로를?

약사사 전소

이전 보상 요구 거절한 도로공사 행태 '충격'

화재보험이 만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화재에, 입고 있는 속옷만 겨우 건진 한 사찰 주지스님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창건된 지 30년이 넘은 강북구 우이동의 약사사(주지 현호)에 누전으로 인한 불이 난 것은 지는 7월 6일 새벽 4시 30분경.

불길을 발견한 인근 주민이 38분경 119 신고를 해 인근 도봉소방서가 출동한 시간은 무려 45분이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주거지역 이면주차 때문에 불이 난 지역으로 접근하려면 소방호스를 길게 연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예상 보다 훨씬 늦은 대응에 법당과 요사채 등이 모두 타버렸다.

현재 스님은 입고 있던 속옷과 적십자에서 보내준 운동복 3벌이 가진 전부다.

화재 잔재를 치우는 인부고용 비용부담도 스님이 직접 하고 있다.

현호 스님은 "화장실만 남고 모두 타버린 상황"이라며 "오래된 사찰이어서 화재보험도 5년 만기 후 재가입이 불가능해 현재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010) 7176-2177

노덕현 기자

40년 된 사찰 정문 앞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사찰 측의 이전 및 보상 요구를 거절해 온 도로공사의 안하무인식의 행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 보광사(주지 동화)는 6월 25일 15년간 대진고속도로로 인해 사찰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전해왔다.

보광사 주지 동화 스님은 "공사당시 신도 1000명의 서명을 받아 이전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한국도로공사와 대전광역시 등에 보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전보상 불가를 밝히고 소음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보광사 대웅전에서 바라본 사찰정문. 고속도로 밑 터널로 일주문이 나 있다.

당시 약속대로 도로공사 측은 소음벽을 설치했지만, 도로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며 소음피해가 커져 이러한 조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보광사 측은 △교통량 증가로 가중되는 차량운행 소음 피해 △도로공사의 사찰내 땅 매매로 개인과 사찰의 분쟁 발생 △사찰 조망권 손상 △ 흙먼지와 진동으로 대웅전과 요사채 등에 균열 발생 △기거 스님들의 정신 육체적 병고 등 피해 내역을 밝혔다.

동화 스님은 "대웅전에서 불과 30여 m 거리로 예전에는 교통량이 적었으나 최근 차량 소통에 따른 진동과 소음, 조망권 피해 등으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로 인해 당시 500여 세대가 넘었던 등록신도 수가 점차 주는 등 사찰의 존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괴로운 상태다"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042)283-5896

노덕현 기자

수지 여사 즉각 석방

불교여성개발원 촉구



불교여성개발원은 7월 7일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얀마 민주화와 아웅산 수지 여사의 석방에 대한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이 7월 7일 서울 한남동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웅산 수지 여사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회견에서 불교여성개발원과 NLD관계자는 "최근 미얀마 정부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수지 여사를 부당한 사유로 구속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얀마 군사정부는 민주인사 탄압을 중지하고 민주화 절차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 이인자 고문 등 여성개발원 관계자 10여 명과 미얀마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NLD) 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이상언 기자

"한국불교 일꾼 육성에 힘쓸터"

불이회, 제24회 불이상 시상



왼쪽에서 두 번째 홍라희 회장과 네 번째부터 안준영 교수, 능행 스님, 임영애 교수.

여성불교, 재가불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7월 6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24회 불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불이상 수상자는 실천분야에 능행 스님(정토사관자재회 이사)이, 연구분야에는 임영애 교수(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와 안준영 교수(토론토대학 종교학과 · 동아시아학과)가 수상을 차지했다.

홍라희 회장은 "앞으로 한국 불교계에 참신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한국불교의 선구적 일꾼 육성과 발전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홍라희 회장, 정병조 심사위원장(동국대 교수,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원각불교사상연구원 권기종 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불교계 약대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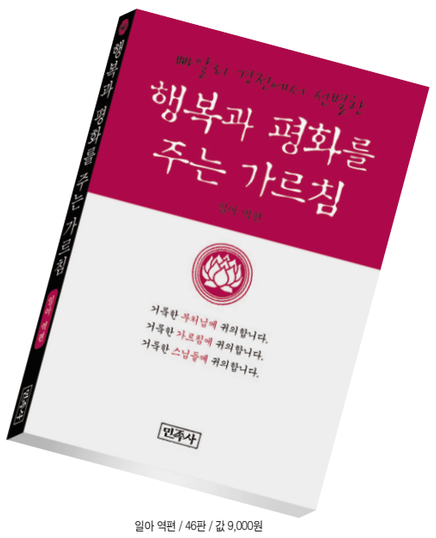
불교생명윤리硏 촉구

바이오산업 성장 가능성으로 제약분야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불교생명윤리연구소가 7월 1일 불교계 약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육성방침으로 연세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이 약학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불교생명윤리연구소(이사장 영공)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동국대 측에 "불교의 위상을 드높히기 위해 동국대학 재단은 미래 발전가능성이 높은 약학대 설립에 적극적 나서야 한다"며 △동국대 약학대학 설립 △교과부와 보건복지부의 승인 △승가대 약초재배학과 개설 추진 등을 요구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의 뿌리인 빠알리 경전에서 선별한
행복과 평화를 주는 가르침
일아스님 역편



일아 역편 / 46판 / 값 9,000원

두려울 때는 불 · 법 · 승 삼보를 생각하라!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부처님 말씀!
마음에 와 닿고, 독송하기 좋고, 쉽고 편리하고 유용한 책!

① 늙음 · 죽음 · 병듦 · 슬픔 · 한탄에 빠진 이들에게 주는 가르침!
② 기도 · 보시 · 공덕 · 효도 · 자비에 대한 가르침!
③ 참된 친구 · 거짓 친구에 대한 가르침!
④ 바른 생각 · 바른 행동 · 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 말씀을 통하여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기를 발원합니다. 우리 모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열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깨달음으로 가는 이정표!
"



김종수 감수 · 훤일 지음
신국판 /296쪽 / 값 12,000원

깨달음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다.
그 공식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중도연기법'
이 가르침만이 어리석음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천명하셨다.

민족사

법흥사서 삼보일배
약사여래 점안 앞두고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 하나인 불보사찰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가 7월 19일 약사여래불 점안식을 앞두고 삼보일배를 실시했다.

삼보일배는 7월 4일 법흥사 총무 선공 스님을 비롯한 30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을 발원하며 법흥사 원음루부터 적멸보궁까지 진행됐다.

선공 스님은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는 인연을 한 순간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삼보일배를 했다"며 "모든 참가자들은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중생이 탐·진·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발원했다"고 말했다.

삼보일배는 점안식 당일인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하며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19일 점안식에서는 건강을 발원하는 약초주머니 보시, 약초비빔밥과 약초음식 시식행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절 배우기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033) 374-9177

이상언 기자

일주일 철야정진
28일부터 보림선원

서울 정릉 보림사(조실 묵산)는 7월 28일 오후 8시부터 8월 3일 오전 7시까지 보림선원 선방에서 제71회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를 개최한다.

35년째 이어지고 있는 일주일 철야 용맹전진 법회는 거사선풍(居士禪風)을 일으킨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테이프 법문 듣기와 좌선을 병행하며 1주일간 자지 않고 참선하는 수행프로그램이다. (010)6332-4096

이상언 기자

청소년 불자 교리공부로 '자부심' *UP!*
은정불교문화진흥원 9월 12일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개최

청소년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장(場)이 마련된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이해해 바른 불교관을 정립시키고자 9월 12일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에서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동국대학교, 불교신문사가 공동 주관한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성효스님은 "종교적 특수성 때문에 청소년 포교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장학사업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던 때에 불자 청소년들의 신행활동을 독려, 양성하기 위해 착안한 것이 교리경시대회"라며 "시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경을 써준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라미타 사무총장 부명 스님은 "한국불교문화는 시대를 대변하는 문화의 주축을 이뤄왔다. 이번 경시대회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한국불교를 선양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한명우 사무국장은 "청소년 불자인구가 날로 줄어가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포교의 새로운 방법모색과 학부모와 청소년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고자 불교교리경시대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사무국장은 이번 경시대회가 △청소년들에게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행활동의 동기부여 제공 △우수한 불교교리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생관과 세계관 정립 △건전한 불교문화 진흥 및 불자청소년들의 자긍심 고취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시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개인상, 단체상, 특별상 부문의 시상과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다.

개인상 대상에는 초·중·고등학생 각 1명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장학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지급되고, 단체상은 개인상 최다 배출 단체 등 3곳을 선정하며, 특별상은 자원봉사·문화재지킴이 등 신행활동의 모범이 있는 자를 추천을 통해 선정한다.

이번 경시대회에서 수상하게 될 경우 수상자에게는 동국대학교 입학 가산점이 부여되며(201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 대상인 장관상을 수상할 경우 동국대 뿐 아니라 일반대학입학 전형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시험 유형은 객관식 및 주관식 50문항으로 이뤄지며 문제는 청소년 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과 초·중·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교 내용에서 출제될 계획이다.

접수는 7월 13일~ 9월 5일 우편과 인터넷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에서 접수 신청을 받는다. (02)723-6165~6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욕심 버리는 수행되길"
BBS 대다라니 철야정진 5주년 기념법회


7월 4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열린 BBS 대다라니 철야정진 5주년 기념법회.

불교방송(사장 최명준)이 진행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5주년 기념법회가 7월 4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야단법석을 이룬 이날 법회는 참가자 전원이 5년 수행의 깊이가 담긴 신묘장구대다라니 3독으로 시작됐다. 행사는 불교방송 사장의 인사말, 회원 표창,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법문에 이어 불교방송 '당신이 주인공입니다'의 진행자 월호 스님의 법문, '행복한 미소'를 진행하는 성전 스님의 '미소 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혜총 스님은 법문에서 "인연법으로 완성된 나 자신을 바로알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수행이 아닌, 욕심을 버리기 위한 수행이 되길 바란다"며 "부처님 지혜의 총지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성취한다, 성취된다'는 일념으로 한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불교방송 신묘장구대다라니회는 2004년 첫해 27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화 선원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5년 간 전국 명찰에서 주력독송 철야정진을 하면서 회원이 3000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엄청난 포교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매회 300~600여 명이 참가해 대다라니 108번을 일념으로 주력독송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전국 신도회에서 그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을 정도다.

불교방송 포교사업단 안병록 단장은 "신묘장구대다라니회는 주력염불을 통해 부처가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리는데 취지가 있다. 5년이 된 시점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게끔 1000만 독을 서원하고 있다"며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02)705-5308

이상언 기자

대학생 행복한 변화 선도 '다짐'
대불련 지부장 등 30여 명 리더십캠프


대불련 리더십캠프 참가자들이 참선수행정진을 하고 있다.

"세상을 향해 물음은 던지고 진리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를 갖춘다. 스스로를 마주함으로써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가꾸고자 한다. 참가자들의 소통을 강화해 대학생 불자의 사명과 이상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

'2009 KBUF 여름대회'를 앞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환, 이하 대불련)는 리더십 캠프를 열고 전국 대학생들의 행복한 변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대불련은 7월 1~5일 경북 봉화 금봉암(주지 고우), 안동 용수사(주지 정왜) 등에서 리더십캠프를 개최했다. '2009 KBUF 여름대회'를 앞두고 열린 리더십 캠프는 전국 각 지역 지부장, 지회장, 09학번 새내기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리더십 캠프는 △전국 대학생 불교학생들 간의 소통 강화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사명과 이상 수립을 위한 주제 발표 및 토론 등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7월 1일 금봉암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고우 스님은 "부처님을 정확히 알면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를 막고 모든 일에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며 일방소통이 아닌 쌍방소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경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리더십캠프와 여름대회는 미래의 리더인 대불련 학생들을 위해 깐 멍석"이라며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리더십과 법우애 등을 배워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스트레스 제로 행복한 어린이 만들자
동대 부속유치원, 불교유아교육법 워크숍

학원과 과외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게임과 TV, 컴퓨터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사는 어린이를 위한 불교유아교육법 워크숍이 마련됐다.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원장 김혜순)은 7월 25~26일 제5차 어린이의 심성교육과 집중력 향상 등을 위한 불교유아교육 '바라밀수행법을 통한 유아교육의 실천적 탐색'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불교유아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체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대 부속유치원 유아들의 '놀이명상' 모습.

특히 참가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소개되는 △선정·정진을 위한 어린이 요가, 음악 명상 △정진·지혜를 위한 수묵화 활동과 놀이명상 △불교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보시·지계바라밀 수행법 익히기 등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대원 스님(동국대 유아교육)의 기조강연 '어린이 세계와 불교의 만남'을 시작으로 동국대 사범교육대학 백경임 학장의 '불교적 건강가족 이해', 고진 스님(동국대 부속유치원)의 '음악명상'등 불교학, 유아교육학, 정신의학, 발달심리학 영역의 전문지식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뤄진다. (054)770-2533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명상상담연구원 명상클리닉 실시=한국명상치료학회 명상상담연구원은 일반인과 청소년을 상대로 '염지관(念止觀)명상-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보기' 명상클리닉을 실시한다. 7월 18~19일, 7월 31일~8월 2일 서울 명상상담연구원과 경기도 동녕사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진행된다. 7월 20~22일 전북 익산, 8월 7~9일 전북 무안, 8월 1~2일 부산, 8월 7~8일 창원에서 열린다. 수련회비는 일반 20만원, 청소년 10만원이다. (02)2236-5306

●길상사 여름 선수련회=서울 길상사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여름 선 수련회를 실시한다. 8월 3~6일, 10~13일은 각각 선 수행 입문과 집중 수행 프로그램으로 참가인원은 선착순 70명이다. 7월 31일~ 8월 2일 어린이를 위한 선 수련회도 준비됐다. (02)3672-5945

●서울 공생선원 청소년 참선교실=청소년들의 집중력, 암기력, 인내심을 향상을 위한 참선교실이 서울 공생선원에 마련됐다. 7월 25일~8월 22일 매주 토요일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8배와 좌선, 잔상훈련, 듣기훈련, 모둠 활동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3만원. (02)900-2448

호계원 스님들께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호계원장 큰스님 그리고 재심 호계위원 스님 여러분, 초심에서 이미 공권정지 5년의 판결이 난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의 문제가 재심에서 아직 판결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직도 마곡사 주지의 권한을 행세하며, 인사권을 가지고 공공연히 비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초심판결 이후에 우리는 그가 스스로 본사 주지 직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사 주지직에서 물러 나기는 커녕, 최후의 발악과도 같은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행과 비리의 진행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호계원장 큰스님, 그리고 재심 호계위원 스님 여러분, 마곡사의 안정과 수행가풍의 진작은 오직 재심 호계위원 스님들의 애종의 결단으로만 가능합니다.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의 비행과 비리에 대해서 준엄한 법적 판결을 내려 주실 때 마곡사의 모든 혼란은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또 다시 판결이 보류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수행종풍을 진작하는 애종심이 필요할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마곡사 말사 주지 일동은 간절한 마음으로 재심 호계위원 스님들께 청원합니다. 스님들의 지혜와 애종심으로 우리 마곡사가 안정을 되찾고 법용 스님이 본인의 죄과를 분명하게 참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언제나 불조의 혜명을 잇는 불제자로서 우리 마곡사 말사 주지 일동은 신명을 바쳐 수행과 전법에 전력하겠습니다.

불기 2553년 7월 9일

제6교구 마곡사 말사 주지 일동
제6교구 마곡사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단청과 민요가 만나 흥 깨우네"

단청장 이정오 · 경기민요 이수자 방인숙씨 위한 '단청 · 소리 후원의 밤' 성황

단청과 음악이 만나 새로운 무대를 만들었다.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1호 단청장 보유자 이정오씨와 중요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이수자 방인숙씨를 위한 '무형문화재 단청 소리 후원의 밤'(후원회장 손기섭)이 7월 7일 유성호텔 8층 스타볼룸에서 열렸다. 이 특별한 공연에 참석한 300여 사부대중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흥겨운 민요가락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정오 단청장은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1호 단청장 보유자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고 대전시 무형문화재연합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대전시청 앞 한밭종각 단청을 시공하는 등 활동이 활발하다.

방인숙씨는 중요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세계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고 대전광역시 효 홍보대사 등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7월 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단청 · 소리 후원의 밤'에서 인사말하는 이정오 단청장(오른쪽)과 방인숙 경기민요 이수자.

방송인 진정자씨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박성효 대전시장, 공주학림사 조실 한암대원 스님을 비롯한 대전 지방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후원회 고문단으로는 이시찬 바르게살기운동 대전시회 회장, 김익중 중부경찰서장, 임상덕 아주성형외과 원장, 최기석 변호사가 추대됐다. 자문위원으로 대전 영선사 주지 현도 스님, 황룡사 진공스님을 비롯한 8명이 추대됐다.

민요한마당 디너쇼에는 방인숙씨의 스승인 중요무형문화재 57호 보유자 이은주 선생이 노구를 이끌고 직접 출연해 제자 방인숙, 한진자씨와 함께 아주 귀한 시간을 선사했다. 대한제국 황손 이석을 비롯해 송선원, 진요근, 지은혜, 수진 등이 참여했으며 가수들의 축하무대가 펼쳐졌다.

손기섭 후원회장은 "이 시대에 오염되지 않고 꼭 필요한 생명수와 같은 후원회가 되겠다. 무형문화재 단청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 후원회를 계기로 단청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오 단청장과 방인숙 경기민요 이수자는 "더욱 정성스럽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수륙재가 새로운 도약 계기 되기를"

대전 비구니 청림회 태안서 '불우이웃돕기 수륙대재' 봉행


7월 4일 태안 해변에서 봉행된 수륙대재에 참석한 불자들이 국운융창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기축년 윤달을 맞은 7월 4일, '국운융창 불우이웃돕기 합동 수륙대재'가 조계종 대전 비구니 청림회(회장 효경) 주최로 태안 안면도 기지포 해수욕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수륙대재에는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과 진태구 태안군수, 청림회 회원 스님들과 2000여 불자들이 동참했다.

수륙대재 1부로 진행된 법회는 회장 효경 스님의 인사말, 진태구 태안군수 환영사,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의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청림회 합창단의 음성공양과 수덕사 공양미 전달식도 열렸다.

효경 스님(청화사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이 화합하지 못할 때 수륙대재를 국운융창을 위해 왕궁으로부터 도모해 왔다"며 "오늘의 행사를 통해 우리 대전과 충남 그리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태구 태안군수도 "태안이 힘들고 어려울 때 따듯한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그 어려운 재앙을 잘 이겨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보시는 봐와 같이 빠르게 복구돼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옹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저 바닷물이 짠 줄은 알지만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 불법의 진리도 이와 같이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꼭 말을 해서 법이 아니라 저 바다가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다고 느끼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법이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얼굴을 확 펴고 사는 평상심(平常心)이 법이다"고 설했다.

이어 2부에는 수륙재 의식이 봉행됐다. 수륙재는 시련, 대령산중작법, 북청게, 도량게(막바라, 사방유신), 법고, 거불상단, 사다라니, 축원, 살풀이, 영단, 회심곡, 봉송내전의 순서로 봉행됐다. 이날 참가한 21개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회향후 향토문화 체험과 수덕사 참배 등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실버밴드 창단공연

대전 서구노인복지관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2009년 4월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어르신들로 구성된 7인조 실버밴드(드럼, 키보드,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색소폰, 클라리넷, 아코디언 등)를 결성,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 3층 강당에서 창단 기념공연을 갖는다.

이날 공연은 박성효 대전시장, 가기산 서구청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남선밴드와 함께 5명의 지역 가수 초청 공연도 펼쳐진다.

이 밴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9988 민속극단 얼쑤'와 함께 지역사회 노인인식개선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됐다.

장곡 스님은 "어버이날 첫 선을 보이고 반응이 너무 좋아 창단 기념공연을 열게 됐다"며 "향후 복지시설 위문공연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서구노인복지관 어르신 실버기자단 주최로 발행한 '남선무지개' 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7월 10일 자축행사를 갖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인삼 맛보고 사찰순례도 하고

한국인삼생약 영농조합법인 신국주 대표



회사를 홍보하고 자사제품을 알리기 위해 고객을 공장으로 불러들일 수는 없을까?

한국인삼생약 영농조합법인 신국주 대표(사진)는 불자들에게서 이 화두를 풀었다. 삼사순례와 방법법회를 겸한 회사 견학을 통해 금산인삼의 효능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중간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에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길을 찾은 것이다. 그래서 버스를 전국의 사찰에 무료로 제공하고 금산 지역 인근의 사찰과 방생장소를 포함하는 코스를 안내한다. 상품 판매 목적의 '상술'이란 오해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신국주 대표는 단호하게 말한다. "막대한 홍보비를 버스 지원으로 활용할 뿐이고 입소문을 통해 우리 법인의 신뢰를 쌓아가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는 또 "신뢰받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중앙대, 한서대, 경희대의 산학협력 체결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고 우수벤처기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과 법인의 개발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금산인삼의 효능을 밝히고 수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어릴 적 꿈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었다는 신국진 대표는 "인삼 수확 철에는 소비자가 직접 인삼밭을 방문해 수확해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혜철 충청지사장

대견사지삼층석탑

낙뢰로 옥개석 훼손

대구시유형문화재 42호 대견사지 삼층석탑이 낙뢰로 훼손됐다.

대구 달성군(군수 이종진)에 따르면, 7월 2일 오후 달성군 유가면 용봉리 비슬산 내 대견사지 삼층석탑에 벼락이 쳐서 2층 옥개석 일부가 떨어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달성군 문화재팀 김제근 학예연구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수습해 보관 중인 훼손된 탑 부재를 수리 복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견사지 삼층석탑은 고려 전기 때 조성된 탑으로,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모습이다. 대견사(大見寺) 절터에 흩어져 있던 탑 부재들을 모아 1985년 조립해 복원했는데, 절벽의 높은 바위를 바닥돌로 삼아 그 위에 기단과 탑신을 올려놓은 것이 특징이다. 김성우 기자

대장경 천년문화축전 연다

2011년 9월 23일~11월 6일 해인사 등지서

고려대장경 간행 천년을 맞아 추진되고 있는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 축전'의 개최시기와 행사 규모 등이 확정됐다.

경남도(도지사 김태호)는 대장경 천년문화축전을 2011년 9월 23일~11월 6일 45일간 합천 해인사와 합천군 가야면 주행사장, 창원컨벤션센터 등지에서 열기로 했다고 7월 6일 밝혔다.

사업비는 당초 450억원 정도로 계획됐으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 승인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 등의 과정에서 시설비가 과다하는 등의 지적을 받아 306억원으로 삭감됐다. 이에 따라 해인사에서 5㎞ 떨어진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각사마을 일원의 주행사장에 주제관인 대장경 천년기념관만 영구건물로 지어진다. 대신 전시관인 지식혁명관과 불교문화관은 가건물 형태로 지어질 예정이다.

주제관은 대장경과의 첫 만남과 대장경 실크로드, 대장경 신비실, 대장경 실물실, 체험실 등으로 이뤄진다. 지식혁명관에는 문자 · 인쇄 혁명실과 유네스코 기록유산전, 아날로그 · 디지털 혁명실, 백남준 비디오아트 전시, 인지과학 혁명실 등이 들어선다.

불교문화관은 불교인명전과 해인사 박물관, 예술불교실, 신앙 · 생활불교실 등으로 이뤄진다. 주제 · 전시관 외에도 강화도-서울-해인사에 이르는 대장경 이운(移運)행사, 국제심포지엄, 세계불교도대회, 불교패션쇼, 사찰요리와 차 문화, 불교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다.

경남도는 이달 중에 관련 조례가 승인되는대로 8월중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행사주관 대행사 선정에 나서 실행계획이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 준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김성우 기자

교사 불교연수회

7월 31일~8월 2일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대승불교의 보살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는 수련회가 열린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호영)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경기도 광주 유마정사에서 제39회 전국 초 · 중 · 고교 교사 불교연수회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 예불, 참선, 정호영 한국불교연구원장의 '종교 · 철학 · 불교' 강의와 이주형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의 '불교미술로 본 보살' 강의, 변신을 위한 워크숍, 108기도 정진 및 <반야심경> 사경, 회향식 등으로 진행된다. 7월 24일까지 전국 초 · 중 · 고교 교사 80명을 선착순 모집, 참가비는 3만원. (02)762-5624

김성우 기자


前 세계〝미세스 진〟현지 방필석 촬영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네★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이름만 알려주어도 신비한 오행비법으로 건강, 적성, 재물,
미래운세 등 정확하게 무료상담하여 드립니다.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 작 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주역 개인지도

방필석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現 한국민속철학연구소장

해 외 WORLD

中 오대산 '세계의 성지'

세계문화유산 복합부문에 등재

중국의 4대 불교 명산중 하나인 산시(山西)성 오대산(五臺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6월 22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WHC 제33차 회의에서 복합유산 부문에 산시 오대산을 등재했다.


중국 오대산 현공사.

불교 문수보살 신앙의 근거지로 알려진 오대산은 △사천성의 아미산(峨眉山, 보현보살의 도량) △절강성의 보타산(普陀山, 관음보살의 도량) △안휘성의 구화산(九華山, 지장보살의 도량)과 더불어 꼽히는 명산이다.

산시성의 성도 타이위안에서 230㎞ 떨어진 신저우시에 있는 오대산에는 5개의 선방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크고 규모와 역사가 오래된 것은 현통사다. 이외 유명한 불교문화유산은 남산사, 보화사 불상, 용천사의 한백옥 패방, 육각연화탑 등이 있어 오대산을 가면 많은 불사활동을 구경할 수 있다. 또한 오대산에는 지난 1~20세기 초 6개 왕조를 거치면서 무수한 불교 사찰이 세워져 중국 불교의 3대 영산 중 하나로 숭상되고 있다.

오대산을 문화유산에 등재시킬 수 있었던 것은 유네스코에 파견된 중국 대표단의 힘이 컸다. 연합뉴스는 "국가문물국 통밍캉(童明康) 부국장을 포함한 60명 안팎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이 현지에 파견돼 대대적인 등재 로비활동을 펼친 결과 우타이산(오대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중국은 문화유산 27곳, 자연유산 7곳, 문화·자연 복합유산 4곳 등 38개의 세계유산을 갖게 됐다.

이나은 기자

중국불교 영어로 알리자

불교영어훈련반 1기생 배출

중국이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개설한 '불교영어훈련반' 1기생 스님들이 6월 27일 8개월만에 수료식을 가졌다.

중국신문사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외국어대학에 개설된 훈련반 1기생은 중국 전국 사찰에서 온 22명의 학인 스님들로 구성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이들은 훈련성과를 영어로 발표 하는 등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훈련반은 2010년 상하이에서 개막하는 엑스포에 스님들을 참여시켜 중국 불교를 영어로 알리려는 목적으로 개설됐다.

수련생들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의 영어 훈련 이외에 불교 전문 영어 용어를 배우고 '불교와 과학', '불교와 인생', '일본불교철학' 등의 강좌를 들었다.

불교 전문 영어 용어는 홍콩대학 불교연구센터와 국제불광(佛光)대학 관계자들이 가르쳤다. 홍콩대 불교연구센터 총감인 정인(淨因) 법사는 "'불교영어훈련반'은 중국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설 인재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라고 치사했다.

이나은 기자

'품위있는 죽음 – 존엄사' 찬성 142명 · 반대 8명

서울은평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모의재판 열어 존엄사 '심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004호 사건에 대해 생명연장장치 제거에 찬성하는 배심원 15명 반대 5명의 의견이 제출됐으므로,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조해 생명연장장치 제거를 인정합니다. 탕탕탕!"

재판관이 20명의 배심원들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수렴해 의사봉을 치며 판결을 내린다.

6월 23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첫 존엄사를 맞이한 김모 할머니(77)가 17일째 자발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이 어르신 모의재판을 열어 눈길을 끈다.

복지관은 7월 9일 2층 강당에서 복지관 어르신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 모의재판 '품위있는 죽음-존엄사'를 열었다.

2주의 준비기간을 걸쳐 담당교육자와 대본을 만들어 연습한 어르신들의 재판과정은 어색함이 없었다. 재판과정을 지켜보던 어르신들도 원고 · 피고측의 공방을 보며 공감 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등 매우 진지한 모습이었다.

피고측 변호인은 "존엄사의 의도가 이론적으로는 훌륭하나 생명경시 풍조로 인한 현대판 고려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은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죽어줘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존엄사를 반대했다.

이에 반해 원고측은 "병을 고치지 말고 방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학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환자가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는 게 당사자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변론했다.

50여 분간의 공방 끝에 방청 어르신들은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기 전 나눠 받은 ○, × 표시의 종이를 들었는데 이중 142명이 찬성(○), 8명이 반대(×)를 들었다. 어르신들 중 다수가 존엄사를 찬성했다.

실제로 모의재판 후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 참석 어르신들 중 90.9%가 '존엄사를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77.2%가 존엄사에 대한 법 제정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모의재판 모습. 존엄사를 주제로 어르신들이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고재욱 관장은 이에 대해 "법이 한 사람의 생명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생명의 가치를 효율성으로 생각해 취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어르신들이 결국에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존엄사를 찬성하는데 이는 노인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된다. 반드시 국가에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럴 때 일수록 종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불교계에선 아직까지 존엄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곱게 죽고 싶다"고 말한다. 불교계가 이런 어르신들의 말에 귀 기울여 그들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포교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때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무지개 빛 희망 전하는 합창단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한데 모여 무지개 빛 희망을 부르는 합창단이 창단됐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 · 김의정 · 김상철)는 7월 10일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2층 대회의실에서 '레인보우코리아 합창단' 창단식을 가졌다.

김의정 공동대표(조계종 중앙신도회장)는 "합창단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음악으로서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합창단은 지난 6월 1~21일 서울, 경기 지역의 합창단원 지원자 50여 명의 오디션 참가 신청을 받아 6월 23, 26일 서대문구 청소년 수련관 소극장에서 열린 합창단원 선발 오디션을 통해 30명의 합창단 정식단원을 구성했다.

이나은 기자

"발로 뛰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박한욱 복지사 '새내기 사회복지상' 수상

"열린 복지관 만들기에 앞장서는 발로 뛰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에서 근무하는 박한욱 사회복지사가 6월 28일 제66회 '새내기 사회복지상'을 수상했다.



새내기 사회복지상 수상한 박한욱 사회복지사 (오른쪽에서 세번째).

박한욱 복지사가 받은 상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민일보, 삼성전자가 공동주최하는 상으로 5년 이하 경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다.

"불교신자로서 불교계에서 수탁운영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기업 및 대학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을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잘 연계해 상을 받게 돼 매우 뜻 깊고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하던 2007년부터 함께 해온 박한욱씨는 복지관 사회교육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을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지원사업인 노인전문자원봉사단 '낙산 다시 오르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박씨는 2006~2008년 2년간 종로구에 위치한 기업과 경로당을 연계한 경로당활성화사업인 '1사(社)1경로당지킴이'를 만들어 경로당의 생활을 풍요롭게 했다. 특히 치매예방프로그램 '오감만족(五感滿足)'을 통해 경로당어르신들께 치매에 대한 정보와 예방법을 알려 큰 호응을 얻었다. 2008년에는 성균관대학교 자원봉사 동아리 '다소미'와 협력해 어르신을 위한 휴대폰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 대학교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등 미래 사회복지인 육성을 위한 대학생자원봉사프로그램도 진행한 바 있다.

이나은 기자

조혈모세포기증 확대 세미나 열어

이식대기자 3천명 기증 기다려

2008년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된 수는 17만 명 정도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적합하다고 통보받는 경우, 56%가 기증에 동의했다. 골수나 제대혈,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제로 이식받은 환자는 347명에 불과하다.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가 3000여 명인 통계로 볼 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혈모세포 실기증자 확대를 위한 세미나'는 7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일면 스님은 세미나에 앞서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고 기증을 실천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호 교수(조혈모세포이식센터 소장,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우리나라 조혈모세포 기증 실태와 관리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국 조혈모세포관리체계가 △조혈모세포 관리 실무 총괄 운영기관 부재 △정부지원이 골수, 말초혈 기증희망자 모집 및 검사사업에만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혈모세포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조혈모세포 관련 법령 개정 △조혈모 세포관리를 위한 실무 총괄기관 설립 △골수, 말초혈, 제대혈의 기능적 통합관리의 필요성등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기증자 · 수혜자 · 조정기관 · 정부 등 각 입장에서 본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나은 기자

진시황제가 비밀시 활용하던 천비술서! 금쇄옥약시의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720면/정가 각120,000


십자성 래정비법 전수생모집
사주를 뽑지않고, 자신이 갖고 들어온 점괘로 쉽게 푸는 법
1:1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buddhanews.com

‘대승사론현의기’ 진면목 찾기 ‘진일보’

최연식 교수 교감본 펴내… 기존판본 오류 바로잡고 ‘백제찬술’ 주장

현존 최고(最古)의 불교 문헌 <대승사론현의기(大乘四論玄義記)>는 중국 삼론학 개론서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보다 60여 년 앞선 한국 최고의 문헌인 까닭에 한국불교사에서 <대승사론현의기>의 위상은 높다.

<대승사론현의기>는 편찬되던 당시의 불교 풍토와 사상적 경향 등을 알려주며 한국 고대 삼론학을 통해 삼국시대 불교의 실체를 전해주지만, 많은 결락과 오 · 탈자 등으로 연구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최연식 교수(목포대)가 <교감 대승사론현의기>(불광출판사 刊)를 펴냈다.

최 교수는 책에서 현전하는 <대승사론현의기>의 여러 필사본들을 검토해 기존 판본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

특히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초장중가의(初章中假義)>편 사본의 내용을 소개해 본래 형태에 가까운 모습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했다.



‘교감 대승사론현의기’를 펴낸 최연식 교수.

최연식 교수는 “교감 과정에서 현존하는 필사본들이 제작될 당시에 이미 판독불가한 상태의 글자들이 적지 않았고, 필사자들도 자신이 적는 내용을 모르고 베껴 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아직 불완전한 교감본이지만 현존하는 자료들을 모두 비교 · 대조해 판독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고 필사본들의 오류 경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가 ‘<대승사론현의기>와 그 주변’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최연식 교수가 주장하는 백제 찬술설과 한 저명한 일본학자가 주장한 신라 찬술설이 갑론을박을 펼쳐 화제가 됐었다.

당시 행사에서 50여 년 간 <대승사론현의기>를 연구해 온 이토오 다카토시 교수(일본 고마자와대)는 권말의 식어(識語) ‘현경 3년(顯慶3年)세차무오년(歲次戊午年, 658)십이월육일(十二月六日) 흥륜사(興輪寺)학문승 법안(學問僧法安)위대황급내전고경봉장야(爲大皇及內殿故敬奉章也)’를 근거로 “<대승사론현의기>는 신라에서 찬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연식 교수는 기존의 백제 찬술설이 옳다는 반론을 펼쳤다.

최 교수는 “이토오 교수 주장도 일리가 있고, 흥륜사가 신라사찰인 것은 맞지만 이런 식어가 나오는 것은 이 책 뿐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신라에서 중국을 거쳐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면 황제에게 바친 책에 대한 기록이 중국에 없었을 리 없다”며 이토오 교수를 반박했다.

최연식 교수는 “원효, 의상이 백제 보덕 화상에게 열반학을 배웠듯이 백제의 저술이 신라로 전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대승사론현의기>가 신라 흥륜사에서 전해졌다고 해도 신라에서 저술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책에는 이토오 교수 등의 백제 찬술설의 비판에 대한 반론과 찬자(撰者) 혜균의 행적과 저술에 대한 해제 ‘<대승사론현의기>와 한국 고대 불교사상의 재조명’이 수록됐다.

한 불교학자는 “<교감 대승사론현의기>는 백제불교를 위시한 한국 고대불교의 선진성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한편, 피상적 이해에 머물던 백제의 불교사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이제부터 ‘국보’로 불러주세요”

문화재청, 안동 봉정사대웅전 국보 제311호로 승격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 안동시 봉정사에 있는 보물 제55호 봉정사대웅전을 국보 제311호로 승격 ·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발표했다.



국보 제311호로 승격 · 지정된 안동 봉정사 대웅전.

국보로 승격된 ‘안동 봉정사대웅전(安東 鳳停寺大雄殿)’은 건축양식에서 힘 있고 가식 없는 공포(拱包) 수법과 고식(古式)의 가구(架構, 나무로 짜여진 구조) 형식으로 전형적인 초기 다포(多包, 기둥머리 위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에 짜 올린 공포)양식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고려 시대의 양식의 단청이 잘 보존돼 주목받아 왔다.

그동안 확실한 건립연대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근래에 대웅전 해체수리를 하면서 “조선 세종17년(1435)에 이르러 법당을 중창했다”는 <법당중창기> 등 4종의 묵서(墨書)가 새로 발견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안동 봉정사 대웅전의 중창연대가 조선초기로 밝혀져 다포건물로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됐다. 건물과 단청의 보존상태 또한 양호해 역사 · 예술 ·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승격 ·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학연구 ‘방법론’으로 길을 묻다

김호성 교수 ‘불교해석학 연구’ 펴내… 논문 6편 실어

하나의 목적지를 두고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이다. 이는 불교학도 마찬가지이다.

<선가귀감>에 ‘교(敎)는 부처님 말씀(敎是佛語)’이라 했다.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진의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행하는 각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학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연구하느냐의 방법론은 불조의 혜명(慧命)에 다가서는 수행법과 진배없기에 불교해석학은 중요하다.

동국대 김호성 교수가 최근 <불교해석학 연구>(민족사 刊)를 펴냈다.



‘불교해석학 연구’와 저자 김호성 교수.



김 교수는 △경전의 무거움과 해석의 가능성 △자기쳘학의 제시를 위한 전통적 불교학의 해석학적 장치들 △‘저자의 부재’론과 실천적 독서법 △여러가지 독서법에 의지한 해석의 사례 △일음교(一音敎)와 자기쳘학의 글쓰기 △텍스트와 현실의 해석학적 순환 등 5편의 논문과 1편의 보론을 통해 불교학 방법론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정리했다.

게재된 6편의 글은 <바가바드기타>의 주석자였던 틸락(L. Tilak, 1956~1920)이 인용했던 미망사 학파의 해석학이론에 여섯 가지 주제 파악의 방법론에 의지해 서술됐다.

특히 김호성 교수는 저서에 자기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던 의상(義湘, 625~702) 스님의 사례에서 ‘저자의 부재(不在)’를 지적하며, “실천적 독서법을 통해 모든 책의 저자는 독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임강사지서 벽화 조각 등 출토

부여博, “백제 회화사 연구에 중요 자료될 것”

부여 임강사지 건물터에서 벽화 조각 등 유물이 다량 발견됐다.

부여박물관(관장 권상열)은 “4월 23일부터 시작한 발굴조사에서 백제시대 건물터 1기를 확인하고 벽화편과 기와, 금동제 장식편 등을 출토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특히 건물터 내부에서 발견된 백제편 일부는 건물 내벽에 벽화가 그려졌음을 추정케 한다. 함께 발견된 연화문 수막새와 금동제 장식편 등은 백제의 첨단 공예 기술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윤용희 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백제 벽화편으로는 1942년 부소산사지 출토품이 유일했으나 발견 당시의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았다”며 “임강사지 출토 벽화편은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확실한 백제 층위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백제 회화사 등의 관련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임강사지서 출토된 벽화조각.

학술 문화재 소식

‘즉득왕생’ 등 설명 성본 스님 특강



“염불수행과 아미타불을 친견하는 관법수행 등 정토종의 수행법은 지금 여기서 자기 본성을 깨닫는 자각종교 차원에서 주장됐다.”

성본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 사진)은 7월 10일 계간 <불교평론>이 개최한 제10회 ‘열린논단’에서 ‘정토사상의 이해와 실천수행’을 주제로 특강했다.

스님은 특강에서 △아미타불과 서방극락 정토는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난 먼 곳에 존재하는 정토인가? △아미타불은 어떤 부처인가? △임종 시 곧바로 안락국토에 왕생하고 아미타불을 친견한다는 의미와 즉득왕생의 의미 등을 설명했다.

성본 스님은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유심정토(唯心淨土), 자성미타(自性彌陀)’는 불교 사상을 정통적으로 계승한 정법의 차원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학술상 후보자 접수 한국종교문화硏

한국종교문화연구소(이사장 정진홍)는 ‘한국종교문화연구소 학술상’ 후보자를 접수 받는다.

학술상은 종교학 연구자의 연구의욕 진작을 위해 올해 제정됐다. 종교학 연구자로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내고, 종교문화연구소 회원 일반 추천이나 학술상 심사위원의 특별추천을 받은 연구자 중 2인을 선정해 우수저역서상과 우수논문상으로 구분해 시상한다. 상금은 각 100만원. 후보자 추천은 10월 24일까지, 학술상 시상은 11월 21일이다. (02)886-2480 조동섭 기자

고려불화 日서 발견 ‘미륵변상도’

일본 교토박물관은 “교토 묘만지(妙滿寺)에서 고려시대 조성된 불화를 발견했다”고 6월 30일 발표했다.

이 불화는 가로 1.3m 세로 2.3m 크기로 미륵불이 보리수 아래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미륵대성불경변상도’다.

화기에는 궁정화가 이성(李晟)이 지원(至元) 31년(1294) 불화를 그린 것으로 돼 있다. 또 이성은 ‘화문한서(畵文韓署)’라는 궁정회화 제작기관 소속이라고 쓰여 있다.

박물관 측은 “‘화문한서’라는 기록은 고려 왕실에 회화제작 기관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작 연도가 밝혀진 고려불화로는 ‘김의인발원오백나한도(金義仁發願五百羅漢圖, 1235~1236년)’와 ‘아미타여래도(阿彌陀如來圖, 128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오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문·사·철 여름호 발간 ‘20C 불교학자’ 기획

한국불교사연구소와 발해동양학한국학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인문학 계간지 <문학 · 사학 · 철학>이 최근 2009년 여름호(통권 제17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기획연재 ‘20세기 인문학자 불교학자’ 편에 ‘조선미학의 잊히지 못하는 바다, 고유섭’(장석영)을 비롯해 ‘북조불교에 나타난 발해인에 관한 소고’(오지연) ‘고구려 승랑 사상의 범위’(김영일) 등이 게재됐다.

조동섭 기자

승보(僧寶)가 되십시오!

“자비명상 지도자” 모집

慈悲無敵

- 청담 스님 글 -

마음의 노예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마가스님의 안내로 진행되는
붓다의 리더쉽 “자비명상 지도자”로 초대합니다.

화가 많고 급하신 분! 수행이 잘 안되시는 분!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공개강좌 : 9월 9일(수요일) 오후 1시
장 소 :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교육 기간 : 9월 9일 부터 8주간(매주 수요일 오후 1 ~ 4시, 30시간)
집중 교육 : 11월 중 3박4일 집중훈련(30시간)
보강 교육 : 월1회 10회(40시간 / 중앙대 내마음 바로보기 참관)
총 교육 시간 : 100시간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내외
수 강 료 : 200만원(1년 과정)

문의 : 041)622-1190 (천안 만일사) / cafe.daum.net/jurira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멸법 : 뇌하수체에 훈습된 아뢰야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자가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렴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일주문



몰운대사회복지관
몰운대사회복지관 대표이사 정련 스님은 7월 10일 통일부와 함께 탈북자 정주 도우미 발대식을 개최했다. (054) 264-9033



사도세자 247주기 제향 봉행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경기문화연대와 함께 7월 13일 용주사에서 사도세자 247주기 제향과 영산재를 봉행했다.



조계사, 대학입시 특강 개최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은 7월 22일부터 3차례에 걸쳐 2010학년도 대학입시 특강을 개최한다. (02)732-2183



대구 불광사 백고좌 대법회 참석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7월 16일 오전 10시 대구 불광사 불광불교대학에서 열리는 백고좌법회에서 법문한다.



불교환경연대, 2009 자연학교 개강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8월 12일부터 매달 실시되는 2009자연학교 '다·다·가·자' 참가자를 7월 24일까지 모집한다. (02)720-1654



봉은사, 서울대 공부법 특강 개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7월 22일 오후 3시 경내 보우당에서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02)3218-4812



대불련, 명찰 순례 봉행
대불련 총동문회 명호근 회장은 7월 4~5일 평창 월정사와 상원사 일대에서 제5차 대불련 총동문회 53명찰 순례법회를 개최했다.



위덕대, 초등생 창의력 교육
위덕대 배도순 총장은 7월 6일부터 연말까지 영재교육원에서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증진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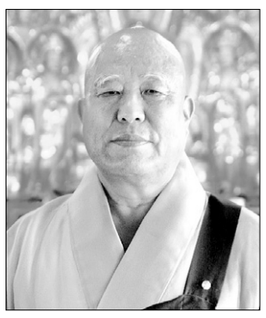
한국불교학회, 여름 학술워크숍
한국불교학회 김선근 회장(동국대 교수)는 7월 31일~8월 1일 통도사에서 '불교적 상상력' 주제 '2009 여름 학술워크숍'을 개최한다. (02)2260-3130



제7기 마이리더스클럽 모집
불교아카데미 전우희 이사장은 8월 10일까지 제7기 마이리더스클럽 참가자를 모집한다. (02)2278-3532

"지역 화합으로 통일 힘 충전"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장 현성 스님



현성 스님(도선사 부조실 · 사진)이 7월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서대문구 협의회장에 취임했다. 서대문 구청 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스님은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가 되기 위해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성 스님은 매년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고 소외계층에 희망을 주는 기부운동, 교정교화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수행자로의 삶을 이웃에게 회향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과 국가가 건강해지고 그 에너지가 평화통일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식에는 현동훈 서대문구청장,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비롯 각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평통 서대문구 협의회 상임위원도 전체 87명 가운데 81명이나 참석해 현성 스님과 제14기 체제를 활기차게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임연태 기자**

한국 종교 갈등원인 '근본주의'

'종교갈등…' 주제 심포지엄 개최



7월 8일 만해 NGO교육센터에서 열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학술심포지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상임대표 박광서)이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종교갈등을 짚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종자연은 7월 8일 서울 만해 NGO교육센터에서 '종교의 정치세력화로 인한 사회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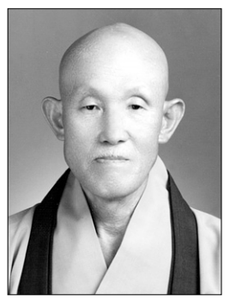
심포지엄에서 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 원장은 "개신교는 해방 이후 한국 종교 중 가장 활발히 정치세력화한 종교"라고 평가하고 "개신교계 기득권층이 출범시킨 뉴라이트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종교편향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시주 은혜 무거우니 정진하라"

세웅 스님 입적, 9일 영결식



9일 상주 용흥사에서 거행된 세웅 선사 영결식



평생 참선 정진으로 일관해 온 조계종 원로 태원당(太然堂) 세웅 선사(世雄 · 사진)가 7월 5일 세수 84세로 입적했다. 법랍 54세.

세웅 스님은 "시주(施主)의 은혜가 수미산(須彌山) 보다 무거우니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유훈을 남기고 입적했다.

분향소는 경북 상주시 용흥사에 마련됐으며 영결식과 다비식은 7월 9일 오전 10시 30분 '조계종 원로 태연당 세웅대선사 문도장(장의위원장 성웅 · 장윤)'으로 용흥사 연화대에서 엄수됐다.

1925년 태어난 스님은 1956년 서운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을 은사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출가했다. 수행생활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는 선승인 세웅 스님은 갑장사 주지 소임 유일한 이력으로 남아있다. 1968년부터 2000년 3월까지 지낸 갑장사 주지 소임을 맡은 것도 절에 스님이라곤 세웅 스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무행정상 어쩔 수 없었던 것.

2000년대 초 상좌에 주지 자리를 맡겼음에도 조실이나 회주 등의 자리도 허락하지 않았다. 조실로 앉게 되는 순간 모든 공부가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주사암연합회 고문 자리까지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였다. 평생 동안 갑장사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스님은 "사람 없는 조용한 곳에서 공부해야 한다"며 오후불식을 하며 대웅전 인근 조그마한 토굴에서 입적 직전까지 정진했다. **조동섭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태국 이주민 한국문화체험 투어



7월 5일 불광사가 주관한 '태국 이주민 법회 한국문화체험' 행사

서울 잠실 불광사(회주 지홍)는 7월 5일 태국인 법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Tour'를 진행했다.

이날 태국 이주민 30여 명은 봉은사와 창경궁, 남산타워 등을 탐방하며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 근 현대상을 몸소 느꼈다. 행사에는 불광사 신도회와 국제포교사회 등이 함께해 통역 등으로 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불광사는 매달 1회 태국인을 위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김천시 다문화 교육 평가회 실시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는 6월 30일 센터 교육실에서 제1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지도사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는 센터장 진오 스님, 송용배 김천시 부시장과 교육지도사 30여명이 참석했다.

평가회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날 진오 스님은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을 한국사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족간의 문화이해가 필수"라며 "향후 방문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이들의 적응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8월 3일~12월 20일까지 총 113세대를 대상으로 2차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장애부부의 막막한 '앞날'

생명나눔 7월 환우 김효자씨



"당신은 손가락이 두 개 없고, 난 눈이 없으니… 이제 당신한테 덜 미안해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009년 7월의 환우로 재발성 난소암으로 시력을 잃은 김효자(55 · 사진)씨를 선정했다.

김씨는 2002년 8월 난소암을 진단받고 7년째 항암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안구, 복강, 근육 등에 농양이 생기고 장출혈에 패혈증까지 생겼다. 결국 농양으로 인해 우측 안구를 적출해야 했고, 결국 한쪽 눈으로 생활하는 처지가 됐다. 진단방사선과에서 경피적배액술, 장혈관색전술을 정형외과에서 근육, 농양절개배액술을 시행했고 이제는 그 동안 미뤄왔던 항암약물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김씨의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어렵게 일하며 치료비와 생계를 유지해왔다.

몇 년 전에는 사고로 손가락 2개가 절단돼 지체장애6급을 진단받았다.

앞으로 부인 병원비인 항암치료비용 1000만원과 미납금액 700만원은 병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건설현장을 오가는 남편이 다친 손으로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진 거라고는 500만원의 전셋집. 전세금을 빼더라도 치료비도 다 갚지 못하는 갑갑한 현실에 남편은 남몰래 눈물을 닦아낸다. 돌밖에 없어 서로가 더욱 귀하기만 한 이 부부가 역경을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이나은 기자**

LA 관음사 도안 스님 사리봉안

홍엽당 도안 스님 입적 3주기를 맞이해 LA관음사(주지 현일)는 7월 19일 '홍엽당 도안 대종사 사리 봉안 법회'를 봉행한다.

한미불교봉사회 및 로메리카불교대학 주관으로 진행되는 법회를 기념해 관음사는 펀치볼 와불산 선림선원에 수목장으로 도안 스님 사리를 봉안하고, 가람 주변 조경불사와 스님부도 비석을 세워 산중가람불사추진사업을 계승할 계획이다. 또 11~17일에는 사리봉안 추모기념 미술품 전시회가, 18일에는 추모강연회가 각각 개최된다. 관음사 주지였던 도안 스님은 1953년 동산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고 1970년대 미국으로 이주해 관음사를 창건, 미주 서부지역 포교활성화에 기여했다. (02)2260-3015, LA (213)819-1010 **이나은 기자**

성원사 여름 수련대회

▣ 기 간 : 3박 4일
[· 12차 : 2009. 8. 1 ~ 8. 4
· 13차 : 2009. 8. 30 ~ 9. 2]

▣ 장 소 :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 경관이 수려한 성원사 정중전

▣ 대 상 : 17세 이상 건강한 남 여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구, 남자흰고무신, 법복

▣ 입회비 : 3만원(농협 351-0035-9790-33 성원사)

▣ 문의처 : 성원사 종무소 033)661-5736

예불, 참선, 경전공부,사경, 발우공양,묵언 등의 수행 생활을 스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 성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sungwonsa.org

성원사 갈앙선원 동안거 방부 안내

청정하고 경관이 수려한 성원사 갈앙선원에서 스스로 없어지려고 노력하는 스님들께 2009년도 동안거 방부를 안내합니다.

❖ 신청 마감일 : 2009년 8월 15일(음 6월 25일)
❖ 신청방법 : 전화 및 팩스로 신청 받습니다.
❖ 당사찰 방문 마감일 : 2009년 9월 8일(음 7월 20일)
❖ 방부 결정 통보일 : 2009년 9월 15일(음 7월 27일)
갈앙선원장이 직접 신청자 면담후 방부 결정합니다.
주육, 오신채를 금합니다.(산철에도 금하여야합니다)
❖ 신청내용 : 법명, 성명, 은사법명, 본사, 비구승납, 승려번호, 현안거선원, 주민등록번호, 연령, 사찰방문일자,연락전화번호
❖ 입방비 : 50만원
❖ 접수처 : 전화 033)661-5736, 3804
팩스 033)661-5726

※ 방사는 큰방과 개인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인성교육에는 사성제·팔정도가 최고예요"



김남선 교사.

한줄기 소나기가 시원하게 쏟아지고 나니 하늘과 세상이 말끔해진 느낌이다. 하늘은 아직도 미진한 듯 먼 북소리와도 같은 천둥소리를 낸다. 강현중학교는 야트막한 산을 끼고 있으며 수목이 많아 싱그러웠다.

해마다 12만 명의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6~7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공교육이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라고 하지만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에 열정을 바치는 이가 있다고 해서, 또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한 마디를 꼭 일러준다는 선생님이 있다기에 강현중학교를 찾았다.

생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김남선 선생님은 한 해가 모자라는 육십이라는데 얼굴이 소녀처럼 맑다. 학교 수업만으로도 벅찰 턴데, 그동안 펴낸 책이 15권이나 된다. <등불의 역사> <배우며 가르치며> <인도에서 온 편지> <5박6일 명상체험기> <엄마,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달라요> <행복을 가꾸는 교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즐거운 국사 32강> 등 목록을 열거하기도 힘들다. 김남선씨는 학교 수업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도맡아 하고 있다.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십여 년의 세월동안 참교육상담소 소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2000년부터 '교육전략21' 프로그램연구위원으로 일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교사들의 마음공부를 위한 '마음자람 메카' 인터넷 카페지기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는 교사들이 모여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아담한 공간 '마음자람원'을 개원했다.

"저는 교사들의 정신이 건강하고 행복감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그 정신과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마음 다스리기와 깨침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요."

일급정교사 자격증연수가 매년 서울대에서 열리는데 그때 천여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마음공부를 강의해 온지도 십년의 세월이 지났다. 김남선씨는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교육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불교와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학생들에게 지식 말고도 '참인간'이 되는 길을 안내해주고 싶었고 전인적인 교육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데는 불교사상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교연구반'을 만들었다. 김남선씨는 "부처님의 사성제와 팔정도는 완벽한 진리이기에 이것만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용타 스님 '당신은 누구인가' 물음에 '나' 보는 시각 달라져

참교육상담소·'교육전략21' 연구위원·'마음자람원' 등 활동

"처음엔 불교를 교리적으로 접근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안의 호두마을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했고, 방학 때는 집중수행에 들어갔어요. 수행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용타 스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느 수련회에서 용타 스님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물음을 삼십 분 정도 파고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나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너'는 또 다른 '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김남선씨는 수업시작 전에 3분 명상을 하는데, 일 년이 지나고 보면 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다. '지금도 벗님이라 부르며 장난을 걸어오는 아이들을 만나면 온 몸이 기쁨으로 차오른다'는 김남선씨는 새벽 5시면 일어나 1시간동안 오체투지를 하고 30분 정도 명상을 하고나서 출근 준비를 한다. 집에서 학교까지 걷기 수행인 경행(經行)을 하다보면 1시간도 금방이란다.

김남선씨는 "역사(歷史)의 사(史)자는 사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면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는 실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참되게 부활시킬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미래를 탄생시키는 시금석이 돼야 한단다.

"저는 가능하면 모든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의 현실로 가지고 와서 자신을 살피는 공부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자기 삶의 창조자요 또한 역사 발전의 주체자로 안내하고 싶어 수업시간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며, 이 우주의 주인공 또한 '나'임을 깨닫게 되지요."

김남선씨는 신라 화랑도의 '세속오계(世俗五戒)'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지켜야 할 오계'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오계'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오계' 등을 스스로 작성해보라고 한다. 역사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 또한 역사의 한 단면임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을 경계하고 조율해나가는 것까지도 배우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큰 뜻이 있어 온 것인데, 가장 창의력이 왕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십대 때 암기식 교육으로 멍드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파요. 암기식 교육은 아이들에게서 창의력과 자유의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암기식 교육에 길들여진 어른들이 만든 제도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단다. 김남선씨가 학생들에게 또 강조하는 것이 인사예절이란다. 수업시작 전에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데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단다.

"인사(人事)는 '사람의 일'이라는 뜻인데,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사람다움을 잘 나타내주는 일이 인사입니다. 그리고 차렷은 '정신 차려라'는 의미인데,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대할 때 깨어서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경례(敬禮)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일가친척, 친구 등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 기쁨이 피어나고 행복감이 증폭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김남선씨는 불교입문을 '부처님 일생 배우기'부터 시작했기에, 이런저런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한 심성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을 처음 활용한 곳이 2005년 괴산 다보사 청소년 명상캠프다.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고자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선사상을 공부하기도 했다.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늘 생각하는 김남선씨 눈에는 나쁜 어른은 있어도 나쁜 아이는 없단다. "나쁜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혼한 부모를 비롯한 문제의 부모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도 힘든데 부모의 욕심과 희망사항을 짐 지워서는 안 돼요.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대로 또 자신이 믿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것이니 자신에 대한 긍정의 강한 믿음이 성공의 열쇠"임을 강조한단다. 이것 또한 지족(知足)의 대표자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알게 되면서 배운 것이란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마음자람원'을 좀 더 활성화해 많은 교사들과 영성교육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나는 누구인가' 이 화두만 해결되면 자신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김남선씨의 한 마디를 가슴에 담고 교정을 나왔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 논설위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 사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U-범어사’ 시대… 천년 고찰이 단말기에 쏘옥

부산광역시와 손잡고 8월부터 ‘U-범어사 디지털 문화해설서비스’ 실시

범어사 입구 관광안내소에서 빌린 단말기를 들고 일주문을 통과하면 창건설화가, 성보박물관의 전시물 앞에 서면 해당 유물의 정보가 흘러나온다. 단순히 보고, 듣고, 기도하던 범어사는 잊자. 손끝 하나로 천년고찰에 깃든 역사와 숨결까지 만날 수 있는 U-범어사의 시대가 도래했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와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는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8월부터 ‘U-범어사 디지털 문화해설서비스(이하 U-범어사)’를 본격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부산시가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비쿼터스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관광안내정보체계인 ‘U-투어피아’의 하나로, 터치스크린과 단말기를 이용해 누구나 손끝으로 손쉽게 전자지도와 관광 · 문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사업이다.

‘U-범어사’는 범어사 경내 및 상마마을 일원에 설치된 U-범어사 폴대에 다가가면 U-단말기를 통해 범어사 창건설화, 고승, 문화재, 불교문화해설 등이 흘러나오며, 성보박물관 주요 전시물 해설, 상마마을 일원의 맛집, 숙박 정보 등의 다양한 스토리텔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RFID 기반의 이 단말기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총 4개 국어로 설정가능하며, 총 50대를 관광안내소에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일주문 인근에 46인치 LCD 터치스크린 1대와 함체로 구성된 DID(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이를 활용한 전자지도 서비스를 운영한다. 부산 항공사진을 활용한 관광자원 검색 서비스와 관광지, 숙박, 맛집, 쇼핑 등 상세정보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범어사 포교국장 일광 스님은 “국내 유일의 문화재로 지정된 일주문부터 <삼국유사> 및 수많은 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산 전체 문화재 중 26%를 보유하고 있어 문화 · 관광 측면에서도 범어사는 아주 중요한 보고”라며 “‘U-범어사’ 서비스를 통해 친숙한 범어사로 한걸음 다가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어사 경내에 설치된 U-범어사 폴대를 구경하고 있는 신도들(위)과 일주문 인근에 설치된 46인치 LCD터치스크린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부산시 관계자는 “U-투어피아 서비스와 같은 선진 관광안내서비스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유용한 여행정보의 제공은 물론,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광수입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기장 무상선원 주지 구주 스님

“불자들 바른 깨달음 얻도록 돕고파”

범어사 산내암자 원효암에 주석하면서 모든 초청법문을 사양해온,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이 부산 외각 작은 포교원의 법좌에 올라 주옥같은 법문을 펼쳤다. 대체 어떤 인연이기에 그토록 만나기 힘들던 지유 스님을 산 아래, 도심으로 이끌었을까?



지유 스님의 상좌 구주 스님(사진)이 6월 27일 부산 기장읍에 포교원 ‘무상선원’을 개원했다. 이날 은사 지유 스님은 직접 법석에 올라 법을 펼쳤다. 지유 스님의 발길을 이곳 무상선원까지 닿게 한 인연은, 범어사 원효암에서 오랜 세월 함께 지낸 상좌 구주 스님이 수행가풍을 잇는 제1호 도심 포교원을 연 까닭일지 모른다.

무상선원은 산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조사선’에 입각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참다운 깨달음으로 이끌 ‘선불교교양대학’을 개강했다. 이곳의 테마는 참선 수행, 간화선, 염불선, 다양한 불교문화 강좌 등으로 포교하는 기존의 불교대학들과는 사뭇 다른, 선 중에서도 ‘조사선’이다.

구주 스님은 “흔히 조사선과 간화선은 같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엄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스님에게 무상선원에 어떻게 가는지 방편을 묻는다. 기차를 타야하는지, 버스를 타야하는지, 몇 번 버스인지 묻는다. 하지만 눈 뜬 스승이 본다면 한심하다. 본인 스스로는 깨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본래부터 무상선원에 있었음을 알기만 하면 된다. 이는 수행방편을 빌릴 필요가 전혀 없다. 본인이 해운대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조사선은 본래 깨쳐있고, 또 내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다. 지유 스님이 그간 펼쳐온 <수심결>의 핵심 또한 바로 조사선이다.

“결국 내가 눈을 뜨면 그뿐이지, 여타의 수행방편, 닦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은 내가 깨닫지 못함에서 출발하는 문밖의 선이라면, 본래 깨달았음을 알아차려야 하는 선이 바로 조사선이고 문 안의 선입니다.”

무상선원이란 이름도 지유 스님이 직접 지은 것이다. 무상(無相) 즉, 모양이 없다는 표면적 의미와 신라 왕족 출신으로 중국과 티베트 불교, 선종사에 큰 영향을 미친 무상 선사의 법명을 딴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조사선의 모든 것을 만나게 될 무상선원의 선불교교양대학은 총 4개월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1시 30분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오후반과 저녁반으로 나눠 각 1시간 30분씩 동시에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기초교리를 비롯해 조사선과 간화선의 역사와 차이점 등 조사선에 중점을 둔 ‘조사선 전문강단’이 될 전망이다.

구주 스님이 만들어갈 무상선원은 ‘깨달음=무상선원’이다.

스님은 “우리는 육체와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참나를 발견하면 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려던 것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이유였고, 그 핵심은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자들이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가도록 돕기 위해 도량을 연 만큼, 무상선원하면 참선 최고, 깨달음에 이르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051) 723-1583

박지원 기자

“전쟁과 테러 몰아내자”

태국서 한국전쟁 참전 UN군 위령재 봉행

한국전쟁에 참전한 UN군의 넋을 기리는 위령재가 태국에서 열렸다.

월드승가회(회장 무송)는 6월 25일 태국 왕실수비대 21연대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전쟁 기념식에서 UN군 위령재를 봉행했다.



중앙에 모자쓴 참전용사는 차이왓 장군. 오른쪽으로 정해문 재태 한국대사와 월드승가회장 무송 스님.

재태 한국대사관(대사 정해문)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국을 넘어 세계 평화를 수호하다 안타깝게 전사한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령재에는 월드승가회장 무송 스님, 재태 한국대사 정해문, 차이왓 참전장군, 왕실수비대 21연대장 및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다.

1부 위령재에서 월드승가회는 21연대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어 2부 문화행사에서는 월드승가회 문화예술단과 백련예술단의 합동 민속공연이 펼쳐졌다.

무송 스님은 “600년 형제의 나라 태국과 한국이 손잡고, 인류평화를 위한 동반자로서 이 땅에서 전쟁과 테러를 몰아내는 선구적 역할을 하자”고 설했다.

박지원 기자

천진불 모여라

2기 수미산원정대

지난해 여름, 수행의 열기로 산사를 뜨겁게 달군 수미산 원정대가 올여름 제2기 100명의 천진불을 모집한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총)는 7월 25~26일 1박2일간 제2기 수미산 원정대를 개최하고, 산청 대원사로 템플스테이를 떠난다.

첫날은 사찰예절 배우기, 명상, 저녁예불 및 108배 등이 마련되고, 둘째 날에는 새벽 3시부터 새벽예불 및 참선, 사경과 포행, 운력, 명상 및 편지쓰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등이 이어진다.

접수기간은 7월 20일까지 선착순 100명에 한하며,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051) 755-5500, www.bulgukto.org

박지원 기자

“신도에 의한, 신도를 위한 절입니다”

우리선원, 아미타 후불탱화 점안 · 개원법회

신도들이 꾸려나가는 신도중심 청정 기도도량, 우리선원(주지 정토)이 7월 7일 개원했다.

부산 온천1동 상가밀집지역에 자리한 우리선원은 7일 오전 10시부터 아미타불 후불탱화 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7월 7일 개원한 우리선원 주지 정토 스님.

우리선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신도들이 직접 재정부터 신도관리, 행정 전반 등 사찰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를 두고 종종 불거지는 불상사들을 미연에 방지해 투명하게 이끌어가겠다는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주지 정토 스님은 “이곳은 주지스님의 절이 아니라 신도들과 함께 원력을 세운 만큼 재정관리부터 모든 사찰운영을 신도들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원을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하루 24시간 법당을 개방해 언제든지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열린 기도도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지스님이 직접 하루 세 번 새벽과 사시예불, 저녁예불을 집전하며, 오직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게 된다.

스님은 “언제 찾아오든 3일, 100일, 1000일 등 원하는 기도를 하시면 원만회향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원력을 모아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051)555-6577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대승보살 운동만이 한국불교 희망"

인드라망 · 실상사 화림원, 제11차 화엄광장 열어

"대비원력이 있어야 현실에서 수행과 일상의 삶이 일치되는 역동적 실천이 이뤄진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와 남원 실상사 화림원(원장 해강)은 7월 3일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 공동체 교육관에서 '新대승불교운동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제11차 화엄광장을 개최했다.



7월 3일 서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교육관에서 열린 제11차 화엄광장 모습.

해강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화엄광장은 법인스님(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이평래 교수(충남대학교)를 좌장으로 도법 스님과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우희종 교수(서울대학교),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안성두 소장, 한겨레신문 조현 종교전문기자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법 스님은 '대승 정법의 등불 新대승불교운동을 제안한다'라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불교는 부처님, 대승 보살, 대승 선사들에 의해 빛을 발해온 정법의 등불인 대승불교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왔다"고 전제하고 "현 한국불교의 암담한 현실이 '자리이타(自利利他)'를 '불일불이(不一不二)'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대승정법불교의 수행론과 불교관을 제대로 이해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현 한국불교를 비판했다.

도법 스님은 한국불교의 위기를 "대승불교로 표현되어지는 정법불교의 사상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대승불교 정신에 입각한 발심, 즉 대비원력(大悲願力)이 확립되어있지 않다. 대비원력이 없으니 현실에서 수행과 일상의 삶이 일치되는 역동적 실천이 나오지 않는다"며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삶에 인생의 열정을 불태울 대승보살 운동만이 한국불교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담자로 나선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한국불교는 지나치게 내부문제에 천착해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없다"며 "행정중심이 아닌 포교와 교육이 중심이 된 21세기 한국불교의 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희종 교수는 "대승불교운동의 '대비원력의 발심행자'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양성하고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발심행자의 서원과 참여를 뒷받침할 만한 한국불교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뼈아픈 변화와 실천적 수용이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조현 한겨레신문 기자도 "한국불교는 관념 속에 갇혀 있었다"며 "현대사회의 문제를 서로 치유하고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은 "대승불교의 시작은 치열한 깨달음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되었다"며 티벳불교의 수행자 밀레레빠의 예를 들며 "깨달음을 위해 치열하게 수행하는 승가의 모습과 모델을 정립하는것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12차 화엄광장은 9월 26일 남원 실상사에서 '처처가 깨달음의 도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주 스님 초청법회 실상사 화엄학림 지구촌공생회에 후원금



납원 실상사(주지 재현)는 7월 8일 중창불사 1000일 기도 중 800일을 맞아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실상사 화엄학림 스님들은 국제구호사업에 써달라며 틈틈이 모금한 후원금 500만원을 지구촌공생회에 기탁했다. 지구촌 공생회는 이날 전달받은 후원금을 네팔의 교육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구촌공생회는 2003년 설립돼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미얀마, 몽골, 네팔, 케냐에서 우물 개설, 교육센터 운영 등 식수 및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성품 깨달아 성불하기를 발원"

제주 대원암 '도민 안녕 위한 방생법회'

제주 대원암(주지 법산)은 7월 7일 '제주도 발전과 도민 안녕을 위한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소년소녀가장에게 자비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문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봉암 스님(일붕선교종 종정)을 비롯해 한명옥 회장(용성진종조사 유훈실현후원회), 이치란 박사(조계종 국제교류위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다 물고기 1500여 마리를 방생하고, 영산작법 의식과 수륙대재도 함께 봉행했다.

이날 도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부처님과 용왕들에게 중생의 풍요로움을 기원드린다"고 말하고 "모든 중생이 저마다의 성품을 깨달아 성불의 인연을 맺기를 발원한다"고 설했다.

법문에 앞서 대원암 주지 법산 스님은 대원암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의 참다운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 대원암은 국제 전법사 양성을 위한 '제주 국제불교자유대학'을 설립하고 9월 3일 개강을 앞두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관 스님, 백양사 운문선원에 대중공양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7월 8일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주지 시몽)를 방문해 하안거 기간동안 정진중인 20여 운문선원 수좌들에게 대중공양했다(사진).

이날 지관 스님은 대중공양에 앞서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주지 시몽 스님, 유나 지선 스님, 운문선원 선원장 동참 스님, 강주 응각 스님, 총무국장 법신 스님과 차담을 나눴다.

지관 스님은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문경 봉암사 방문 정진중인 선원 수좌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친 심신 나들이로 달래주니 즐거워요"

고창복지관, 복운 어르신 나들이

시골 어르신들이 지역복지관의 도움으로 오랜만에 여행길에 올랐다.

전북 고창군노인복지회관(운영위원장 법만, 관장 무공)은 7월 7일 고창지역 어르신 350여 명과 함께 담양 죽녹원과 여수 오동도를 여행하는 제2회 복운 어르신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돼 나들이 기회가 부족한 노인들이 고립된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했다.



고창노인복지관이 7월 7일 가진 어르신 나들이 행사.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어르신들은 대나무의 숨결이 살아있는 죽녹원의 대나무박물관에서 죽향의 신선함을 몸소 느꼈고 여수 오동도 해양박물관을 방문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변영철(71 · 고창군 고창읍) 어르신은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여행 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마련한 나들이 행사로 모처럼 즐거웠다" 며 노인복지회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창노인복지회관 관장 무공 스님은 "행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선운사 법만 스님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자비신행회 부설 자비나눔봉사단 정용운 단장

"남은 인생 봉사하며 나누고 싶어요"

불교에서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며 괴로움을 없애는 일을 자비(慈悲)라고 한다. 지혜(반야)와 더불어 불교 수행자라면 가장 중요한 수행의 2대 덕목에 해당된다.

세계적으로 불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가장 큰 봉사단체를 말한다면 대만 자제공덕회를 들 수 있다. 전세계 200만 자원봉사자를 통해 불교의 자비정신을 구현하는 단체이다.

빛고을 광주에도 1999년 이런 자비정신을 모태로 자비신행회라는 신행공동체가 탄생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자비신행회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비의 도시락과 밑반찬 보내기사업, 생활지원사업, 찾아가는 십시일반 밥차, 무료식당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한꽃외국인노동자센터, 한꽃茶문화아카데미, 시민선방 운영, 불교전문교육기관인 화엄학림과의 장학사업 등의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데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조직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단체가 바로 자비나눔봉사단이다. 정용운 단장은 자비나눔봉사단을 이끄는 선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최근 몇 년간 강원도 폭우와 태안 기름유출사건 같은 큰 재해가 있었다. 비록 '작지만 강한 봉사조직'이 있었기에 발 빠르게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자비를 생활에 실천하는 방법을 체득한 지금이 그는 마냥 행복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남을 돕는 생활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정년퇴임 전 그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24시간 범죄자들과 싸우면서 생활을 하는 수사경찰이었다. 입에서는 항상 범죄자들 제압하고자 욕을 달고 살았고, 마음은 언제나 그들과 같이 격해 있었다.

그런 그가 불교에 입문을 하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가치관과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불교입문한 후 5년간은 너무 힘들었다. 5계를 수지하면서 무척이나 방황을 하고 고민을 했다" "내가 과연 5가지의 계율을 지킬 수 있을까?"

그의 뇌리에 늘 이런 고민을 달고 살았다.

하지만 그는 본래 갖고 있는 불성을 발견했다. 늦게 고향에 돌아오는 듯 편안하고 즐거웠다. 그 후 정용운 단장 부부는 생명나눔 실천회를 통해 장기기증을 신청하고, 불교봉사조직에 투신한다.

겨울이면 독거노인을 위해 연탄 배달을 하고 김장김치를 나눈다. 노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광주공원에서는 점심 봉사, 동지에 동지죽을 나누고, 추석에는 회원들과 같이 추석선물을 들고 어르신들 집집마다 방문을 한다. 정용운 단장이 늦게 돌아와 고향에서 찾은 향기로운 삶이자, 행복한 삶이다.

"남은 인생을 작은 실천이지만 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 정 단장의 마지막 소망이라 한다.

현재 자비봉사단에는 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100개의 손이 움직이는 관세음보살이다. 이제 광주에서도 광주를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봉사단체가 필요하다. 자비신행회에 더욱 큰 활동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님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림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개라고도 합니다.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다관을 엎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大20,000원/中10,000원/小5,000원


둥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흰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덤벙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大 40,000원 / 小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大 60,000원 / 小 40,000원


벚찌화병
大 100,000원 / 小 80,000원


보리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흰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

로터스 월드

BWC화엄다목적센터 기공식

한국불교계 손잡고 캄보디아에 보살행

BWC 화엄다목적센터 기공… 로터스월드 · 화엄회 손잡고 협력 NGO로 발돋움

3월 30일 조계종 해외구호단체 로터스월드와 종책모임 화엄회는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고 BWC아동센터(Beautiful World of Cambodia, 이하 BWC센터) 공동운영 등에 합의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양해각서 체결 당시 주요 합의사항이었던 'BWC화엄다목적센터' 건립 기공식을 비롯한 구호활동을 위해 로터스월드와 화엄회가 캄보디아에서 만났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화엄회(회장 도공)는 7월 7~8일 캄보디아 씨엠립 BWC아동센터 등에서 'BWC화엄다목적센터' 기공식을 봉행하고, 구호활동을 펼쳤다.

7월 7일 ''BWC화엄다목적센터' 기공식에는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과 화엄회 고문 자승 스님(前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을 비롯한 혜일 · 도림 · 원범 · 정우 스님(이상 화엄회), 가섭 · 효진 스님(이상 로터스월드), 운달 · 성정 · 수현 · 일초 스님(이상 비구니 종회의원)과 분타릇 씨엠립 주정부 부지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로터스월드 BWC센터, 현지 호응 커

성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화엄회와 함께 BWC화엄다목적센터를 기공함으로써 로터스월드는 종단 중진스님 등 조계종 전 종도와 국민이 동참하는 명실상부한 국제적 NGO센터가 됐다"며 "BWC는 캄보디아를 이끌 미래 동량을 위한 인재불사로 동남아 일원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로터스월드와 함께 캄보디아의 안정적 의료구호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삽과 함께 첫 삽을 뜨기 시작한 'BWC화엄다목적센터'는 연면적 144㎡ 규모에 캄보디아 전통 압살라 형식(단층)으로 세워진다.

11월 'BWC화엄다목적센터'가 완공되면 진료 · 수술 · 요양 등 각 단계별 공간이 갖춰져 BWC 의료봉사 활동이 더욱 효율적 · 체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진료 봉사 외의 기간에는 선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해 교민 신행 생활에 도움을 주게 됐다.

캄보디아에는 프놈펜, 씨엠립 등 대도시에도 안과전문병원이 없다. 외국 병원은 평균 1일 수입이 2달러인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영구적인 시각 장애를 입은 사람이 많다.

이런 가운데 BWC센터는 서울 김안과 등의 도움으로 매년 5회 이상 의료봉사를 실시해 매회 1500여 명을 진료하고, 50여 명을 수술해 왔다.

이상효 로터스월드 사무국장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현지 주민들을 위해 BWC센터에 진료소를 개원해 김안과병원 등의 도움으로 의료봉사를 해왔다"며 "지역주민들의 위생관념이 낮아 수술 후 귀가시킬 수도 없으나 수용공간마저 부족해 수술한 지역민들이 BWC센터 건물 처마 밑에서 요양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성관 스님은 "프놈펜에서까지 BWC센터로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호응이 크다"며 "BWC센터는 안과 영역뿐만 아니라 의료사업 분야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공식 후 스님들은 행사에 참석한 지역주민에게 쌀 5㎏씩 4톤 분량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구호활동도 진행했다.

#캄보디아에 구호품 · 화장실 · 우물 등 제공

씨엠립 지역만 해도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때문에 아이들의 불편은 물론 위생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날, 로터스월드와 화엄회는 꼭부초교를 방문해 500여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현대식 화장실을 지어주고 학용품 및 구충제를 전달했다.

쏘팔(8 · 여) 어린이는 "연필, 공책 등 학용품을 받아 기쁘다. 화장실이 두 칸 뿐인데다 지저분했는데, 한국 스님들이 새 화장실을 지어줘 고맙다. 한국과 캄보디아가 같은 불교 나라인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8일 스님들은 씨엠립 인근 빈민촌인 빼악산캉드봉을 방문해 식수난 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물과 쌀, 의류 등 구호품을 전달했다.

한편, 캄보디아에 자비와 상생의 연꽃을 활짝 피운 로터스월드와 화엄회의 만남은 NGO단체와 종책모임 간의 관계를 넘어, 10월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무차회(성관 스님)와 화엄회(자승 스님)간의 연대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성관 · 자승 스님은 캄보디아에서 'BWC화엄다목적센터' 기공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해석보다는 해외구호활동의 순수성에 무게를 둬 달라"고 당부했다.

캄보디아 씨엠립=조동섭 기자









❶ 왼쪽부터 자승 스님과 성관 스님이 꼭부초교 어린이에게 구충제를 먹이는 모습.
❷ 7월 7일 BWC화엄다목적센터 기공식의 시삽 모습. 왼쪽부터 수현 · 원범 스님, 분타릇 씨엠립 주정부 부지사, 자승 · 성관 스님, 주한캄보디아 대사관 참사관.
❸ 자승 스님이 7월 8일 빈민촌인 빼악산캉드봉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❹ 자승 스님과 성관 스님이 BWC아동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로터스월드 BWC센터 후원 안내

한국 돈 300원이면
캄보디아 한 어린이가 한끼 식사를,
3만원이면
생활비와 교육비가 해결된다.
30만원이면
한 마을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취할 우물을 설치할 수 있다.
(02)725-4277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201-04-037588
예금주: (사)로터스월드

삼사순례는 문경새재 흥천사로 오세요



동봉큰스님 친필 달마

연꽃 든 달마의 향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매매, 건강쾌차, 결혼성혼
취업, 시험합격, 삼재소멸

동봉 큰 스님께서 중국 육조사 대원 방장으로부터 육조 대가사를 한국 최초로 전수 받으시고 말로만 듣던 기적을 달마대사로부터 선몽으로 연꽃 든 달마를 받으셨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연꽃을 들어 보이시며 이 달마를 이번 생전예수재를 통하여 모든 중생의 업장을 소멸케 하라는 계시를 받으시고 곧바로 일어나시어 일필휘지로 직접 그리신 연꽃든 달마도를 만등 불사에 동참하는 분에게 올리고저 합니다.

태국왕실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산사음악회

제1회 나옹선사 천복 문화 예술제

▶ 초재일 : 양력 6월 28일 (음, 윤 5월 6일) 오전 10시 - 흥천사
▶ 이재일 : 양력 7월 5일 (음, 윤 5월 13일) 오전 10시 - 흥천사
▶ 삼재일 : 양력 7월 12일 (음, 윤 5월 20일) 오전 10시 - 흥천사
※ 산사음악회 : 양력 7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 사재일 : 양력 7월 19일 (음, 윤 5월 27일) 오전 10시 - 흥천사
▶ 오재일 : 양력 7월 26일 (음, 윤 6월 5일) 오전 10시 - 흥천사
▶ 육재일 : 양력 8월 2일 (음, 윤 6월 12일) 오전 10시 - 흥천사
▶ 칠재일 : 양력 8월 9일 (음, 윤 6월 19일) 오전 10시 - 흥천사
▶ 회향일 : 양력 8월 16일 (음, 윤 6월 26일) 경우큰스님 법문

- 주요행사 -
※ 동봉 큰스님 법문 : 매재마다 오후2시-3시
◎ 생전 예수재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만등불사 (초재부터 회향일까지)
◎ 먹거리 장터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특산물)
◎ 불서코너, 불교용품 코너
◎ 웰빙 된장 (보현스님이 직접 담금)
◎ 특산물 (대합찰옥수수, 고추, 절임배추)
※ 산사음악회 : 양력 7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 7시까지
불자가수회 : 남강수, 김활선, 금사향, 선선호, 한도현, 태산법사 외 다수 출연

부처골 풍경소리
cafe.daum.net/jijangsw
달마구입 문의
H.P 011-9585-4908 혜봉 스님

주소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8번지
전화 : 043)833-5525
문경새재 흥천사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관광버스 1대당 10만원 상당의 농산물 및 선물 증정 (지역 경제 살리기)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4

망상의 문은 닫고 들어오라

[원문]
신광불매만고휘유(神光不昧萬古徽猷)
입차문래막존지해(入此門來莫存知解)
–범어사 불이문

[번역]
신기로운 광명 매하지 아니하여 만고에
아름답네
이 문을 들어오거든 망상을 피우지 말라.

[선해(禪解)]
여름휴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때에 불자들은 사찰의 템플스테이에 참석, 참선을 통해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아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 아닐까 싶다. 요즘, 우리나라나 서구(西歐)에서 급격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참선이나 요가 같은 명상수행이라고 한다.

참선(參禪)은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이루시고 난 뒤, 제자들에게 직접 제시한 확실한 깨달음의 정로(正路)이다. 내적으로 참다운 자기의 실체인 본래심(本來心)으로 돌아가 마음자리를 닦아 청정하게 유지하고, 활용하는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참선은 인도의 전통적 수행인 요가에서 시발하여 중국에 이르렀는데 이는 혜능 선사를 거쳐 제자들에게 이심전심으로 깨우침을 얻게 되는 조사선(祖師禪)으로 이어지고, 훗날 스승으로부터 주어진 공안을 상량 참구하는 간화선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불교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임제종 계통의 간화선 수행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으나, 기실 대다수의 초심자들에게 참선이란 접근하기에 그리 용이하지는 않는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어떻든 요즘 사찰 템플스테이에 참선 수행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불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참선에는 많은 관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는데 필요한 소승불교의 기초적 선수행인 오정심관 (五停心觀)은 참선수행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불자나 일반인에게 좋은 선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

첫째, 부정관(不淨觀)은 백골관(白骨觀)이라고도 하며 이는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이 무상하여 다 썩고 문드러져 더럽고 추한 모습을 관하여 육체에 대한 탐욕심을 제거하는 관법(觀法)이다.

둘째, 자비관(慈悲觀)은 중생의 고통스런 삶을 관찰하여 타인에게 무한한 자비심을 내어 분노심을 제거하는 관법이다.

셋째, 인연관(因緣觀)은 삼라만상 모두가 인연생멸(因緣生滅)하기 때문에 욕심내고 성냄이 다 부질없음을 알아내고 그러한 치심(癡心)을 제거하는 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수식관(數息觀)을 들 수 있는데 번뇌, 망상의 일어남을 막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숨을 고르게 하고,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관법이다. 이는 초심 수행자가 가장 많이 하는 참선법이다.

다섯째, 계분별관(界分別觀)은 인간과 세계를 구성하는 사대 지수화풍(地水火風)과 육근인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등 일체가 모두 무상함을 깨닫는 관법이다. 그리하여 나도 공(空)하고 나의 것이라는 것도 아소공(我所空)하고, 온 우주도 모두 공하다는 법공(法空)을 깨닫는 것이다.

범어사(梵魚寺)는 한국불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이다. 원래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십찰(華嚴十刹)가운데 하나인데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 그 후 큰스님들이 나오면서 중창, 선풍을 진작시켜 1913년 선찰로 바뀌었다. 하지만 비로전에는 화엄종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다. 비로자나불은 법신불(法身佛)로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청정법신이다. 범어사는 그 가람배치에 있어 교종과 선종을 아우르는 통불교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은 법신에서 법향이 난다고 한다. 범어사에는 그런 고귀한 선승들이 많다. 화엄십찰이 선찰대본산으로 바뀌게 된 것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였던 경허 스님 때문이다. 스님은 1900년 범어사에 선원을 개설 수선결사를 주도, 새로운 선수행(禪修行) 풍토를 조성하였는데 그 뒤를 이어 용성, 성월, 동산 스님이 범어사 각 암자에 선원을 창설하여 많은 선승들을 배출 양성하였다. 그리하여 범어사는 한국불교의 선찰대본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 선불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일제하에 있었던 외쳑불교에 대한 저항운동 때문이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 후 민족적 정기를 끊기 위해 승려들을 결혼시켜 막식막행(莫食莫行)을 일삼도록 방조했는데 이에 사상적, 신앙적으로 피폐된 조선불교계의 현실을 바로 잡고 전통조선불교를 수호하기 위해 선불교 운동이 범어사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특히 범어사 선승들은 선학원과 선우공제회 창립 때 주도적 역할을 맡으면서 선불교 중흥을 꾀하면서 일본의 한국불교 말살정책에 대응해왔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불교진흥운동과 근대교육 및 계몽운동에 앞장서는 등 수행과 교육, 포교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3·1 운동 때는 이곳에서 수행하던 승려들이 '범어사 학림의거'라는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으며, 전국에서 쓸 태극기를 범어사 암자에서 만들었다. 또한 수시로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몰래 보내는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해방이후 범어사에서 배출한 선지식들은 일본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통을 세우기 위해 정화운동을 이끌어온 주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범어사가 크게 중창하게 된 것은 조선 광해군 때와 숙종 때다. 범어사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조계문인데 이는 일주문을 대신한다. 조선시대 중기 다포식 가구의 전형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는데 보물 제1461 호이다.

불이문은 천왕문과 함께 창건한 건물이다. 앞면 3칸, 옆면 1칸의 작은 규모로 겹처마의 맞배지붕이다. 낮은 기단 위에 원통형의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공포는 내외 2출목의 주심포 양식으로 전체적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모습을 계승하고 있는 건물이다. 기둥에 적힌 주련은 근·현대의 대표적인 선승인 동산 스님이 써서 걸었다.

'신광불매만고휘유'의 신광(神光)이란 부처님의 위대한 팔만사천 법문을 가리킨다. 이것은 만고의 아름다운 진리이다. 그러므로 '입차문래막존지해'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는 세상의 망상인 모든 알음알이를 버리라는 뜻이다. 역으로 말해, 곧 부처님이 계신 이곳을 들어서고 나갈 때는 세상의 모든 시름과 망상을 놓고 가라는 경구(警句)이다.

오늘 날 세상은 지식의 홍수로 인해 인간의 두뇌가 어지럽다. 이러한 지식들은 한갓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젠 머리와 마음속에 든 삿된 거짓과 망상들을 지우는 것도 이 세상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부처님이 바라 볼 때 중생은 한갓 바다에 노니는 물고기와 같고 산에 뛰노는 노루와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엾은 중생들을 위해 널리 보제(普濟)를 행하였던 것이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은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주는 약방문과 같고 차안에서 피안으로 강을 건너게 하는 뗏목과 같다. 부처님은 중생을 너무나 사랑하는 의사이자 뱃사공, 아버지 같은 스승이 아닐 수 없다.

■ 조계종 원로의원

문명 발달할수록 인간의 고뇌 깊어 참선 '열풍'
자신의 내면 관조하며 삶의 에너지 충전해야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4

마음의 크기를 아는가?

[원문]
聖人 種種分別 皆不離自心 心量廣大 應用無窮 應眼見色 應耳聞聲 應鼻嗅香 應舌知味 乃至施爲運動 皆是自心.“성인들의 갖가지 분별은 모두 자기의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니라. 마음의 크기는 광대한 것이라 응용은 끝이 있을 수 없느니라.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알며, 생각으로 분별하며,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곧 마음이니라.”

[해설]
'성인들의 갖가지 분별은 모두 자기의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니라.'

'성인'이란 도를 깨달은 분들을 말합니다.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한 하나의 마음을 쓸 수 있는 분을 성인이라 합니다. 우리는 너와 나를 따로 보고 분별해서 행동하지만, 성인은 항상 우주와 내가 하나임을 알고 행동합니다. 우주 근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마음을 쓴단 말입니다.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말과 행동을 하지만 성현들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행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행입니다. 이 말을 지혜라고도 하지요.


백석(白石) 노인의 달마도(1913년 작)

어떤 분이 <반야심경>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 너머에 연기가 보이면 불이 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지혜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런 것은 지혜가 아니고 세속적 지식의 놀음입니다. 우주의 근본 마음자리는 모양이 없으니까 문자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당체에서는 그 어떤 표현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담장 너머에 소꼬리가 보이면 '아! 저것은 소구나' 하고 알죠? 하지만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꼬리만 보고도 소인 것을 아는 것이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분명 다릅니다. 소의 꼬리도 우주와 하나로 보는 견해가 바로 반야의 논리이며 지혜의 논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무루복(無漏福)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루복이란 '새지 않는 복'을 말합니다.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면 너와 나가 따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에게 한 끼의 공양을 대접하였다면, 우리는 상대를 보고 하잖아요. 상대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인과에 걸려서 새는 복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인과가 옵니다. 그러나 상대가 우주와 하나라고 본다면 우주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우주를 상대로 복을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새지 않는 무루복이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 나쁜 일 겪는 일들은 인과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자식을 낳고 낳지 못하는 것도 인과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행위가 우주를 상대로 행한다면 그 상대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반야에서 보면 모양이 아닙니다. 성인은 우주를 하나로 보고 행하지만, 중생들은 근본을 모르고 겉모양만 보고 행하기 때문에 인과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쓰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베푸는 것도 우주를 상대로 마음을 두고 행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무루복을 행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덕과 지혜를 완벽히 갖추신 분입니다.

'마음의 크기는 엄청난 것이라 응용(온갖 미묘한 작용)은 끝이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본래면목은 우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비해 육신은 우주 차원에선 티끌도 안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평생 잘 먹이기 위해서 살잖아요. 아무리 잘 입히고 먹이고 한들 죽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주객이 바뀐 삶을 살고 있다고 설한 것이죠.

<법성게>에서 "한 티끌 속에 우주를 머금고 있다(一微塵中含十方)"는 말은 티끌과 우주가 그대로 하나이기에 나온 말입니다. 이렇듯 위대하고 큰 마음을 우리는 잘못 쓰고 있습니다. 우주와 같은 큰 마음을 우리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무시이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집착하며 살아옴으로써 쓰지 못할 뿐입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알며, 생각으로 분별하며,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곧 마음이니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맛을 보는 모든 것이 마음 아닌 게 없다는 말입니다. 육안의 눈으로 보는 중생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현의 세계에서는 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모든 행동 또한 마음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은 귀가 듣고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겁니다.

물질과 공은 다르지 않습니다. 얼음과 물이 다르지 않듯이 물질과 마음은 곧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가 다 마음입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일체가 다 마음으로 나타난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마음 아닌 게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09. 7. 25(토) 오후 1시부터 ~ 7. 26(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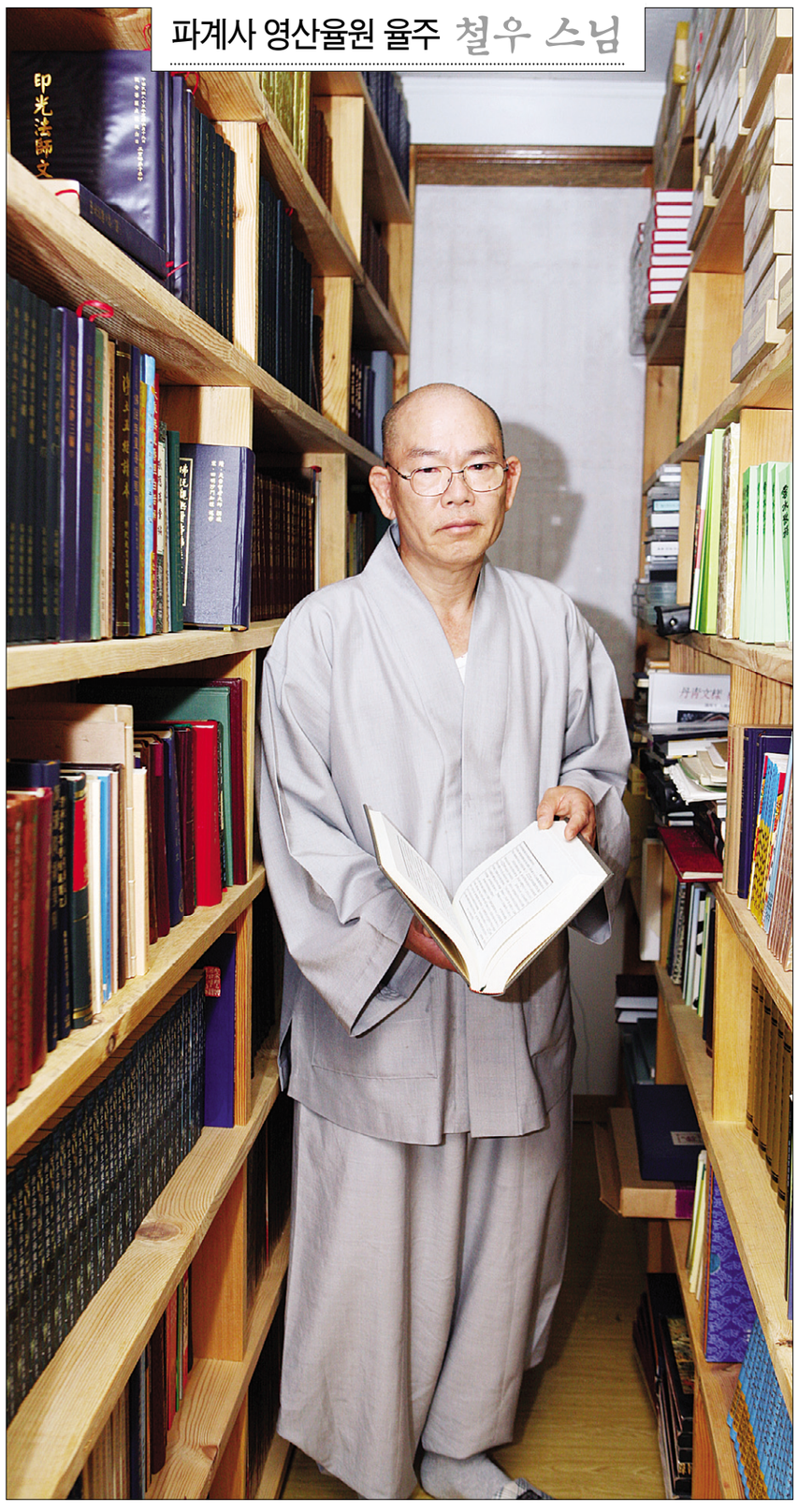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공경받고 싶은가? 먼저 남을 공경하라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



철우 스님은 ...

1959년 경북 청도 적천사에서 향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의정부 망월사에서 향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수지. 합천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부산 범어사승가대학(2회) 졸업. 해인총림 율원 졸업. 호경 강백으로부터 전강, 자운 율사로부터 전계. 조계종 행자교육원 습의도감, 계단위원회 위원, 단일계단 구족계 존중 아사리, 법계위원회 시행위원, 파계사 영산 율원 율주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천천히 가는 것을 겁내지 마라〉 〈욕심을 버리는 방법〉 등이 있다.

선지식을 찾아서 철우

파계사로 가는 길은 가팔랐다. 가파른 길일수록 숨을 고르면서 느린 걸음으로 가야 하는 법. 느리게 걷다 보니 아카시아 나무며 이끼 낀 참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좀 더 걸음을 늦추니 낮게 엎드린 보랏빛 달개비 꽃이며 주홍빛 나리꽃이 보인다.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면 나무들의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꽃잎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계절마다 들려주는 산의 울림은 다르다. 칠월의 산이 들려주는 소리엔 생명력이 가득하다.

동화사의 말사인 파계사(把溪寺)는 신라 애장왕 때 심지왕사가 창건했다. 파계사 인근에 아홉 갈래나 되는 물이 흘러내려가 땅의 지기(地氣)가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 아래 연못을 파고 물줄기를 모았다는 데서 지어진 이름이다. 계곡을 잡는다는 뜻이 담겨있건만 어떤 이는 계(戒)를 파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사명(寺名)이 참으로 파격적이라 한다나. 하지만 파계사는 영산율원을 두고 있어 '계율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영산율원은 총림이 아닌 단위사찰로서는 조계종 최초의 율원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율사인 철우 스님과 마주 하니 무엇부터 여쭈어야 할지 갑자기 앞이 탁 막히는 느낌이다. 먼저 계율의 의미부터 여쭈었다.

"계율이란 행위, 습관, 도덕, 행동과 언어에 악을 짓지 않고 방지하는 계(戒)와 부처님들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과 여러 가지 잘못과 악을 억제하는 율(律)을 합한 말입니다. 부처님은 '살생하지 않아 자비심을 길러야 하고, 훔치지 않아 베품을 배워야 하고, 사음을 하지 않아 정결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 진실해야 하고, 술을 마시지 않아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행으로 살아야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계율은 대중을 화합시키므로 꼭 지켜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철우 스님은 '계율을 지니면 성품이 강직해져서 융화가 되지 않고 편벽된 사람이 된다'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그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계를 가지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뉘우치는 잘못이 없게 하는데 뜻이 있고, 뉘우치는 잘못이 없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지혜는 계에 의해 청정해지고 계는 지혜에 의해 청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철우 스님의 거처는 한글대장경을 비롯해 온통 책으로 둘러싸여 있다. 다른 책에 비해 두 배 정도 큰 책이 있기에 궁금해 여쭈었더니, <사분율장>이라 했다. <사분율장>은 계를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책으로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금서(禁書)라고 했다. 스님께서 몇 년에 걸쳐 <사분율장> 한글 현토번역본을 완역했는데, 이것은 전국의 율원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다고 했다. <사분율장>을 번역한 것은 철우 스님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했다. 율원에서는 새벽 예불을 마치고 학인들과 함께 <사분율장>을 간경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을 앞두고 아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며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남을 등불로 삼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철우 스님은 이렇게 해석했다.

"유언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대한 진리에만 따르라는 마지막 계목이라 할 수 있어요. 계율의 폭은 넓어서 성품까지도 조복할 것을 요구하며 몸과 입과 뜻의 삼업(三業)을 금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과 장로들이 그러한 것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발전해 대단위 계율이 된 것이란다. 철우 스님은 '모든 계법 가운데 5계가 가장 기본이며 그 가운데서도 불살생을 계의 근본으로 삼는다'고 했다.

동진 출가한 동기를 여쭈었더니 "그 시절엔 내 뜻이 따로 있나요. 어른들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라고 답한다. 향봉 스님을 은사로 동진 출가해 직접 완역한 '사분율'로 새벽 예불 후 학인들과 간경

"불살생이 계의 근본이자 큰 생명으로 가는 첫걸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자생활을 했다'면서 율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순전히 강원 도반인 성우 스님 덕분이라 했다.

"강원을 마치고 성우 스님이 해인율원으로 간다기에 나도 율원으로 간 것이지, 큰 뜻이 있어 간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철우 스님은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도 꾸미지도 않는다. 계율의 폭은 넓어서 성품까지도 조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비구는 신구의(身口意) 삼업이 청정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철우 스님은 통도사 강원에서 공부할 때 산중의 어른이신 벽안 스님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다고 했다.

"벽안 스님은 학인들이 무서워하리만큼 엄격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먼 길을 다녀오시면 빈손으로 그냥 넘기지 않는 '어른 사랑'을 보여주시곤 했어요. 한 번은 스님께서 학인들에게 연필 한 자루씩을 선물했는데, 연필에 '정신 차려, 벽안'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무섭기만 했던 분이었는데, 자상한 배려에 한편은 놀라고 한편은 가슴 뭉클했던 기억입니다. 스님은 사랑받고 공경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의미의 가르침을 연필에 새겨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공경하지 아니하면 박복해지고 공경 받지 못하면 마음에 그늘만 드리울 뿐이라고 말미에 덧붙였다.

성우 스님과 철우 스님은 제방선원에서 평생 동안 참선 수행하는 수좌들처럼 평생 동안 계율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율원을 만들자는데 뜻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파계사에 영산율원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율공부를 위해서는 율원을 강원처럼 4년 과정으로 늘여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던 철우 스님은 2005년 대학원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계율연구원 '비니원'을 개원했다. "비니원(毘尼院)이란 율원이라는 뜻인데, 뜬금없이 영산율원에 비구니율원이 생겼다고 한때 소문이 돌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만큼 계율에는 등한시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했다. 스님은 또 계율에 관한 장서를 모아놓은 도서관 '비니장'을 만들어서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했다. 영산율원을 통해 해인사 前 율원장 혜능 스님,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 송광사 도일 스님 등 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스님은 5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불살생을 지킴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보다 큰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했다. 부처님은 살생은 '자비의 종자를 끊는다'고 하셨다. 한 생명이 상하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이 상하는 것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할 터이다. 재가불자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율은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계율이면서 이것처럼 지켜지

유기농 보이차(ORGANIC PUER TEA)
유기농 보이차의 보급화 선언!
현불샵(hyunbulshop.com) 입점 기념 15%할인 판매
250,000원 ⇨ 15% DC 특별 할인가 212,500원
아주 특별한 선물 유기농 보이차 선물세트 (유기농보이차 숙차 357g + 대나무보관통 +보이차 다기세트 7종)

1등급 100% 유기농 보이차만을 엄선하여 준비했으며 보이차 전용 다기세트는 드리는 분의 정성과 선물의 격을 한층 더 높혀 드립니다.
• 제 6기 중국보이차 "보이차왕" 수여
• 미국 FDA, 유기농인증 획득한 USDA
• 일본 유기농인증기관인 JAS

중국 보이차 기업 중 최대규모인 670만평 이상의 보이차 생산단지와
100%유기농법으로 생산하여 그 품질과 맛이 가장 뛰어난 (주)고진 유기농 보이차 !
후 발효차인 보이차의 깊은 맛과 오묘한향의 끝맛을 그대로 발효시켜
황제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유기농 보이차입니다.

중국에서도 유기농회사로서 처음으로 생산 공정과 가공공정 발효공정에 특허를 받아
용생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발효시켜서 만든 유기농보이차입니다.
중국황제가 마시던 보이차는 오래 묵을수록 귀한 고가의 차며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거치는 후 발효차이며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고가품의 차가 됩니다. 방습통풍이 잘되는 적절한 온도하에서 보이차는 독특한 맛과 향, 약효를 가지게 됩니다.

유기농 보이차는 상류층이 주로 애용하는 고가의 차이며 국가주석 후진타오도 보이차를 즐겨 마시는 보이차 애호가입니다.
중국의 주석 후진타오가 용생유기농 보이차를 접하고 나서 유난히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현재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용생 보이차만을 애용하고 있고 최고의 품질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국제적으로 홍보를 대신해 주고 있으며 유명인사 방문 시 용생의 보이차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 유기농 보이차 숙차
· 제 품 명 : 유기농보이차 숙차 · 식품유형 : 침출차 · 내용량 : 357g
· 제조회사 : Yunnan Longsheng Green Industries (group) LTD
· 원재료명 : 보이차 100%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수입판매 : (주)고진 · 포장재질 : 종이제
· 제조일자 : 2007년 03월 01일 (제조일자는 2007년이지만 2006년에 수확한 찻잎을 사용해 제조하였습니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년 (보이차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때문에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만 잘 하시면 훌륭한 보이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불교온라인쇼핑몰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 최고의 신문!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불교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보도하는 현대불교신문은
연합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한국불교신문, BBS 청주불교방송, HCN 충북방송, 충청권 일간신문(충북일보,충청매일, 충청타임즈,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대전일보)에 실시간으로 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
대전,충남,충북
+ 사찰의 법회, 행사 취재 보도
+ 사찰의 홍보 및 광고
+ 신문사(통신사)에 기사작성 제공 (연합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제보·구독·광고문의
• 충북지사 : 043-732-5560 • 대전지사 : 042-223-8214
• 지사장 : 010-9522-8453 (혜철스님) • 기자 : 010-5078-9748 (이한배 기자)
현대불교신문 1인 1부 구독하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최고를 지향하는 충청지사가 되도록 저희 임직원 일동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지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편리합니다. (통장번호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행복의 법칙 경전에 다 있어

지 않는 계율도 없다고 했다.

"술은 무려 36가지 잘못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혹독한 망신살이 항상 숨어 있어요. 술은 지혜와 좋은 뿌리를 없애고 법의 보배를 모두 없애니 큰 도끼와 같고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라 했어요. 제 정신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반야탕이니 곡차니 하는 별명으로 마시기도 하고, 신통이 자재한 고승의 흉내를 내어 무애행으로 여겨 불음주계를 지키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한다면서 부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한 맹세를 깨뜨리는 파계는 결코 자랑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계율은 부처님의 교육관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정한 것이 계율인데,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는 후손이 잘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수행자의 위의에 맞지 않게 옷을 입거나 행동한다면 타인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겠지요? 계율이 없으면 부처님의 법도 있을 수 없어요.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정법(正法)이 빨리 없어짐을 부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원래 도(道)라고 하는 것은 '눈 위에 찍힌 사슴의 발자국'을 뜻한다고 해요. 사냥꾼이 발자국을 따라 사슴을 포획하듯이 구도자는 스승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 해탈문에 들어서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닮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철우 스님은 '법은 바로 부처님의 유산'이라 했다.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가 열두 살 되던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와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라훌라의 손목을 이끌고 제자인 사리불에게 가셔서는 "이 아이를 출가시켜라"고 이르셨다. 부처님의 유산은 바로 '법'이었던 것이다. 이 법은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물려준 유산이란다.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佛法)을 스스로 망치는 것이라면서 과연 유산대로 잘 살고 있는지 모두 반성해 볼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부처님은 '지혜, 계율, 도덕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지계(持戒) 제일'인 우바리 존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바리는 궁중에서 머리를 깎는 이발사였다. 이발사라는 직업은 인도의 사(四)계급 중 가장 천한 계급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 고향에 돌아오시어 법을 설하자 석가족의 왕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출가했다. 왕궁에서 왕자들의 머리를 깎아주던 우바리는 천한 몸으로는 출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



은 출가를 허락했다. 우바리가 출가한지 17일째 되는 날, 난타 왕자는 정식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부처님은 늘 하던 대로 출가한 순서대로 절을 받게 하시었다. 난타는 차례로 절을 하다가 맨 끝에 앉은 우바리 앞에 이르러서는 절을 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불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계행을 청정하게 지키고 정진해 덕을 닦아 교만한 마음을 항복 받는 수행의 결과가 제일이다. 출가한 순서로 정해지나니 형으로 삼아서 존경하고 대접하도록 하라."

그러나 난타는 선뜻 우바리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간곡하신 말씀으로 일렀다.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수백 수천의 냇물들도 마침내 바다로 모이며 일단 바다에 이르면 모두 한 맛인 짭짤한 바닷물이 되듯 누구나 교단에 들어오면 똑같은 사문일 뿐이다."

난타는 이윽고 우바리에게 공손하게 절을 했다.

"부처님은 많은 귀족들의 반감을 샀지만 교단 안에서의 일체 불평등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출신에 관계없이 교단에서는 평등했고, 부처님 자신도 평등한 일원으로서 일체의 특권을 거부했습니다."

철우 스님은 '계는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벌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불가에서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참회(懺悔)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 용서와 관용으로 감싸주는 너그러움이 있다. 우선 참회라는 말의 뜻을 나누어 보면 스스로 범한 잘못을 뉘우쳐 용서를 비는 것을 참(懺)이라 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처님, 보살님 어른 대중 앞에서 고백하고 사과하는 일을 회(悔)라 한다. 철우 스님은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으나 그 수습하는 태도에 따라 크게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백 년 동안 때 묻은 옷이라도 하루 동안에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백천겁 동안에 지은 모든 악한 일도 불법의 힘으로 잘 수순해서 닦으면 일시에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스님께 행복의 법칙을 여쭈었더니 '경전에 행복의 법칙이 다 나와 있다'고 답했다.

"행복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쓸 데 없이 큰 욕망을 부리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을 누리라는 것이지요. 방이 수십 개라도 내가 누워 잘 곳은 한 칸이요, 땅이 아무리 많아도 죽어 묻힐 곳은 반 평이면 됩니다. 내가 과연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란 불자로서 오계를 잘 지키고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리라. 어느 시인은 모든 소망을 단념하고, 목표와 욕망도 잊어버리고, 행복을 입 밖에 내지 않을 때 영혼은 비로소 쉬게 되는데, 그때 행복이 찾아온다고 했다. 행복을 누릴 만큼 성숙해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철우 스님은 한 마디라도 허투루이 내뱉지 않는다. 부처님의 육성을 바탕으로 해서 법문하고 경책하는 것이다. 오늘 스님의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육성을 오롯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52. 불입종 종정 태허 홍선 큰스님

'개시오입' 의미 담아 불입종 창종… 법화사상으로 정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 나 자신을 형성해 갈 일이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세로서 자신을 찾는 일은 영원한 빛을 향한 기원이다."(태허홍선(太虛泓宣) 스님 유문집 <성불도>에서)

대한불교불입종은 우리나라 18개 종단의 하나이다. 법화사상을 배경으로 한 종단이 7~8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각 국사를 종조로 모신 종단은 그리 많지 않다. 1965년 이홍선 스님께서 창종을 한 뒤 1972년 정식으로 종단으로 발전했으며, 본사는 스님의 주거지인 종로구 숭인동 묘각사였다. 스님의 아들 홍파 스님이 동국대학교 후배인 까닭에 종종 묘법사에 들렀는데, 정근 하는 소리가 특이했다.

"나무 산달마 푼다리카 수드라(南謨 薩達摩 芬多利伽 修陀羅)."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은 청년들이 이렇게 토론하고 있을 때, 스님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시며,

"잘 한다. 잘해. 한국불교의 장래는 바로 너희들의 두 어깨에 달려있다."하시고 칭찬하셨다.

'불입종(佛入宗)'이란 <법화경> 방편품에 "여래의 지견을 열어(開) 보이고(示) 깨달아(悟) 들게 한다(入)"는 말을 줄여서 부른 이름이다. 여래의 지견은 '제법실상(諸法實相)'이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이와 같은 상(相), 이와 같은 성(性), 체(體), 력(力), 작용(用)에 의해 나타난다. 그 밑바닥에는 이와 같은 인(因), 연(緣), 과(果), 보(報)가 있어 이것을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본말구경(本末究竟)이다.

이것을 중국의 지의 대사는 지관(止觀)을 통해 완성했지만, 고려의 대각 국사는 정혜겸수(定慧兼修)로써 체득했는데, 홍선 스님은 "나무 살달마푼다리카수드라"로써 증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종단은 불교교리가 바탕이 되어 창립됐기 때문에 사찰관리나 종도 문제 때문에 분열이 생기지 않아 화합종단으로서 진리 탐구에만 열중할 뿐이다.

스님의 법명은 홍선이고 법호가 태허이다. 전주 이씨로 속명은 용이이고 1905년 서울 견지동에서 태어났다. 1928년 경성고등전문학교를 나온 뒤 어머니가 별세하자 인생무상을 느끼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가 1930년 선암사 경운 스님께 발심하여 출가했다. 선암사 강원을 마치고, 동두천 백운암에 이르러 천일 안거하고, 중국불교 순례를 떠났다가 목불 한 분을 모시고 돌아와 서울 낙산에 자리 한 것이 묘각사 본당이 됐다.

한국 전쟁 당시는 상주 백화암에서 <법화경>을 사경하고 지냈으며, 서울로 올라와서는 매일 같이 탑골공원에 나가 포교했다. 1957년 법화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모아 '일승현정회'를 창립하고, 1965년에는 대한불교불입종을 창종했다.

이 종단은 '나무 산달마 푼다리카 수드라'를 주력염송함으로써 법화삼매에 들고, 이를 정혜겸수(定慧兼修)로써 체득해 인류의 성불을 실현코자 한다. 또한 기복신앙으로서의 불교가 아닌 '복될 일을 하자'는 불교, 재래 인습적이고 타율적인 종교가 아닌 자율적인 종교로서 자오(自悟), 자각(自覺), 자증(自證)의 불교 신앙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총본산 송화사(충북 제천시 봉양읍)를 비롯한 전국 150여 사찰과 230여 스님들이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앞으로 불입종은 행자 수련원을 설치해 종도 교육을 체계화 하는 한편 총본산 송화사 성역화 사업 및 전통사찰 등록, 태허홍선 대조사 조사당 건립, 청소년 및 문화포교 강화 등을 통해 종단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1970년에는 한일불교친선회 고문으로 추대되고, 1971년에는 정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았으며, 전일본불교회의 초청으로 일본 불교를 돌아보고 오신 뒤로는 오직 포교와 전법에만 열중하시다가 1979년 6월 24일 세수 74세, 법랍 50세로 묘각사에서 입적하셨다. 128과의 사리가 나와 묘각사 경내에 사리탑을 세웠다. 제자에는 홍파 · 경조 · 경암 등이 있다.

재단법인 '관음종'이 만들어지자 경조 · 경암 스님이 홍선 스님의 큰 뜻을 계승해 사단법인 불입종을 그대로 계승하고 홍파 스님께서 관음종을 이끌어 한국 10대 종단 가운데 하나로서 화합종단의 기치를 높이 들어 선양하고 있다.

'나무 묘법연화경'을 인도의 원음 그대로 읽는 것이다. 까만 동전에 누비 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 노랑 가사를 두르신 스님께서 한번 앉으시면 두 세 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진하셨다.

"스님, 덥지 않습니까?"

"통산(洞山)은 무한서(無寒暑)라 하지 않았는가. 공부하는 사람이 춥고 더운 것 가리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나. 후원에 가서 공양이나 하고 가소."

하여 후원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토론하곤 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분명 이 세상에 태어나 80세로 죽었는데?"

"그것은 방편이야.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방편이고, 출가 수행한 것도 방편이고, 도를 이루고 전법도생(傳法度生)한 것도 방편이고, 80세에 열반에 드신 것도 방편이야. 방편을 알면 진실을 알 수 있어. 그것이 곧 <묘법연화경(妙法蓮花經)>이거든."



45인승 최신형 관광버스 무료지원합니다!

삼사순례 · 방생법회

순례지
1 옥천대성사(선남선녀인연맺기) 안심사(대둔산) 반야사(황간)
2 보석사(금산) 안국사(무주) 영국사(영동)
3 관촉사(논산) 개태사 쌍계사
4 갑사 신원사 마곡사

방생지
1 금산 부리면 적벽강
2 영동 양산 금강상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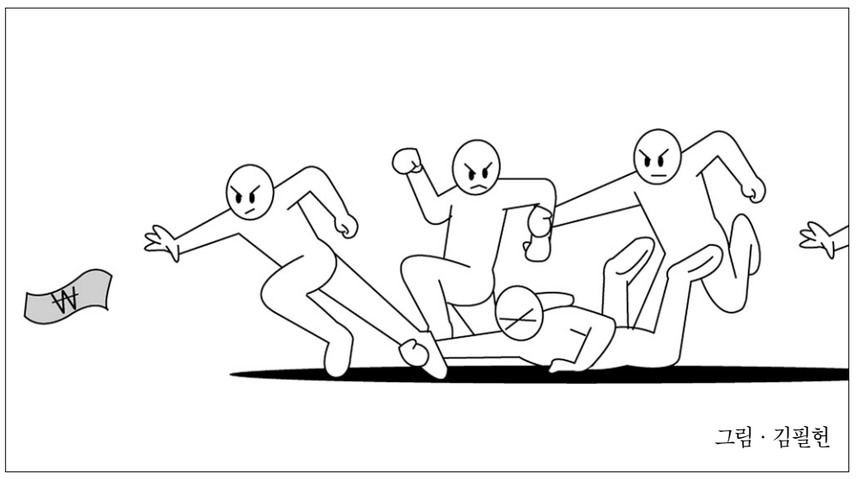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소장: 정성운 / H.P: 010-5541-5535 / TEL: 070-7764-9002
금산인삼영농조합법인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6>

경쟁은 행복한 삶 위한 수단일뿐 목적 안돼

'건강하고 빚 없는 삶' 스미스의 '행복관' 빗나가


그림 · 김필헌

도덕적 감정의 면에서 생각을 다듬은 스미스는, 그것을 떠받치는 사회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했다. 국가가 그 권력에 의해 지탱, 유지해야만 할 틀로서의 '정의의 원칙'을 꼽았고 그 바탕위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정의의 원칙이란 ①개인의 생명과 인격의 보호 ②재산의 안전 ③권리의 보전, 이 셋이다. 이 틀 가운데서 시민사회가 바라는 것은 개인의 건강, 재산, 신분, 명성 등이다. 이것들은 각각 이기적 본능과 결부되고 있다. 그 위에 전개되는 경제의 세계는 '편의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요컨대, 사리(私利)의 추구는 틀림없이 도덕적으로는 저차원이지만, '정의의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시인되어, 도덕적 세계의 일부를 이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리를 추구하는 경제인(homo economics)은 덕 있는 선비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아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계속했다.

"모든 사람은 정의의 법을 범하지 않는 한, 각인각색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노동과 자본을 다른 어떤 사람 또는 다른 계급 사람의 그것과 경쟁시키려고 해도 무방하다."

스미스에게는 자연 조화에 대한 신앙과 신흥시민 및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과대한 신뢰, 평가가 있었다. 그 평가가 그들의 진전하는 부(wealth)에 대한 길은 그대로 '덕으로의 길'이라고 믿어 의심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스미스가 전제로 한 신뢰 혹은 평가야말로 스미스 경제학의 '속임'현상을 일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마디 덧붙인다면, 위와 같은 낙관론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미스는 교육도 민간의 자유경쟁에 맡겨야만 할 것을 설파했지만, 경쟁을 위한 경쟁과정에 노동자가 타락할 가능성을 염려해 교육에 관해서만은 정부에 의한 민중(공)교육을 하는 쪽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했던 것이다.

'속인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온당한 단어는 아니지만, 실은 스미스 자신이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 설명해보기로 한다.

스미스는 경제가 발전하여 자본주의가 융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분업과 경쟁이 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고, 이 두 가지 속성에 주목했다. 그런데 그 분업도, 경쟁도 다 같이 인간을 왜곡시켜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분업과 경쟁은 '불행의 종(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어째서 스미스는 '불행의 종'인 분업과 경쟁에 그토록 가치를 부여한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미스의 '행복관'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가 말하는 행복이란 "건강하고 빚이 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하는 생활이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누구나 노력한다면 이와 같은 행복이라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목적, 즉 빚이 없는 생활을 목표로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이나 지위 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목적과 수단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만다. 재산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타인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한번 경쟁하기 시작하면 도중에 그만둘 수가 없다. 무한히 경쟁을 지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경쟁을 위한 경쟁으로 휘말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은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고 수단인 경쟁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이와 같은 현상을, 스미스는 "자연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이 사람을 속임에 따라 상호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사회가 발전되어 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경쟁이 사회의 부(wealth)를 균형적으로 증가시켜 가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스미스가 말하는 행복의 구체적인 이미지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활현실에 호소하는 것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스미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 주위를 둘러보면 부채를 안고 살아가는 서민이나 위생상태가 열악해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빈민층을 적지 않게 봤을 것이다. 전체의 부가 커져서 풍요롭게 된다면, 필경 행복한 사회가 탄생될 것이라고 스미스는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자연이 사람들을 속여서 경쟁을 부채질하고 사회의 부를 풍요롭게 해 갈 것을 선의에 가득 찬 기분으로 기대했었음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사회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스미스는 '경쟁의 속임'을 긍정한 것이다.

스미스는 또 새로운 경제인의 도덕성을 신뢰하고 있었고 노동자는 정부에서 교육한다면 인간적인 향상과 사회적 도덕성을 도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낙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여러 가지 폐해는 제거될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경쟁시장에서 속이기는 어차피 속이기이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정신적 행복을 잃어버리고 물적경쟁 속으로만 치닫게 된다. 돈(money)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에 사람들은 그 '돈 돈'하며 결국 배금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족(知足), 곧 '만족을 안다'고 하는 발상과는 다소 거리가 먼 서구 자본주의 사리(私利)에서는 시장 경쟁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당초부터 어려웠다. 따라서 영미문명권이 주도해온 과도한 시장경쟁의 속임현상으로 인해 최근 미국 월가 금융시장의 파탄이 크게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그것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기는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스미스가 '자연이 사람을 속였다'고 한 경쟁의 영향은, 그 자신 개인의 행복과 국부의 증진을 위해 '좋은 일이다'고 평가했지만, 그러한 낙관론이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로 진보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 존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⑥ 코칭의 철학

허달의 불교와 코칭

내면의 잠재력 끌어내줄 코치가 필요

'절대로 답을 주지 말라'는 것이 코칭의 철학이라면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이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원칙이 된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둘째, 사람들에게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안에 있다.

셋째, 해답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파트너(코치)가 필요하다.

첫 회에서 소개한 것처럼 코칭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아내게 하는 프로세스란 뜻이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것인데, 실은 인간에게 내재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우주에 편만한 지식과 능력을 가져온다는 설도 있다. 다만 어떻게 이를 가져올 것인가가 문제인데, 요즘 세간에 널리 읽혀진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는 '끌어당김(Attraction)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 훨씬 전에 루퍼트 쉘드레이크(Rupert Sheldrake)라는 진보생물학자가 '형태장에 대한 공명 현상(Morphogenetic Resonance)'이라고 부르기도 한 것이 그것이다. 즉 간절히 원하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니, 불자의 눈으로 보면 "원(願)을 세우면 이미 이루었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다른 이름을 빌어 재조명하고 있을 뿐.

두 번째 답, '그 사람 안에 있다'는 말은 다소 설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답이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까지는 해답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즉, 이른 바 '아하 모멘트(Aha! Moment)'를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아하, 이걸 내가 왜 못 생각했지?" 또는 "아하! 이건 내가 알고 있던 얘기잖아?" 하는 앎(Awareness)의 단계를 지난 뒤 비로소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것은 코치가 아닌 고객이 해주었으면 더 좋을 법한 이야기지만, 답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와주는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고객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역할만 할 수 있다면 된다는 것이니, 이것은 마치 헛노는 펌프에 부어 넣을 깨끗한 마중물이 없을 때에는 비록 개숫물이라도 어쩔 수 없이 가려 부어야 하는 상황에 비유하면 좋을 듯 하다. 코칭이 마중물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이런 관점에서도 비롯되었을 것이다.

코칭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코칭의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일어난다. 바탕이 되는 것은 코치와 고객 간의 신뢰인데, 이를 위하여 코치는 좋은 품성을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또 코칭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한다. 코칭의 장(場)에 이르러서는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고객의 리더십 또는 리더 패러다임 평가 결과 등을 함께 다루며 신뢰성의 재구축, 커뮤니케이션의 향상, '승-승(Win-Win)'의 각본 쓰기 등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낸다. 이때 고객과 코치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여야 하며, 고객이 마음 놓고 자신의 내면을 들어내어 보일 수 있도록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어미 날짐승이 품은 수정란 하나. 이 닫힌 생명계의 잠재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잠재력은 누구의 주도하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 생명으로 탄생하는가?

선가(禪家)에서 쓰는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의미 심장하다. '줄(啐)' '탁(啄)' 모두 날 짐승의 부리를 칭하는 한자어. 줄은 어린 병아리의 부리, 탁은 어미의 부리를 뜻한다고 하며 동사로 쓰면 부리로 쪼는 행위를 말한다.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 그 닫힌 생명계 내에서 수십억 년에 걸친 생명진화의 과정을 압축진화하고 나면 마침내 병아리의 형태를 갖추어 부리를 알 껍질의 내벽에 쪼는 자세로 받쳐대게 되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밖의 어미가 정확히 그 맞댄 자리를 쪼아야 껍질이 깨어지며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가에서는 진여(眞如)의 안팎 훈습에 의해 무명 칠통(漆桶)이 깨어지는 깨달음의 현장을 은유하는 말로 쓰이지만, 고객의 주도 하에 코치의 도움으로 고객 내면에 있는 잠재력이 현실화 되는 코칭의 순간(Moment of Coaching)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겠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다원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수좌에게 면벽참선 이상의 공부가 어디 있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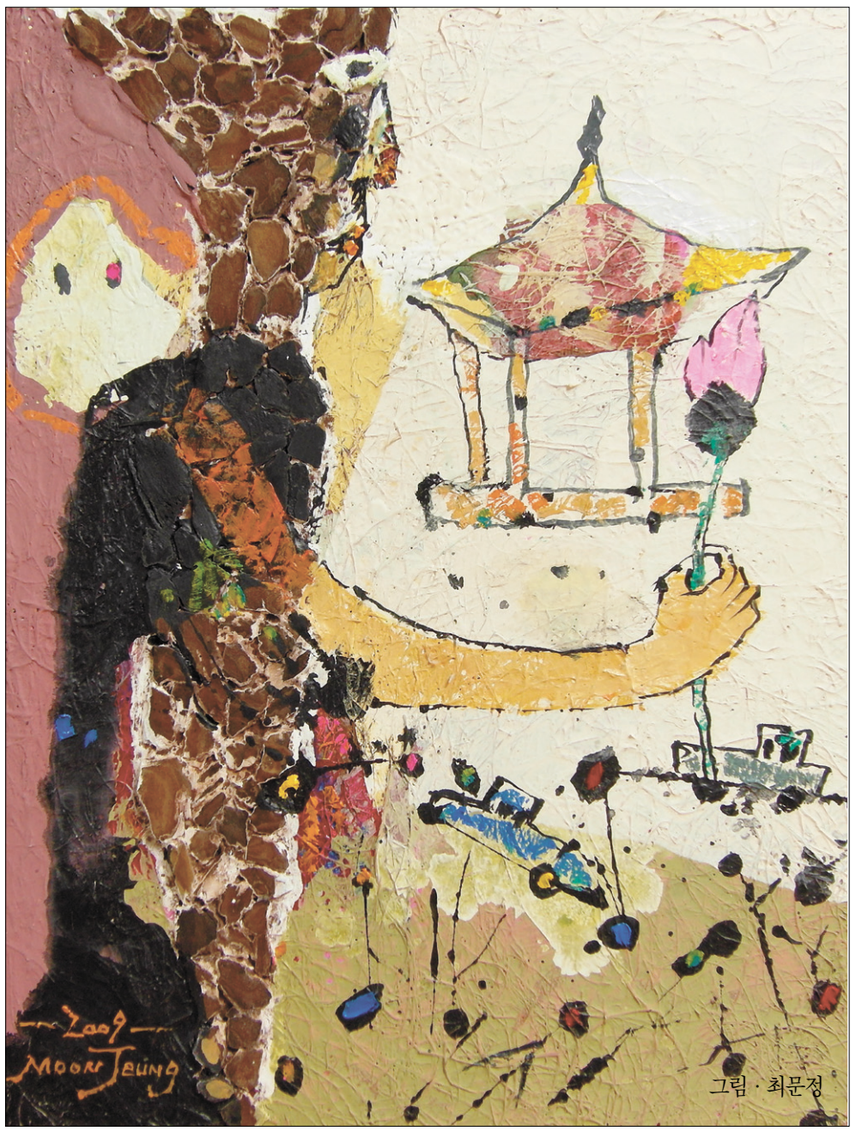


그림 · 최문정

월현 스님 일가친척이 출가한 사연듣고 자신의 식구들도 출가시키리라 다짐

혜암은 범어사 일주문을 세 번째 들어서고 있었다. 한 번은 선지식 동산 회상에서 정진했고 또 한 번은 보살계를 받고자 찾아왔던 것이다. 동산은 늘 참선하는 수좌를 우대하고 반겼다. 6.25 전쟁 중에도 참선하는 수좌들이 범어사 선방으로 모이는 이유는 동산의 그런 가풍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동산이 오로지 참선만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불학이나 계율에 정통한 강백이나 율사를 범어사로 불러 강설하도록 했다. 전쟁 중에 범어사에 머무른 강백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운허였던 것이다. 해인사와 통도사에 머물던 율사 자운도 가끔 범어사를 들렀다 가곤 했다. 대처승으로 남아 묻힐 뻔했던 운허를 범어사로 가도록 하여 청정비구의 길로 들어서게 한 사람도 바로 자운이었다.

혜암은 단숨에 산길을 올라 범어사 일주문 그늘에 앉아 땀을 들였다. 적십자기를 단 군용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경내를 수시로 들락거렸다. 전투복 차림의 군인들이 줄을 지어 이동하곤 했다. 혜암이 땀을 들이고 있는데, 일주문 저편에서 군인이 다가왔다.

“도민증 좀 봅시다.”

“중이 무슨 신분증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스님을 포항으로 보내야겠습니다.”

“포항에 무슨 절이 있다고 그러오.”

“포항으로 가면 제주도 훈련소로 가는 배가 있소.”

군인은 스님들 중에서 나이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징병하고 있었다. 포항에는 장정들을 실어 나르는 군용 화물선이 있는 모양이었다. 혜암은 범어사 선방을 왔다가 군인으로 차출될 위기를 당했다.

“이보시오. 나는 출가한 중이라는 말이오.”

경비를 보고 있던 군인은 막무가내였다. 혜암은 임시군막으로 따라 갔다. 임시군막 밖에는 나무 그늘 아래 장정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있었다. 그때 범어사 스님이 달려와 혜암을 보더니 합장했다.

“이 스님은 재작년에 우리 절에서 보살계를 받은 분입니다.”

“승려증이라도 보여주시오.”

혜암은 걸망에서 승려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제야 군인이 임시군막으로 혜암을 불러들여 사과를 했다.

“스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군대 가지 않으려고 승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의심한 것이니 용서하십시오.”

“중이라도 나라에서 부르면 가야지요. 피할 생각은 조금도 없소.”

“스님은 동안이십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니 말입니다.”

군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혜암은 30대 초반이었다. 혜암은 임시군막을 나와 범어사 스님과 경내로 올라갔다. 경내에도 군용 차량들이 군데군데 주차해 있었다.

“법당은 물론이고 요사채까지도 전사자 유골들이 보관되어 있어 스님들이 거처할 곳이 불편합니다. 조실스님께서 곧 국방부장관을 만나 조속히 유골들을 치워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시인데 말을 듣겠습니까.”

“조실스님께서 무슨 방도가 있겠지요.”

혜암은 유골이 들어차 비좁아진 법당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뒤 바로 조실채로 갔다. 동산은 혜암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환하게 맞이했다. 조실 방이라고는 하지만 초라했다. 벽에는 여기저기 빈대 똥이 누렇게 묻어 있었고, 벽지는 오래되어 찢어진 채 흙이 드러나 있었다. 군인들에게 시달린 탓인지 동산의 안색도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혜암은 삼배를 올리고 무릎을 꿇었다.

“조실스님, 방부를 들이려 왔습니다.”

“혜암수좌 같은 공부인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네. 지지난 해던가, 그때도 혜암수좌 혼자만 안거증을 받지 않았던가. 기억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걸망을 풀게나.”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어서 가보게.”

그러나 혜암은 곧장 물러서지 않고 망설였다.

“나에게 할 말이 있는가.”

“저어, 범어사에 언제까지 군인들이 주둔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군인들이 들락거리니 수행하는 데 방해가 크지. 더구나 전사자 유골들이 법당마다 가득 차 있으니 말일세.”

혜암은 좀 전에 만났던 스님이 한 말을 떠올리며 말했다.

“조실스님께 무슨 방도가 있으신지요. 범어사 스님들도 조실스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눈칩니다.”

동산은 눈을 잠시 감더니 미소를 지었다. 오래 전부터 생각해 둔 것이 있다는 표정이었다. 혜암은 더욱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조실스님, 밝히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전사자 유골들을 안치했다가 연고자가 나타나 매장하는 것은 유교식이지. 그런데 말일세,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간단해. 천도재를 지내주어 전사자의 영가들이 왕생극락하게 되면 그만이지 않은가. 뼈를 장작더미처럼 쌓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야 알 것도 같습니다.”

“천도재, 그러니까 위령제를 지낼 생각이네. 이승만 대통령을 부르면 국방장관도 올 것이네. 그때 국방장관을 설득해서 전사자 유골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할 것이네.”

“조실스님, 명분과 실리를 함께 얻는 방법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각한 방편이 아니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얻은 것일세.”

혜암은 원주스님이 배정한 요사채 골방으로 갔다. 골방에는 이미 한 스님이 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스님은 해인사 스님이었다. 혜암은 안면이 낯설지 않았다.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하여 스님이 된 월현(月現)이었다. 월현도 전쟁 중이지만 참선을 하기 위해 범어사 선방을 찾아온 수좌였다.

그날 밤 혜암은 월현에게 자신이 해인사에서 속가로 갔다가 범어사로 돌아온 얘기를 했다. 그러자 월현은 다음날부터 혜암과 마주치게 되면 자신의 집안 친족들이 하나 둘 출가한 사연을 들려주었다. 혜암은 일가친척 41명이 출가한 월현의 얘기를 부럽게 들었다.

“우리 친족들이 출가의 불연을 맺게 된 것은 외증조할머니인 평등월 보살의 영향이 컸어요. 7일 장례기간 동안 내내 방광(放光)의 이적을 보였어요. 밤이 되면 불이 난 것처럼 훤했다고 그래요. 이적을 본 큰외삼촌이 맨 먼저 출가했는데 그 분이 바로 해인사 백련암에 계셨던 법안(法眼)스님이에요. 두 번째로 출가한 분은 나의 외할아버지인 추금(秋琴)스님이지요. 세 번째는 막내 외삼촌인 진우(震宇)스님이고요.”

월현은 혜암과 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자신의 속가 친족들이 출가한 사연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곁들였다. 이를 테면 법안스님은 4형제 중 맏이였는데 부인과 외아들을 남겨 둔 채 천진도인 혜월 선사의 제자가 되었고, 추금스님은 어머니의 방광과 아들이 출가한 이후 수년 동안 거사 신분으로 금강산 마하연, 지리산 칠불암, 송광사 삼일암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늘그막에 출가하였고, 진우스님은 일본 명치대학교에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통도사 고경 강백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다.

월현의 얘기는 그해 동안거 기간까지 이어졌다. 혜암은 다른 잡담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월현의 일가친척이 출가한 사연을 듣고서는 늘 신심이 났다. 눈이 잘 쌓이지 않는 범어사에 오랜 만에 서설이 내렸을 때였다. 월현과 혜암은 어수선한 전쟁 분위기 속에서도 어렵게 차를 구해 우려 놓고 다담을 나누었다.

“백마지기가 넘는 농사를 지었던 셋째 외삼촌도 속가 큰형님인 법안스님을 해인사 백련암으로 찾아갔다가 한 달 만에 출가하고 말았지요. 자운스님을 은사로 보경이란 법명을 받았어요. 물론 외할머니를 비롯해 셋째 외삼촌 식구들도 이어서 해인사로 출가하고, 마지막으로 둘째 외삼촌도 한량 생활을 접고 외가의 머슴들과 남은 가족 6명을 데리고 해인사로 향하여 영천스님이 되었지요. 외가에서 모두 35명이 출가한 셈이지요.”

“월현스님, 친가에서는 몇 명이나 출가했습니까.”

“모두 6명입니다. 어머니는 추금스님의 맏딸이었는데 아버지를 만나 맏딸 경희, 나, 사의, 명희를 두었지요. 모두 출가했습니다. 누나가 가장 먼저 금강산 법기암으로 출가했고, 나는 외할아버지인 추금스님께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고 말씀하시어 해인사로 출가했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가 막내동생을 데리고 윤필암으로 출가했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수덕사에 계시는 만공스님을 찾아가 법진스님이 됐고, 동생 사의는 추금스님을 따라서 통도사로 가 고경스님의 제자 일타스님이 되었지요.”

혜암도 자신의 속가 식구들을 반드시 출가시키리라고 다짐했다.

그해 여름이 되자, 월현의 속가 동생 일타가 진양 응석사에서 단식기도를 마치고 범어사로 왔다. 일타는 월현보다 언설언변이 더 뛰어났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월현보다 흥미롭고 맛깔스럽게 했다. 더구나 전쟁 중에도 세계문학전집을 독파했을 만큼 독서를 많이 하여 박학다식했다. 불경(佛經)과 외서(外書)까지 그의 독서편력은 넓고도 깊었다. 솔직히 혜암은 그런 일타의 탐구력을 부러워했다. 그러면서도 혜암은 대문장가 같은 일타에게 자신이 앞설 수 있는 능력은 참선정진뿐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안거 기간에 동산은 보제루에서 능엄경 법회를 열었다. 능엄경을 강의할 스님은 운허 강백이었다. 일타가 혜암에게 귀띔을 했다.

“운허스님이 이번에 능엄경 강설을 한답니다. 운허스님은 대문호 춘원 이광수 선생과 인척간인데 이광수 선생이 운허스님의 속가 사랑방에서 한때 식객으로 있었다고 해요.”

“선원 대중도 보제루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합디까.”

> “이번 철에 참으로 공부한 수좌는 혜암이다”

혜암이 시큰둥하게 되묻자 일타가 머쓱해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 들으면 여래장에 저촉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강백의 강설이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난 듣지 않겠습니다. 수좌에게 면벽참선 이상의 공부가 어디 있겠소.”

“학인은 물론이고 선방 대중도 모두 참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혜암이 단호하게 말하자 일타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일타의 얼굴은 해맑았다. 응석사 법당에서 7일 동안 밤낮으로 단식기도를 하고 난 뒤의 얼굴이었다. 그런데 일타는 혜암의 수좌다운 칼칼한 태도가 부러웠다. 자신은 혜암에 비해 강철 같은 근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도 혜암과 일타는 범어사에서 한 철을 나는 동안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탁마의 도반이 됐다.

“이번 철에 참으로 공부한 수좌는 혜암이다.”

동산은 하안거를 해제하는 날 혜암에게 안거증을 주면서 격려했다. 그때 일타는 혜암과 같이 자신도 ‘일일일식, 장좌불와 수행을 해야지’ 하고 서원을 세웠다. <계속>



거목의 자애로 밝혀주는 중생의 길

광우 스님 가르침 담은 '회향'… '신행불교'에 실은 권두언 모아



"창밖의 빈 나뭇가지를 응시하며 나도 모르게 내 머리를 만지고 내 행색을 훑어본다. 수없이 법(法)을 말해 오면서 얼마나 법답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추운 사람들의 추위를 헤아려 보았던가. 아픈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했던가. 억울한 이의 울음을 함께 울어 주었던가. 없는 자의 없음을 같이 시려 했던가. 이어지는 물음에 다만 뭇 중생을 향한 참회의 합장을 올린다."

우리 시대의 비구니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하여 남성 양복을 입고 다녔던 광우 스님.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비구니 강원의 첫 졸업생이었고 조계종 비구니로는 최초로 비구의 '대종사'에 해당하는 명사법계를 품수했다. 광우 스님은 '최초'라는 기록을 많이 가졌다. 기록으로 남는 최초가 아니라도 광우 스님은 포교 분야서 큰 행보를 보였다.

스님이 1969년에 창간해 1996년까지 27년간 발행 해 온 <신행회보>는 문서포교 역사의 한 축이었다. 포교를 위한 신문이나 잡지 등이 활성화 도지 않은 시기에 '신행회'를 조직해 회보를 꾸준히 발간했고 회지 차원을 넘어 전국의 신행단체와 군부대 등에서 각광받았다. 발간 11년 만에<신행불교>로 제호를 바꾸면서 명실상부한 포교잡지로 자리매김을 했다.

1958년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설립한 정각사를 중심으로 펼친 광우 스님의 포교활동 업적을 묵묵히 대변해 주는 <신행불교>가 폐간 14년 만에 새로운 빛을 얻었다. 광우 스님이 매 호마다 썼던 권두언을 정리해 <회향>이란 이름으로 출간했다. 비구니계의거목이 드리우는 서늘한 그늘이다. 27년간 쓴 권두언을 수행과 포교 교리 등 분야별로 정리했다. 좁지 않은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의 글들은 오늘날 불자들의 가슴을 콕콕 찌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법을 보는 자 여래를 본다는 정법의 메시지를 위해 몸소 궁행 하신 스님의 자취가 영원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회향>의 발간을 주도한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은 책머리에서 "<신행불교>가 간행되던 1969년에서 1996년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불교계 역시 매우 다사다난했던 세월이었다"고 회고 하며 "스님께서는 짧지 않은 이 기간 동안 경전, 교리, 신앙생활, 교단행사, 사회문제 등 다방면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때로는 지혜를 때로는 격려와 위로를 주셨다. 스님 개인적인 삶의 자취뿐만 아니라 격동기의 한국 불교계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내용도 실었다."고 밝히고 있다.

광우 스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신행불교>의 편집 일을 했던 수필가 맹난자 선생은 발문에서 "왕성한 생명력을 펼치던 생의 여름은 비껴가고 가을 기운이 완연한 스님의 존안을 뵈면서 자연의 순리를 목도하게 된다"며 애잔한 회고를 보였다. 올해로 출가 71년을 맞은 광우 스님은 이제 담담히 정각사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한 치도 흐트리지 않으며 불교의 현대화와 한국비구니계의 위상을 정립한 광우 스님이 헤쳐 온 시간들은 이제 한 권의 책 <회향>으로 법계에 회향되고 있다.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2800원

임연태 기자



'선어' 모르면 '선' 안된다



"선은 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사를 좀 정리하고 선의 마음으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한 번만 더 마음을 가다듬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좌선을 통하여 체험적 사색과 실제적인 탐구를 곁들인다면 선미(禪味)의 한 조각을 맛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색 없는 선은 없습니다."

민족사의 왕초보 시리즈 '선' 편에서 저자 윤창화 씨는 고구정녕하게 독자들을 설득한다. 선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하지 않고 많은 에너지를 주는 진정한 공부라고. 그러나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직접 가부좌를 틀고 앉아 보라고 한다. 마음을 쉬어보라고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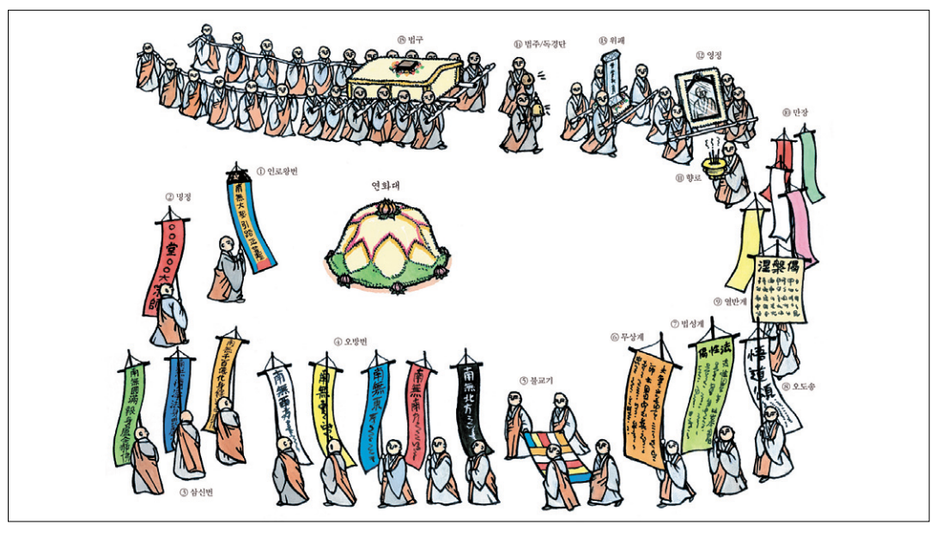
그러나 몸을 눌러 앉힌다고 선이 되는 것도 아니다. 선에 무슨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은 알아야 한다.

호흡이나 화두나 단전이나 그게 뭔지 알아야 바른 좌선이 된다. 선과 관련한 용어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허깨비를 보고 부처님이라고 절하게 되는 것이다.

<왕초보 선박사 되다>는 뭐가 허깨비이고 뭐가 진면목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갖추도록 선어들을 자세히 풀어주고 있다.

선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에 이어 화두의 의미와 참구방법, 선의 사상적 뿌리, 대표적인 화두, 선을 이끌어 온 인물과 책, 가려뽑은 선어록이 대강이다. 책의 말미에는 선어단구풀이도 실었다.

윤창화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1500원



다비식장 그 장엄한 법문을 그리다



스님들의 장례절차, 영결식과 다비식은 법문이다. 특히 다비식은 절차와 격식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고 그 절차와 격식이 모두 중요한의미를 담고 있다. 한 번의 다비식에 불교의 생사관과 우주관이 들어 잇는 것이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는 근래에 입적한 큰스님들의 다비식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물론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 임종게 등을 망라했고 영결식과 다비식 풍경을 아주 섬세하게 그렸다. 풍경만이 아니라 그 안의 모든 동작과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세요."

다비장에 마련된 연화대에 불을 붙이는 거화(炬火) 순서에서 남은 사람이 떠난 사람을 위해 하는 마지막 외침이다. 이제 관이 들어 있는 연화대에 불이 붙을 것이니 그 안에 있는 육신은 놔두더라도 마음은 밝고 신령스러운 곳으로 나아가 해탈성불하시라는 의미다. 다비식의 절정인 셈이다.

책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입적한 큰스님 17명의 다비현장이 담겼다. 석주 서옹 숭산 청화 법장 정천 서암 스님 등 이 시대의 큰스님들이 들려주는 마지막 '무언법문'이 오롯하다. '진짜 사리'다.

임윤수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주인공아, 초심으로 돌아가라"

지안스님 '초발심자경문' 강설 '처음처럼' 출간

"<초발심자경문> 한 권만 똑똑히 배우면 중노릇 잘 할 수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경전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고려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지은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신라 원효 스님이 지은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고려 야운 스님이 지은 '자경문(自警文)'을 합본해 수행법과 마음가짐을 가르친 명저다.

강원 사미과(沙彌科)의 기본교재인 <계초심학인문>을 현대인을 위한 불교 입문서로 쉽고 자상하게 강의한 책 <처음처럼>(조계종출판사)을 펴낸 지안 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 원장)은 6월 26일 인터뷰에서 "초심은 순수한 신심"이라며, "이 초심이 지켜져야 불교 공부도 꾸준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안 스님은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정각을 이룬다(初發心時便正覺)고 했듯이 발심이 잘 되면 성불이 기약된다"며 "세상 모든 일도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의 올곧고 투철한 정신 하나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수한 발심을 뜻하는 '초심(初心)'은 <유마경>에서 강조되는 '직심(直心)'과 다름 아니다. '직심이 도량'이라고 했듯이, 순수하고 곧은 마음은 불심이자 저마다 가진 본래의 성품(性品)이나 다름 없다. 때문에 매순간 초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깨달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많은 사람이 공문(空門) 속에서 도를 얻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오래도록 중생의 괴로운 세계에서 헤매고 있는가?"

지안 스님은 특히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로 시작되는 자경문의 첫 구절은 "요즘도 가슴을 찌른다"고 말했다.

화가 나거나 '내가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주인공아'로 시작되는 구절을 생각하며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게 된다는 것.

지안 스님은 "수행자는 한 시도 방일하고 쉴 틈 없이 정진해야 함을 자경문을 일깨운다"며 "이 책을 통해 발심 공부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처음처럼 | 조계종출판사 | 지안 강설 | 1만800원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지리산 스님들의 못말리는 수행이야기	천친, 현현	불광출판사
4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들
5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6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7	인과경	현담	선
8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
9	엄마	탁낫한	조계종출판사
10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초발심자경문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식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째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심의필번호 제070605-중-336호
건선치료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이젠 긁지 마세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
습진, 알레르기, 비염, 갑상선클리닉, 임파선클리닉
풍부한 치료 경험,
정통 한방 치료법을 바탕으로
자생초 한의원 아토피크리닉에서
아토피 환자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자생초한의원
www.jasaengcho.com
TEL 053)746-0075
위치 : 대구 지방노동청 옆, 아웃백(황금점)옆

박물관의 재발견 휴식 재미 만끽하자

고판화박물관 '숲속 판화학교' & 목아박물관 박물관학교

여름휴가와 방학을 맞아 불교박물관에서 문화예술과 불교를 배우고 느끼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휴가문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 원주시 치악산 명주사의 고판화박물관(관장 선학, 033-761-7885)은 방학을 맞아 '가족이 함께 하는 숲속의 판화학교'를 개설, 운영한다. 7월 25~26일과 29~30일, 8월 1~2일과 8~9일 모두 4회에 걸쳐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의 템플스테이를 겸한 문화체험을 위해 '숲속의 판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1박2일 코스로 진행되는 판화학교는 박물관 견학과 목판화 제작 체험, 판화를 이용한 전통 책 만들기, 다도체험, 예절교육, 아침산행, 명상체험, 단체판화 찍기, 감자 굽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로 진행된다. 또 24~25일에는 '대학 박물관과 함께 하는 숲속의 판화학교'도 열리며 내달에는 서울 중구청 어린이집과 함께 하는 '장애우를 위한 판화학교'와 '노인을 위한 판화학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숲속의 판화학교'에서 목판화를 제작 중인 가족의 모습이 정겹다.

고판화박물관(www.gopanhwa.or.kr)은 명주사 주지 선학 스님이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 인도 등 동양 각국의 고판화 자료들을 수집해 전시한 곳으로 목판원본 1800여 점을 비롯해 고판화 작품 300여 점, 목판서책 200여 점 등 모두 25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선학 스님은 "자연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명상을 하는 이번 행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뮤지엄스테이'를 모범적인 휴가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역사의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2009년 제14기 여름 박물관학교'를 연다.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학교는 8월 18~19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헤이리예술마을, 목암미술과, 중남미문화원, 임진각, 제3땅굴(DMZ 영상관), 도라산전망대, 증권박물관 등 파주시, 고양시 일원을 답사한다. 또 피자 만들기, 고구마 구워먹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이뤄진다.

목아박물관(www.moka.or.kr)은 "이번 여름학교는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물론 DMZ 연계관람으로 평화와 생태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3~5일, 선착순 40명만 접수(031-885-9952)한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나옹 선사 추모 행사 '풍성'

괴산 흥천사 8월 16일까지 '나옹 선사 천복문화예술제'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靑山兮要我以無語)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蒼空兮要我以無垢)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聊無愛而無憎兮)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聊無怒而無惜兮)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如水如風而終我)."

나옹(懶翁, 1320~1376) 선사의 유명한 선시 '청산은 나를 보고'가 탄생된 괴산 흥천사에서 선사를 추모하는 문화예술제가 열린다.

세계불교법왕청 총본산 흥천사(조실 동봉)가 주최하는 '나옹선사 천복(天福)문화예술제'가 7월 12일 개막됐다.

지역경제 살리기 및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함께 하는 먹거리 지역특산물 시식 체험 행사를 겸한 이번 행사는 12일 오후 2시 풍물놀이에 이어 난타공연, 타묵 퍼포먼스, '청산은 나를 보고' 음성 공양, 괴산어리랑 부채춤, 신립 장군 극락무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또 불자 원로가수인 남강수, 금사향, 김활선씨 등의 공연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노래 한마당 등 산사음악회도 열린다.

흥천사는 이와 함께 8월 1일에는 천복문예상 시상식과 '나옹선사 문학의 밤' 행사가 개최하는 등 16일까지 문화예술제를 진행하며, 이 기간 태국왕실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도 공개한다.

고려 말기의 고승으로 공민왕의 왕사를 지낸 나옹 선사는 인도의 고승 지공 화상의 제자이며, 무학 대사의 스승이다.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한 흥천사에 머물면서 '참선곡(參禪曲)'을 지었다고 전해온다.

신라 선덕여왕 11년에 창건된 흥천사는 원효 · 나옹 · 무학 대사가 정진하던 유서 깊은 도량이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흥천사에 머물면서 쓴 비석이 남아 있다. (043)833-5525


나옹혜근 선사 진영.

김성우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교예술 포교 기틀 마련하겠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 초대 이사장 초격 스님

"불교청소년 관현악단 설립 등 불교종합예술단으로 발돋음해 포교와 신행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17주년을 맞은 불교계 대표 청소년 포교단체인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앞둔 초격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 · 사진)이 7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포교 청사진을 제시했다.

스님은 "출가승으로서 포교는 생사를 담보한 수행"이라며 "불교 포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미진해 늘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20여 년간 어린이포교 등 불교 씨앗 심기에 앞장서 왔다. 초격 스님을 이사장으로 이사진 등을 구성한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은 연내 사단법인 추진을 비롯해 뮤지컬 '손오공' 공연 등 다양한 음성포교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 3월까지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을 설립하고 지역지부를 개설하는 등 불교를 대표하는 종합예술단으로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초격 스님은 "어렸을 때 불교합창 등을 접한 아이들이 성악 등을 전공해 다시 불교계 포교저변확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 불사는 포교영역을 넓히고, 문화예술 포교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뜻 깊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임원진 취임법회는 7월 17일 오후 6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후원의밤 공연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전통다례 무료 체험

경복궁서 10월까지

문화재청·명원문화재단

7월부터 10월까지 경복궁에서 전통 다례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과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함께 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일반에 상시 개방된 경복궁 내 건청궁에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린다.

참가자들은 전통차 예절을 배우고 전통차를 맛볼 수 있으며, 차 문화사, 차의 종류와 제다법, 차의 효능도 배울 수 있다. (02)3700-3919

김성우 기자

"가슴 속에 추억 안고 가세요"

공주 마곡사 토요 작은음악회 열려… 12월까지 매주 공연

"조용히 타오르는 저 언덕길에 살며시 떠오르는 너의 모습 영상 속에 스며드는 너를 찾아서 작은 들길을 걸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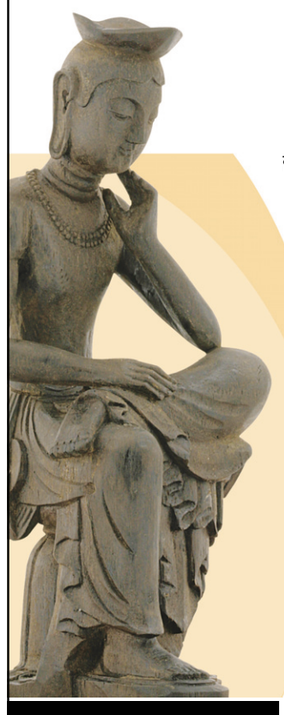
80년대를 풍미했던 '사랑의 듀엣(김재성, 안혜경)' 멤버 안혜경(사진)이 이제는 소녀가 아닌 중년의 원숙함으로 부르는 '영상'은 해질녘 공주 마곡사 계곡에 잔잔하게 울려 퍼져 한여름밤을 추억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마곡사 계곡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면 이렇게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관중이래야 고작 40~50명, 출연진은 사회자 한 명에 가수 한 명이다. 6월 27일 처음 시작된 '마곡사 토요무대'는 7월 4일 두 번째 공연을 했다. 이날 출연한 가수가 바로 안혜경이다. 사회는 이금석씨.

'마곡사 토요무대'는 비록 작은 음악회로 출발했지만 포부는 대단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음악회를 마련한 마곡사 관광개발위원회 김한수 위원장은 "마곡사 관광지 활성화 방안의 한 축으로 추진한 '마곡사 토요무대'는 어렵사리 출발했지만 금년 12월까지 계속 공연을 할 것이다"며 "내년에는 좀 더 공연을 잘 준비해 관광객이 마곡사에 오면 뭔가 특징 있는 추억 한 가지라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 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7344-1881

정토원 초코파이고봉스님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당뇨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개발



제일종묘사와 농촌진흥연구소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3년 연구 끝에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AGI(A-Gluosidase Inhibitor)라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하였습니다.

AGI는 십이지장 등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조 고추를 당뇨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결과 식후 30분 후 혈당치가 120-150mg/de로 평소 180mg/de에 비해 상당한 혈당강화 효과를 거두었다.

정토원 주지 고봉 스님의 당조고추

"현시대 불교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사를 찾던 중 새롭게 개발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를 재배하게 되었다." 평소 농사를 수행처럼 생각하시던 스님은 대중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당조고추에 천연항생물질(프로폴리스)을 살포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추작물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명상음악을 듣게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황금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체 친환경농법을 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첫 출하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식품검사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여 280성분수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 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

✔ 크기 및 색상
고추명은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였고, 이 당조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 20-50% 가량 크고 색상은 파피색이나 연노랑에서 오렌지색으로 크며 익을 땐 일반고추와 같이 빨강색으로 익습니다.

✔ 맛
당조고추의 맛은 일반 고추 맛과 똑 같으며 안 매운 것과 약간 매운 맛으로 구분됩니다.

✔ 혈당저하 체험
당뇨환자들이 식사 전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조고추 3-4개를 먹고 40여분 경과 후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 성인병 예방에 효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장기 섭취를 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된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어도 되며 파프리카와 같이 생식용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 품종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능성고추입니다. A-Gluosidase Inhibitor 기능성 성분이 다량함유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최초 기능성 당뇨고추입니다. 농림부 산하 농림기술관리센터의 농림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해익 교수와 원예연구소 조명철 박사가 제일종묘농산과 공동으로 연구, 육성한 품종입니다.



■정토원 :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
☎ 054-383-0407

7월 첫 출시를 앞두고 "당조고추"가 필요하신 불자님들 전화주시면 "당조고추"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35 밥은 초대

버터차 한잔에 향수와 애환 달래며

수년전, 우연히 달라이라마의 사진 한 장을 얻게 됐다. 너무나 겸허하고 자혜로운 미소로 합장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관세음보살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 이전에 도올 김용옥이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대화한 내용과 소감을 담은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도올이 달라이라마에게 "당신은 정말 관세음보살의 화신입니까?"라고 묻자, 달라이라마는 "나는 그냥 나의 전생의 화신일 뿐입니다"라며 웃으며 답한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달라이라마에 대한 지지와 존경은 티벳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티벳스님들과의 인연을 만들었다. 그 첫 인연은 일산 여래사에서 티벳 한국연락소를 꾸려가고 있는 남카 스님이다. 한국생활 5년차에 접어들었다는 스님의 한국어는 능숙해 때때로 예상치 못한 농담까지 구사할 정도이다. 낯설고 물 설은 타지에서 가장 힘든 애로사항은 언어와 음식일 터. 탁월한 언어적 능력을 지닌 티벳 스님들에게 언어적 소통보다 더한 장벽은 향수에서 온 음식문제인 듯싶다. 다람살라에서 온 남카 스님의 경우는 위장병으로 고생해왔지만, 병원에서는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더란다. 아마도 티벳과는 다른 한국의 음식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짐작해볼 따름이다.



인도 다람살라에서 온 남카 스님

"티벳에서는 기름에 익혀먹는 음식이 많아요. 날씨가 춥다보니까 고기나 야채를 기름에 볶아 먹고요, 기름을 섞어도 먹고, 기름기를 많이 먹어야 해요.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티벳음식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기도 그냥 구워먹던지, 야채만 해도 익혀먹지 않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은 한국음식이 담백하고 건강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한 한국음식 중에서 김치는 처음부터 거부감 없이 대할 수 있었고, 꾸준히 즐겨먹는 음식이 됐다. 반면 특유의 냄새와 맛 때문에 친숙해지기가 쉽지 않았던 음식이 된장이다. 우리나라의 된장처럼 티벳에서도 밥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식품이 있으니, 바로 '버터'다. 티벳 인들이 즐겨 마시는 차만하더라도 버터를 듬뿍 넣고 끓인 '벼자'라는 차가 있는데, 서양인들은 주로 '버터차'라고 부른단다. 이렇듯 음식에서는 물론 차에서도 열량 높은 식생활을 해온 티벳 인들의 습성은 고산지대의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방식에서 비롯되었다. 티벳의 스님들이 육식을 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 것 또한 농사가 불가능한 그곳의 환경 때문이다.

"티벳 사람들은 특히 버터를 많이 즐겨먹어요. 그래야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큰 통에 야크 젖을 넣고 오랫동안 저어 버터랑 치즈를 직접 만들어먹어요. 그거 기운도 좋고 너무 너무 맛있어요. 버터차도 큰 통으로 만들어 하루 종일 마셔요. 그런데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의 티벳인들은 티벳에서 먹던 습관대로 음식을 먹으니까 인도 기후에 적합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돼요. 달라이라마께서도 망명하신 후로는 버터차를 안 드신 지가 꽤 됐어요."

스님의 설명을 들으니 초복을 앞둔 한여름에 버터차가 몸에 맞을리야 없겠지만, 건강보다는 호기심이 앞선 마음에 "그렇다면 스님께서도… 버터차를 안 드시나요?"라는 의도성 다분한 질문을 해본다.

"의사들이 저한테 버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먹고 있어요.(웃음) 여기서는 시중에서 파는 거나 부산에 아는 분들이 보내줘 미숫가루에 타먹어요. 또 가루로 만든 버터차가 있어요. 티벳에 다녀오신 분들이 선물로 가져다줘서 종종 먹는데, 참 맛있습니다."(웃음)

티벳 전통의 버터차 한잔을 내심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려는 찰나에 다시 소생된 바람이 "그런데 지금은 떨어져서 없어요. 제가 다 먹었습니다"라는 스님의 말 한마디에 김이 새버렸다. 역시 말이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을. 대신 스님은 티벳 민족의 성품만큼이나 순하디 순한 인도산 홍차 한잔을 우려내 권한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41 소통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어떻게 하면 人生이 술술 풀릴까요? 2

두 번째, 관상이 좋아야 한다.

타고난 관상을 어떻게 고치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형수술로 의도적으로 관상을 고칠 수도 있으나 요새는 너무나 과한 성형으로 오히려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얼굴 관상은 반드시 변한다. 관상은 그 사람의 시간과 세월이 묻어 나오는 그 사람의 적나라한 역사이다. 표정에 의해서 얼굴은 변하고, 얼굴이 변하면 관상이 변하고, 관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이런 관상을 성형수술이 아닌 가장 자연스런 방법으로 뛰어나게 만들 수는 있다.

1. 피부와 표정이 좋아야 한다.

피부와 표정은 마음에서 나온다. 피부는 마음의 살결이나 마찬가지이고, 표정은 마음의 내용물이나 마찬가지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를 울그락 불그락 많이 내고 증오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여드름이 끊어오르고, 표정이 어둡고 심술맞아 보이기 마련이다.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무리 부자라도 미래에도 부자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얼굴의 표정은 운명을 바꾸며, 피부는 관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표정이 좋은 사람은 그만큼 마음도 훌륭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피부는 정말 끝내주게 좋은데 왜 팔자가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표정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분명히 매일 찡그리고 있거나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거나 죽을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환한 미소 밝게 활짝 웃으면서 생생한 기운을 불러들이는 표정은 그 어떤 관상보다 백만 불 효과 만점의 기능을 발휘한다. 이런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 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표정이 좋지 않으면 관상 값을 하지 못한다.

2. 과도한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다

날씬하고 날렵한 것도 좋지만 관상학적으로 볼 때 너무나 깡마른 것은 그만큼 복도 붙어 있지 않다고 본다. 더군다나 과도한 다이어트로 얼굴이 퀭하고 살결도 까칠해보이면 그 사람 인생은 덕도 없고, 썰렁하며, 고독해진다. 예부터 빈상(貧相)이라는 말이 있다. 돈들이고 노력해서 빈상을 만들 필요는 없다.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살집으로 윤기 나고 덕스런 몸상과 관상을 만들어야 한다.

3.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얼굴이 지저분해 보이고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백퍼센트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센스가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게으르고 센스 없는 자가 어떤 성공을 바라겠는가? 현대시대는 자기 PR시대이자, 센스가 있어야만 통하는 사회이다. 노력 없이 절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안 된다. 설령 관상이 좋게 타고 났다 해도 지저분하거나 단정하지 못하면 좋은 얼굴빛이 나타날 리 없고 그렇게 되면 탁기(濁氣)가 흐르게 되고 좋은 관상을 까먹는 마이너스 작용만 하게 된다.

4. 눈빛이 반짝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모두 한결같이 눈빛이 아주 반짝거리며 총명해 보인다. 눈빛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눈이 작던 크던 쌍꺼풀이 있거나 없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눈빛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증명이며 일에 대한 의욕이 살아 있다는 표시이다. 그런 사람은 비록 관상을 조금 부족하게 타고 났다 해도 자신의 지혜로움과 의욕으로 충분히 커버하며 살 수 있다.

(02)576-7575



금강산 신계사로 향한 만행화에 가슴 뭉클

'시작이 반이다'라는 명언은 시행착오와 시련을 꺾은 저에게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스님용 신발을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막상 사업을 펼치려고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고무신이나 일반 신발과는 차별화 된 신발 보급을 꿈꾸며 스님용 신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첫 상품이 승복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무명원단을 사용해 만든 무명신발이었습니다. 무명신발을 처음으로 선보인 곳은 바로 서울 조계사 근처 불교 용품점 '부산승복점'이었습니다. 그 후 부산승복점 사장님의 도움으로 각 지역 승복 전문점, 불교 용품점 등을 소개 받아 납품을 하게 됐지만 유통, 판매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나 지인들도 강력히 만류를 했지만 저는 어려움을 견딜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수개월간 어려움이 계속 됐고 급기야 재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여만 갔습니다. 공장 기계마저도 가동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겨울은 다가오는데 공장은 문 닫기 직전이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순간 신발 사업을 할 때 봤던 방수가 되고 재질이 튼튼한 '초극세사 원단'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초극세사 원단과 보온이 되는 양질의 털 원단을 구해 겨울철 스님들의 시린 발을 따뜻하게 해줄 방한용 신발을 만들게 됐습니다. 은사이신 남한산성 망월사 성법 스님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고무털신만 신어 오셨던 스님은 제가 선보인 신발을 신어보시고는 "너무 따뜻하고 편해서 대중 스님들도 모두 좋아하실 것"이라며 격려해줬습니다. 이후 당시 조계종 포교원장이셨던 도영 스님에게 털신을 갖다 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도영 스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발이 시리지 않고 정말 따뜻하다. 좋은 신발 잘 만들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며칠 후 도영 스님으로부터 500여 사부대중과 함께 금강산 신계사의 낙성식에 가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불자로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생각하다 북한 스님들께 방한용 털신을 보시 할 수 있도록 도영 스님께 요청했습니다. 도영 스님은 "공장 운영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는 처지에 괜찮겠냐"고 말했지만 저는 "사업가 이전에 불자로서 제가 만든 털신이 영하의 날씨에 스님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며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흔쾌히 승낙했고, 저는 후에 500여 사부대중이 최초로 육로를 통해 금강산 신계사로 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한걸음 앞으로 다가가는 것만 같아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뜻 깊고 한 없이 기뻤던 날이었습니다.

(02)733-5715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행사 해드립니다
범음범패, 49재, 천도재, 회심곡, 법고춤, 바라나비춤 상담하시면 성심 성의껏 집전해 드립니다 (작은 암자포교원)
010-8677-378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김현산 작명 역리원
작명 · 사주 · 운명개척 상담
전화우편 상담 환영 (전국 불자님)
명리학 개인지도
정통사주학 완성(수기본) 25,000원
서울 종로구 낙원동 176 3층
종로3가역 1번출구직진 낙원상가 방면
02)741-8449 김현산
011-9113-8545 역리원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 병원치료도 잘 안되고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
- 가정불화, 질병, 우환 등 하는 일이 잘 안되는 분.
- 조상천도가 잘안되거나 귀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빙의퇴마, 신병, 정신질환, 환청, 신내림 천도.
- 알콜중독, 우울증, 두통, 노안치매 등 모든 질병.

*특별한 우주氣 신통력으로 건강과 행운을 드립니다.
031)321-9555
011-586-6091 일광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532-2072
011-213-7143

비구니 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350-3216

약천사 약사 기도도량입니다
- 함께 운영하실 40대 중반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행자 구함

(전남 구례)
061)781-6328

출가 수행 예비자 모집
인천의 사표가 될 조계종 승려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 40세 이하 남 녀
지원 : 조계종 전 교육 지원
상담 후 총림에서 행자 생활 수행.
011-737-2658

경남지역, 농가 주택, 토굴, 임야 등 보시나 저렴하게 수행도량 불사에 치료 받으시고 도움 주실 분.
우주(氣) 신통력을 공부하는 스님입니다. 치료해도 소용없는 병고로 고생하거나 집안에 우환과 풍파가 많은 분, 확실히 해결해 드립니다.
불사인연 공덕으로 소원성취 하세요.
011-586-6091

부처님 법력으로 묘 이장, 탈봉, 회향 천도해 드립니다
- 윤5월 묘, 탈봉, 이장 전문
- 묘 탈봉 및 천도 상담 환영
- 비구 스님 직접 전국 회향 천도
- 50세 이상 출가하실 분 상담환영
- 숙성된 봉삼주 필요하신 분 상담

010-2553-8827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어렵습니다 스님이 안 계시는 산사 암자, 무보시로 인연 기다립니다
010-8367-3060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051)266-0330

밝은 지혜를 구합니다
본인은 부처님 원력으로 대지 1,500평의 약 10년된 5층 건물에 원룸방 40개가 성업하던 건물을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건물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 호수가 옆에 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입니다. 뜻있게 법도량으로 사용할 안이 있으시며 실무 경험자법우님 지혜 주십시오. (수련원과 실버타운) 원함.
* 납골시설은 원치 않습니다.
납골함, 목재가구 4,500개 신품 필요하신 분.
011-9871-0466 淨安寺 昊善 합장

불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수 제품입니다
요술연꽃 촛대 (불자 및 가정용)


요술연꽃세트(홍련-백련)


장수거북연꽃세트

특 징 (티라이트전용)
1. 경제성 : 1회용이 아닌 반영구성
2. 친환경 : 천연왁스만을 태움
3. 다양성 : 카멜레온 기능(요술)
4. 메시지 : 종교적 의미(홍련 ➡ 백련)

가 격
- 요술연꽃세트 15,000원 (연꽃, 받침대, 티라이트 1개 포함) - 연꽃크기 : 직경 8㎝
- 장수거북연꽃세트 23,000원

egaart www.egaart.co.kr ☎ 031)882-0512 Fax. 031)881-6201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봉은사
- 법 명 : 영봉(김연찬)
- 주 소 : 경남 거제시 둔덕면 상둔리 31번지

위 인과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구) 불교조계종삼화불교(현) 총무원장 법하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대체 의학 비법 전수
1. 중풍환자 혀가 뻣뻣할 때
2.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 올리기 힘들 때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 전수 (이론 강의 없이 실기만 가르침)
◆우울증, 화병, 변비, 관절염, 복수, 산후풍, 담결림, 기관지염, 신염, 대상포진 등 치료 비법전수 (이상 전수를 3시간에 완료)
◆대상 :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출장 방문 가능) ◆출장 치료 가능
010-7703-3825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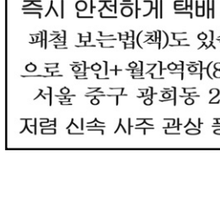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 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 학 공 부
집에서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히 속성으로 공부하세요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자미두수 주역 등
사주 전과정 45만원 부터. 역학상담심리사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 전화 1688-113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CD프로그램 재설치승인 및 교환구입 안내"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活人天役者 用 CD프로그램 "완결판"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 완결판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www.taotemple.net 051)908-8683

명당 탐지기



TM
심룡척!!
심룡척은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판매되는 기구.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며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 제0464294호)
* 심룡척은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패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 증정 한국역학협회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불사대출
- 사찰매매잔금대출
- 기타대출

-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徐一永전무
휴대폰 011-527-1037

재무부인가 제9-205호
보 현 사 신 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실패하지 않는 포교!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비의 맞춤 기도법!!
대형사찰에 맞서 살아남을 포교원과 암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소승이 토굴수행 중 이인으로부터 전수받은지 수년여라.
포교임상 5년에 비전으로 남길까 했으나 포교원과 암자에서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전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도법을 행하면
1. 신도가 끊이지 않는다.
2. 재정자립도가 확립된다.
3. 도심포교에서 절대 패하지 않는다.
4. 이 기도법으로 기도하는 불자는 부처님의 가피를 봄도 체험한다.(5년동안 1명실패)
5. 이 기도를 행하는 불자는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가정이 화목해지며 나쁜행동을 하는 가족들이 참회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게 된다.

스님들께서 무조건 '기도해봐'라는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스님들께서는 불자 개개인의 근기에 맞게 적법한 절차와 법에 따르는 기도법이 있음을 알고 불자들의 가정에 행복을 전파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전에 근기에 맞게 대기설법을 하셨듯이...

◆대상 : 스님과 포교사(별도상담)
※ 각 신행단체 및 개인불자들도 상담해 드립니다. (후원금 : 10萬)
108일간 접수후 신청하신 수만큼 책자제작 및 전수 예정

상담시간 : 13 - 18시 접수 : 031)388-1311
후원계좌 : 농협 136-12-572481 상담자 : 혜공
방문하실 분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20번지(비산시장 옆)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부지 : 5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급양도가 : 3억

● 위치 : 서울 시내
● 대지 : 40평
● 법당 : 30평
● 시내요지
● 가액 :4억 5천

● 위치 : 서울산사
● 대지 : 3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법당 : 25(외30평)
● 요사 : 16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외 공간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역세권임)

● 위치 : 충남 아산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20평
● 가액 : 1억 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산신각
● 요사채 20평 + 10평+ 10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공원)
● 텃밭 300평
● 가액 : 9억

● 위치: 양산 시내
● 대지 총평수: 520평
● 법당(와가) 25평, 요사채 (2동) 50평
● 도량주변 산세, 풍광 최고
● 주차장 및 마당넓은 절
● 가액 : 7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인접 토굴 최고 적지
● 법당 : 20평(30평)
● 요사 황토방2동
● 부지 : 84평
● 가액 : 2억5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 위치 : 부산 바다가 보이는곳
● 법당 25평 목조건물
● 요사 2동
● 부지 117평
● 가액 : 2억9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 위치:마산진동
● 법당:2층건물
● 요사:50평
● 부지:120평
● 가액:2억6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영주불사 010-9798-1091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 소액 및 고액 다량 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소재(팔공산)
● 부지 : 약1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3층)
● 종무소 : 35평(2층)
● 요사채 : 35평(1층)
● 공양간 : 20평
● 가액: 2억 9천만원
● 특징 :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임

사찰안내(포교당)

● 위치 : 포항시 (죽도시장내)
● 법당 : 45평(방2)
● 요사 : 2동 60평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특징 : 도심에 위치한 포교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북구 구암동
● 법당(건물 포함) 60평
● 약사도량, 즉시법회 가능
약쑥, 뜸방, 벌침교육실
(스님이나 불보살님께 인수 후 당분간 스님이 직접 관리 지도해줌)
053)326-0806
010-6592-08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야산 해인사 부근
● 부지 : 754평
● 대웅전 20평 조립식 건물 (삼존불과 약사불 칠성탱화 신중탱화)
● 요사채 45평 (나무 기름 겸용 보일러설치)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010-6835-7370

사 찰 안 내 (포교당)

● 경기도(서울외곽)23억
● 부산 3억 7천만원
● 안양 15억
● 포교당(보:700, 월50)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에서 20분거리 대도로변위치 유원지 입구
● 대지133평, 건평70평 (대웅전 및 요사채)
● 동굴 삼성각, 무허가 건물 40평
● 사찰 마당 뒤 야산 접 (1000평 이상 쓰고 있음)
● 가액 : 12억
011-286-5109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보문동
● 대지 160평, 법당 45평
● 토굴 : 산신기도 40평
● 요사채 : 130평(해우소 별도3개)
● 2층 건물 중 1, 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
● 전세 5억(시설비포함)금액조정가능
010-8577-1811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이대입구(대흥동)
● 지하철 2호선 5번출구 60M위치 교통편 최적지
● 4층건물중 3층 약 25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입주 즉시 법회가능함
● 보증금, 시설비 포함 3000만원(월세 50만원)
02)719-7709

사찰(급)안내

● 위치 : 청주 상당구 우암동
● 1층 단동2동, 요사채35평, 방3개 큰방, 사무실,선방,주방,큰거실, 화장실및욕실
● 법당지은지5년법당 22평 선방 1개 화장실 및 욕실, 마당넓음 법당삼존불, 장태화고불, 후불탱화, 신중탱화1자관세음보살원불 100불 ,심야전기최신, 대지62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0-5883-2255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사천
● 바위산 멋진 기도처
● 평수 3700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1-9323-447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금정구
● 자연녹지 281평(허가됨)
● 하천부지 약 300평~350평
● 무료 사용부지 약 300평 하천 위에 법당(스래트) 약 40년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람
● 부산 지하철 2분거리
010-6326-8870
010-9613-55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창원시 소답동 경남은행 옆
● 4층건물 중 3층
● 실평수 90평
● 법당외, 큰방3개, 종무소 1개 시설 깨끗하고 완벽함
● 삼존불, 후불탱화, 관음호신불 216불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권리금은 보신 후 절충
055)299-5690
010-7159-569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시장 內)
● 법당 53평, 삼존불, 원불 108불, 신중탱화 104위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전세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1)466-7237
010-5493-33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양 종합운동장 정문앞
● 평수: 65평 제반시설 완벽 구비
● 몸만 와서 포교활동 할 수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 권리금 2500만원(절충가능) 스님 건강 관계상 급 양도
011-9108-5484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달성군 가창댐부근
● 법당 2층 60평(삼존불 봉안) 요사채 1층 80평
● 방7, 화장실 2, 별채(공양간) 25평, 외관 단층필
● 시내버스 정류장 1분거리, 교통편리
● 총부지 400여평, 주차완비
● 가액: 12억(융자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4541-6711
(주인직)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석관동
● 평수: 3층 건물 2층 42평
● 구조: 법당 25평, 방2, 주방, 간이 사무실, 화장실
● 시설: 불단(원목) ,영단(영구위패 500개) 1년연등(500개)등 최고급 시설
● 가액: 7,000만원(보증금 2천 시설비 5천만원 월 85만원)
010-7609-0920

사찰부지안내

● 임야 5천평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 경관이 수려하고 명당 조건을 갖추었음
● 길, 물, 전기, 전화 모두 가능 2010년 개통되는 울산 KTX역사에서 25~30분거리에 위치함
● 가액: 평당 7만원
010-4174-8904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 평수: 236평
● 임법당: 13평, 방2개, 주차장 넓음
● 스님 혼자 기도하시면서, 법회하실분 언제든지 걸망만 풀면 법회할 수 있음
● 가액: 7000만원
010-6357-5860

포교당안내

● 위치 : 강화군 내가면 바다 보이는 황청 포구 산밑
● 법당, 삼존불, 금사경호불, 신중 · 산신탱화, 방3, 거실, 화장실겸 욕실, 마당 넓은 텃밭
● 가액: 보증금 50만원 월15만원
●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010-5719-686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해시
● 임법당: 20평, 대지 300평
● 요사채 별도 1동 , 주차장 화장실(현대식) 창고2 법당 및 기타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2570-9566
055)545-9640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3층건물 50평
● 삼존불외 소불 108목후불 탱화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모든시설 갖추어져 있음
032)504-3467
010-3339-162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역 근교(4층) (지하철 5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600만원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5280-026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칠곡 농수산물 시장 부근
● 대지 약 30평, 법당1(삼존불), 방2개, 공양간1개
● 가액: 5,000만원
053)324-5357

사 찰 안 내

● 위치 : 계룡시 근교
● 대지 : 112평
● 경관수려한 사찰로 신심을 맑게 하는 청정기도도량
● 가액: 1억3천만원
016-742-2122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평수 : 약 45평(2층건물)
● 삼존불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700만원(시설물 최상)
● 현재 법회중
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010-4176-0772

포교당(급)안내

● 위치: 서귀포시 중앙시장 밀집상가 700개
● 평수: 60평(2층)
● 삼존불 및 시설완비
● 가액: 7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 급 양도
010-9597-2473

사찰터안내

● 위치: 강원도 태백 태백산 자락 문수봉쪽
● 임야 1만 3천여평
● 토지: 955평, 산, 토지, 임야 연결
● 가액: 토지 평당 20만원 임야 평당 1만5천원
공기좋은 맑은 곳에 위치
010-6224-3565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역 3분거리
● 2층법당, 방1, 접견실1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500만원
031)424-4308
010-5033-5708

포교당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 평수: 65평 완벽한 시설
● 즉시입주 법회가능 스님사정으로 급안내
● 보증금1천만원(월세50만원) 시설비 절충
055)855-5950
018-622-9865

사찰부지(암자터)

● 위치 경기도 양평군
● 평수: 1500평, 2300평 (평당 12~22만원)
● 특징: 조용하고, 경관수려, 양평역, 용문역 금년 11월 전철개통예정
011-9472-6780
(주인 직접)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봉화지역
● 법당 10평, 산신각 1평반
● 요사채 2동, 전답 1500평, 하천 부지 500평
가액: 1억 5천만원
010-5317-7736

포교당안내

● 경북 영양읍 중심지에 사찰을 양도 하고저 합니다. 주변에는 재래시장 , 정류소, 주차장, 병원 약국이 위치한 명당 도량에서 부처님과 함께 하세요
● 대지: 130평, 대웅전 42평
● 상가건물 3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54)682-8888
011-538-2211
(주인직)

부 산 대 사 찰

●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 목조법당 25평 단청필, 목조요사 30평 단청필, 벽돌집 요사 2동 50평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창고 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 300평
● 국유지 : 480평(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 11억 5천만원
011-563-15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108원불 탱화 후불 신중 칠성 산신, 집기일체
● 법당40평, 방3개
● 보증금 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0-2945-770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 대지: 205평
● 건물: 56평(1층33평, 2층23평
● 황토방有, 6月초 신축완공)
● 뒷산 계곡 석축단장, 순수황토 벽돌 목조 기와지붕, 라운드형으로 예쁘고 웅장하게 잘 건축된 별장식
● 비구니스님 수행도량으로 적합하며 합의하여 조금 싸게 양도할 수 있음
● 가액 : 4억 3천
010-6438-356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신천역 바로 앞
● 4층건물 중 3층(약 50평)
● 시설: 법당, 방3, 공양간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807-7100

콩만한사찰안내합니다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용암사)
● 대지 면적 : 약 400평 건물 : 법당13평(목조기와) 요사채 : 신축건물(약30평) (평당300만원소요) 토목 및 옹벽 6천만원소요
● 가액 : 2억3천 이나 1 억5천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5천 확신)
● 스님 부재로 운영곤란 하여 불사 하려고 합니다 의령에서 대구가는 국도(20번)변에 있습니다
011-9329-4241

포교당(급)안내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5층건물에 4층 엘리베이터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조정가능) / 월 50만원 시설비 : 절충가능
010-3834-8545
010-6739-6426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시내 중심지
● 건물 70평, 4층(옥상 넓게 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4500만원(시설완비)
● 특징: 시내 중심지이지만, 기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010-3131-1094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의 2층
● 약 45평, 삼존불, 각단, 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 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31)405-4181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부암동 산세 좋은 곳 위치
● 평수: 17평, 2층건물 1층 요사채, 2층법당, 옥상 산신당해수관음전
● 복이 많은 해수관음기도 도량
● 비구니 스님(재가자)도 가능한도량입니다
● 인연있는 분의 전화 연락 기다립니다
● 가액: 6천 5백만원
011-877-5488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 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 (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 옆)
● 대지: 230평사용(등기 192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2층증측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18평 1동(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3천 8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678-957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소재지 10분거리
● 평수: 사용부지 300평 (토지주인 따로있음)
● 건물: 옛날 흙집 2동, 법당1채, 차량진입가능
● 60년된 사찰이며, 마을은 도보로 10분거리, 뒤에는 산
● 가액: 3천 5백만원
061)323-3302
010-7273-928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지하철역 50m 시내버스 정류장 교통요지)
● 4층 건물중 4층(옥상사용 가능)
● 삼존불, 지장호신불 용왕당등 시설 최상급
● 방4, 욕실2,옥상창고,심야전기보일러
● 보증금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꼭하실분만 연락)
010-6564-8088
070-7776-3088

불교·기독교의 '현실개혁' 코드는 같습니다



길희성 교수가 참여 대중을 향해 열강하고 있다.

도대체 왜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야 할까? 개신교 신자로, 가톨릭 재단인 서강대에서 교수로 20년 넘게 불교를 가르쳐 온 길희성 교수. 종교간 이해와 소통에 앞장 서 온 그는 불교와 기독교의 궁극적 지향점이 같다고 말한다. 단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각 종교의 참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불자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의 강의 속으로 들어가 보자.

강 사 : 길희성(서강대 명예교수)
일 시 : 2009년 7월 7일
주 제 : 붓다와 예수 그리고 열반과 하느님 나라
장 소 : 만해NGO교육센터
주 최 : 참여불교재가연대

이력

서강대 명예교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1987년 개신교 초교파적 평신도 교회 '새길교회' 창립
진보신학으로 시민운동 펼침
주요저서 〈인도철학사〉 〈지눌, 선사상 연구〉 〈보살예수〉 등

#종교다원국가 한국

한국사회는 불교와 기독교가 양대 종교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단일의 주류 종교와 낮은 비율의 소수 종교로 된 구성을 보이는데 반해 두 종교가 한 사회 내 막상 막하의 세력을 가지고 공존하는 한국사회는 매우 독특합니다. 한국사회는 명실공히 종교 다원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한국인의 민족성과 유교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민족 정체성이 종교 정체성보다 강합니다. 단일민족으로 언어와 민족이 같기 때문에 설령 종교가 다르다 하여도 큰 다툼이 일지는 않습니다.

또한 과반수를 넘는 무종교 국민들과 불자들은 종교가 아닌 민족문화로서의 유교를 함께 가지고 종교갈등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갈등의 근본원인은 무지에서 오는 '편견'

하지만 현대사회에 접어들며 종교갈등은 사회를 분열시킬 잠재요소로 점차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표출한 것입니다. 일차적인 원인은 개신교의 배타성과 호전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갈등의 가장 큰 근본원인은 상대종교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편견입니다.

기독교 신자들 중 불교의 심오한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로 '우상숭배'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강연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에서 보는 불상과 탱화 등은 일종의 '시청각자료'다. 그 것은 상(像)에 집착하는 사람들(중생)을 무상의 세계, 더욱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다."

기독교 신자들은 부처님에게 '애 낳게 해달라' '시험 붙게 해달라'고 비는 것을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단정합니다.

사회에 안주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는 종교
'열반'과 '하나님 나라' 세상 질서 초월에 공통점

또 불자들도 기독교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타적, 호전적 기독교의 단편에 빠져 제대로 알아보려는 사람이 적습니다. 저는 스님이나 재가불자 중에 신학공부를 제대로 한 분이 나와 불교계 내에서 불자들에게 상대종교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종교교육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예수 알아야 기독교 알 수 있어

그렇다면 불자들이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를 알기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국사람 입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등의 명칭은 한국 고유의 문화와 관계 없기 때문에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어떤 민중 신학자는 민중의 아픔과 한(恨)을 풀어줬다는 의미에서 '큰 무당' '한(恨)의 사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군자'라고 비유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내면적인 면을 가장 잘 드러낸 명칭이 불교의 '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불교 문화권에서 탄생했다면 틀림없이 자비로운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중생의 고통에 뛰어든 보살상을 보았을 겁니다. 반대로, 만약 보살이 2000년 전 척박한 유대 땅에 출현했다면 필경 예수님의 모습으로 출현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 본 '보살 예수'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자신도 불법에 있어서 유한한 존재로, 보편적인 진리인 '법'을 스스로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반계에서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을 말씀 하셨지 자신(부처님)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위대성과 깊이는 한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집중보다 다르마(법)의 깨달음이 중요한데 있습니다. 그것을 깨치면 불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존재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천국운동'을 벌인 '청년 예수'도 사람입니다.

'청년 예수'는 자신의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현실에서 보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예부터 하늘을 숭배하는 것처럼 유대교 하나님을 숭고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시하는 등 직설적인 표현조차 삼갔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늘나라가 임박했다' '자신의 삶을 접어두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신민으로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인 인격, 행동, 사람관계, 공동체 생활 등에서 보여줬습니다.

이후 그에 대한 기억이 복음서로 남고, 더욱 추앙심이 높아져 하나님과 동격으로 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근본은 사회개혁, 참여로 나서야

교회는 기독교의 상징과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대형교회 부흥회 등에서 박수 치며, '이미 새 시대가 왔다' '구원받았다'는 자만은 큰 오산입니다. 삼페인 터트리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불교의 열반과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를 초월한 종말적 세계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현 사회 질서 등 존재론적 질서 자체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苦)'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지 않고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진치의 세계가 계정혜 삼학으로 정화돼 새로운 나, 사회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집과 상(相)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하나님 뜻이 사랑과 베풂으로 이 땅에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교와 기독교는 코드가 같은 것입니다.

두 종교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사회에 안주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는 종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에서 '나'라는 개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해 따지기 어렵습니다. 불자들은 생사윤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나온 업을 책임질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사회참여에 더욱 뛰어들 때 이 사회는 각 종교의 존재 이유처럼 보다 맑은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웃음보살 불등거사 <53>

구성 : 김흥인



문을 밀고 당긴 두 사람

〈백유경(百喩經)〉



옛날에 오래된 집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생각해 감히 거기서 자거나 쉬지 못했다. 그때 자기가 대담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나는 이 방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리라"고 말한 뒤 곧 들어가 잤다. 앞의 사람보다 더 대담하고 용맹스럽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산다는 소리를 듣고 문을 밀고 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을 귀신이라 생각하고 곧 안에서 문을 막고 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뒤의 사람도 또 그것을 귀신이라 생각하고 밀고 들어가고자 했다. 그렇게 다투다가 날이 밝아 서로 보고서야 비로소 귀신이 아닌 것을 알았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인연이 잠깐 모였을 뿐 아무것도 주인이 없는데 낱낱이 분석해 본들 그 무엇이 '나'인가. 그런데 중생들이 제멋대로 옳고 그름을 헤아려 굳이 다투는 것은 저 두 사람과 다툼이 없다.

옛 판화의 세계

천자가 스승의 예로 접대하다 남양국사(南陽國師)



고판화박물관소장 선씨원류(鐘氏源流)〉 중 남양국사(南陽國師)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사 272×180m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혜충이 황제의 초청을 받아 견여를 타고 궁전에 올라가 황제와 나란히 앉아 스승으로 예를 받고 사람을 다스리며 나라를 다스리는 요점을 설법하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남양혜충(慧忠)은 절강성 소흥부 제기현 출신으로 어려서 6조 혜능에게 수학하고 그의 법을 이었으며, 당 상원 2년(761)에는 숙종이 스승의 예를 올렸다. 혜충은 청원행사 · 하택신회 · 남악회양 · 영가현각과 더불어 혜능 문하의 5대 종장으로서, 그 선풍은 다르지만 당시 혜능 선양에 앞장 선 신회와 더불어 북방에 선풍을 거양했으며, 마조도일 등이 남방에서 창도한 선을 비평했다. 남방의 선승들이 경전을 중시하지 않고 뜻에 따르는 설법에 대해 비판, 널리 경율론을 펼쳤다. 대력 10년(775) 입적했으며, 대종이 대증 국사라는 시호를 내렸다. 본문을 살펴보면 "상원 2년 황제가 내급사 손 조진에게 칙명을 내려 역마를 타고 스님을 영접하게 했다. 그 때 손수 쓴 조서에 말했다. '황제는 소식을 묻습니다. 나는 듣건대 조어사의 상승으로 중국 땅을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보살들이 함께 중생들을 제도한다 했습니다. 스님은 법의 거울을 높이 매달아 놓음으로써 한 음성으로 설법을 베푸시고 창고를 비밀한 경계에서 열어 둥글고 밝은 대자대비의 경지에 들어가셔서 중생들의 진량이 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니 지극한 선행은 모든 사람을 제도하는 데서 밝혀집니다. 존숭의 부촉은 실로 나의 몸에 있습니다. 생각이 도와 더불어 안주해 묘용(妙用)을 선양하시어 널리 복윤(福潤)에 젖게 하시고 아울러 대천세계에 망상(罔象: 물에 있는 귀신. 낯은 푸르고 몸과 털은 붉다고 한다)의 현주(玄珠:깊은 진리를 이르는 말)를 전하게 해 미궁에 가라앉은 독화살을 뽑아내게 하소서. 좋은 인연이 이곳에 있으니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석장을 짚고 오십시오. 경사는 먼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한지 이미 오래니 나의 빈 가슴에 부응해 주십시오. 봄추위에 평안하게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법을 청하는 황제의 간절한 소원이 조서의 곳곳에 묻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땅에 법력이 높은 수행승이 나타나 시대의 지도자들이 스승의 예를 갖추고 중생들을 위해 산문을 나와 설법해주시길 간청하는 꿈을 꾸어 본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동안거

찾으셨습니까?

나 보고 싶어도 당분간 눈 딱 감고
모르는 척 해 주세요
일 년 열두 달
오물오물 밥만 먹을 수 없어

이 겨울엔
손 때 묻은 시간 꾹꾹 누르고
사람 몸 받고 태어나
목숨값이나 하고 사는지
몇 달 좀 완벽한 독대(獨對) 할까 합니다.

–문정희/ 신작시집 〈귀연〉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 CD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사업분야
사찰홍보,행사,개인다큐,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도암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 빙의 · 퇴마 ·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_ 6주
• 모집 인원 _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_ 100만원
•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 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식제공
★ 개인 특별지도 ★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특별상담환영
http://www.yuma119.com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032)349-0666
» 수련원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171번지 백련사
010-5100-6612



내가 불을 켠다면 다 같이 밝게 살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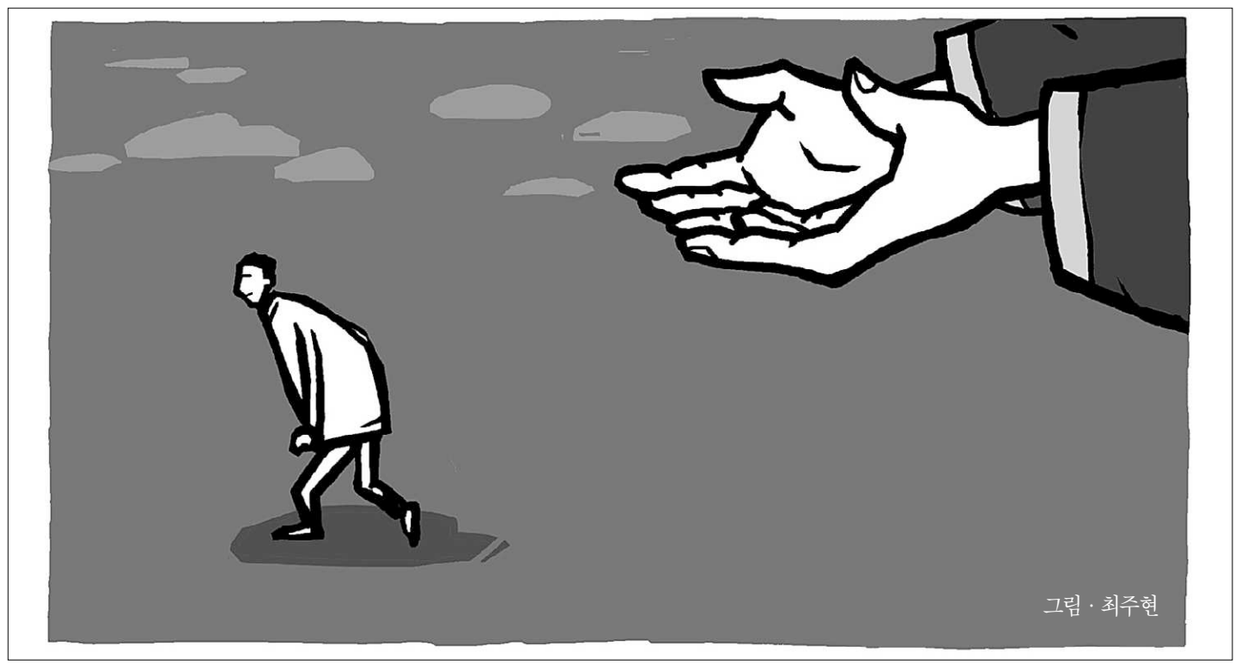
아들을 위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요

문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친구들과 싸워 가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초주검이 다 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집안의 장손인데 항상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들어온 걸 보니 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아들 녀석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는지요?

답 부모들에게는, 나는 죽을지언정 내 자식은 죽지 말아야 한다는 그 착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든 자식이든 착을 두지 말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착을 두게 되면 오히려 가던 발목을 쥐고서, 옷자락을 쥐고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 못하게 매 놓는 형국이거든요. 전구는 많지만 전력은 다 똑같듯, 내가 컴컴하면 자식들도 컴컴해지는 거예요. 내가 밝아야 자식도 밝게 되죠. 한 방에서 살면서 내가 불을 켜면 다 같이 밝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불을 켤 줄 모른다면 다 같이 컴컴하게 살 수 밖엔 없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믿어 보세요. 믿는 것도 그래요. 이판사판으로 믿는다면, 나를 끌고 다니는 나의 주인을 믿는다면, 육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주인공을 믿는다면 그 주인공과 둘이 아니게 가설이 되어 있거든요. 자식이다 부모다 부부다 하는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 주인공에 탁 맡기고, 둥글려서 맡기고 있으면 어디 갔다 안 들어온들 걱정이 되나.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얘긴데, 벌써 "어디 갔다 왔느냐? 여태 뭘 하고 있었느냐?" 그런단 말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난 그러고 싶어요. 사랑을 진짜 한다면,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지 받으려고 아등바등한다면 오히려 받아지질 않아요. 그러니 남편이든 자식이든 또는 부인이든 모두가 믿어서, 그저 마음 편안하게 믿어 준다면 아무 데를 가도 남편이나 자식은 자기 어머니를 믿고, 자기 아내를 믿고 이럭하고선 태평하게,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하니까 순수하게 어떤 일도 잘되겠죠. 그런데 안에서 바둥거리면 바깥에서도 허둥거리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둥지둥 허둥지둥 하다 보면 일은 일대로 못하고 잡쳐지고, 자식은 자식대로 바둥거리니까 점점 더 달아나가게 되고, 이게 아주 몹쓸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 잘 깊이 들어야 돼요.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림 · 최주현

어느 사람이 이렇게 했더래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주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괴로움에다가 자식조차 또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거나 학교는 나간다는데도 며칠씩 안 들어오다가 기껏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들어오면 뭘 하느냐? 안 들어오는 게 낫지." 하고 이렇게 속을 썩이니까 엄마가 있다 하는 소리가, "남편 덕 없는 놈이 자식 덕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저 모두 나가서 빌어먹든지, 나가서 깡통을 차든지, 나가서 그냥 다리 몽둥이나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허술히 말을 뱉은 것이 정말 그 이튿날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남편은 유치장에 가 있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누구 속을 썩이는 거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썩는 거죠.

차라리 그냥이나 뒀더라면, 차라리 여기다가 맡기고서 모든 것을 그저 믿고 여기다 맡기면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밝아져서 오히려 "엄마!" 하고 들어오고, "당신을 왜 내가 술만 먹으면 그랬을까?" 하고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게 되었을 걸, 오히려 그렇게 뱉어 버리는 그것이 독이란 말입니다, 독. 아주 극치적으로 속이 상할 때는 독이 나오거든요. 가설이 된 그 줄에 독이 가서 그냥 그 마음들이 독으로 물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림살이가 전부 가설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면서 이건 생활이다 이거죠. 그러니 어차피 이 몸뚱이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 걸, 즉 말하자면 서로 모여서 놀러 한 철 나왔다가 만난 인연들인데, 진짜 사랑하고 그러려면 진짜 거기다 놓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을 해 준다면 점점 가설된 대로 다 밝게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불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 번 밝아져 두 번 밝아져 세 번 밝아져, 그러다 보면 '아, 내가….' 하고 그 부인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는 회개를 하는 거죠. 또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는 그렇게 망종같이 해도 어머니는 기다리고 계시고, 어머니는 부드러운 말로 부드럽게 해 주시고 그런다면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속으로도 밉지 않게 그냥 내맡겨라. 너도 한 철 놀러 나왔고, 나도 한 철 놀러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다 부부지간이다 하는 것도 자기 소관의 소유물이 아니다. 다 같이 놀러 나온 거다. 놀러 나왔다가 맺어진 인연들이다. 그러니까 나가서 여자를 보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게 왜들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그냥 따뜻하게 말해 주고 따뜻하게 행을 해 주고 그런다면, 그 마음은 항상 따뜻한 데로 고이게 되어 있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한 데로 고이게 되어 있고. 물은 항상 골짜구니에서 깊은 데로 고이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신성하게 갖고 모든 것을, 사랑을 한다 사랑을 안 한다를 떠나서 내 마음속의 주인공, 그 주인공을 붙들고 울지언정 '서로 이렇게 만난 인연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니 당신만이 속을 안 썩이게 할 수 있다.' 하고 맡겨 놓고 울더라도 울어라. 거기다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달아나가죠, 자꾸. 이건 마음의 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놀이. 그런 건 바가지를 긁으면 내가 오히려 물에 빠져서 퍼득거리게 되는 이치가 많거든요. 내가 빠지지 않고는 남을 물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이 부릉부릉 끓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를 말을 하겠느냐 이거죠. 말을 하게 되면 내 속이 더 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지, 그쪽 망가지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자식도 어렸을 때 고분고분히 엄마 말을 듣지, 조그마했을 때 그때뿐이지, 거기서 조금 머리가 커지면 그때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미 내 소유물이 아니다 이겁니다. 같이 놀러 나왔던 인연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꾸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합니다만, 나가서 공부를 안 한다느니 한다느니, 공부 공부 공부 공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차가 오니까 차에 치일까 봐 쏜살같이 달아나 가더라고요. 그렇게 세 살 먹은 아이도 저 살 궁리를 하는데, 어째서 저 살 궁리 안 하겠느냐 이겁니다. 빤한데, 벌써.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공부 공부 공부 하다 보니까, 이건 자기는 생각할 여유도 없고, 자기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여유를 주질 않아요. 그러고도 귓전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지겨운 생각이 들죠. 자기가 개선해서 자기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를 않아서. 하고 싶은 것도 내가 하고 싶어야 능률이 나는 거지, 남이 해라 해라 해서 하는 것은 능률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 진짜 사랑을 한다면 모든 점에서 좀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나 말 자세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내 소유물로 알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하고,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당신은 내 거니까, 내가 꼭 필요한 존재고, 내가 이렇게 하자는 대로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날개를 가지고 훨훨 날면서 놀러 다녀도 시원치 않은데, 마음으로다가 그냥 딱 묶어서 요렇게 해서 항아리 속에다가 딱 넣어 놓고는 이렇게 한다면 넣어 놓은 사람도 그걸 지키느라고 꼼짝 못하고, 거기 들어간 사람도 꼼짝 못하니 이거는 산 지옥이지, 그게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인 이 도리를 모르면 여러 말 해 줘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거,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되어 있다. 이 세상 이치는 전부 가설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게 고정됨이 없다. 그러니깐 공했다. 그러니깐 찰나찰나 바뀌지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바뀌지면서 돌아가는 생활을 바로 누가 하는가? 자기 안에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그 주인이, 바로 마음내는 주인이 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 마음내는 자체가 바로 그 몸속의 영혼들을 전부 한마음으로 몰

☞26면으로 계속

禪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5~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buddhanews.com

겁내지 말고 주인공에다 모든 걸 일임시켜라

☞25면에서 계속

아서 전부 다스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널리 울을 쳐 놓고 있는 게 지금 이 지구 아니겠소? 이 지구 바깥을 벗어나지 못하죠? 울타리를 널리 쳐 놓고선 그 안에서들 지금 사는데, 그 안에서나마 좀 활력성 있게, 마음이 좁지 않게 지혜로이 나가게끔 개선해 주는 게 어머니나 부인이나 또는 아버지나 남편이나 자식에게나 서로 똑같은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이 손바닥 안에서 어디로 가질 못해요. 전부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팽개치라는 것이 아니고, 좀더 거기다가 넓게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의 질병을 공부 재료로 삼고 싶은데…

문 스님께서는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지금 저는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병도 다 마음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면 저도 이걸 공부 재료로 삼아 한번 마음 도리를 알고자 합니다. 어떻게 실천을 해야 좋을는지요?

답 사실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보지 않고는 그 도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애기가 되라. 아는 거와 모르는 거를 다 그 주인공에 일임시키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거기 믿고 거기 감사하고, 들이고 내는 것도 거기다 들이고 내야 된다. 그러는 동시에 내 이 육의 기능도 모든 것을 거기에서, 즉 말하자면 감독이 되는 거죠, 모든 게. 기능의 감독자로서 전부 응용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인체 안에서 모든 생리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다 관리로서 하다가 보면 바로 제작자가 되는 거죠. 배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생리적인 작용을 하는, 즉 말하자면 그 곤충들이 다 나한테는 호법신장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만 사천 털구멍도 업보가 되려면 그 털구멍 하나에 한 생의 업보가 된다 하지마는, 그것이 호법신이 된다면 일분일초도 안 돼서 항상 다니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그렇게 그 주인공에 모든 걸 몰락 일임시켜 버리고 잠재해 있는 자기 실상이 지금 현재 의식과 계합이 된다면 그렇게 좋은 보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으로써 일체 만법을 자기 응용대로 참, 하늘과 땅을 상응하면서, 모든 일체 유생 무생을 다 상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둘로 보질 않고 하나로서 다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 들어 있는 곤충의 생명이나 내 큰 생명이나 둘이 아니죠,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겁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겁내지 말고 모든 걸 일임시킨다면, 겁을 내기 때문에 일임해도 진짜 되질 않지, 겁을 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믿는 게 되거든요. 육신마저도 진짜 자기, 이 주인공에다가 내버리는 격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던져라, 던져라 하는 거죠. 몰락 던져라. 던지면 건져진다.

그래서 업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慈)와 비(悲)가 둘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악과 선이 둘이 아니고 이게 전부 해말갛게 이렇게 연기가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에너지가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구름이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들이. 생각 내기 이전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거 조절을 하는 거는, 바로 빼 쓰고 잡그고 하는 거는 마음, 지금 내는 마음, 이거죠. 그것을 조절하려면 내가, 나도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그림자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참나에게 모든 걸 일임하는 거죠. '네가 형성시켰고 네가 움죽거리게 했고 네가 말을 하고 네가 생각나게 하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탁 맡겨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거기다 요구를 하고요. 감사하는 것도 전체니까, 전체가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 하나만 감사하면 전체가 다 감사를 받고, 이건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없이 우주간 법계에서도 다 상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것이 이렇다, 이것이 이렇다 이런 거를 이론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팔만대장경이 뭐 이 세상 돌아가는 진리인데, 어디서 또 찾겠습니까? 항상 날마다 보고 있는데. 불교가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불교가 생활이고 생활이 불교고 종교가 생활이니까. 내가 근본이고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바로 화두고 나라는 존재가 있기에 모든 존재가 있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모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댁도 나 자신의 모두를 갖다가 포기하고, 포기하되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일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형성시킨 거니까 당신께서, 기계를 하나 만들어 놨다면 기계 만든 사람이 더 잘 고치지 기계 안 만든 사람이 더 잘 고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이 기계라면 기계 만든 사람,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야죠.

우리 이 생명은 어디서 생긴 건지요

문 저는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스님께서는 이 생명이 어디에서 생겼다고 보시는지요?

답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묻기를 이렇게 물었어요. "태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태초는 내가 나오고부터 태초지, 왜 그렇게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태초는 내가 나오고부터 태초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알았으니까. 알고 보니까 일체 생명은, 지금 유생무생 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 보이는 생명, 태로 낳는 생명, 알로 낳는 생명, 화해서 낳는 생명, 질척질척한 데서 낳는 생명, 이 모두가 다 생명이다 이겁니다. 이 생명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이 에너지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겨난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아, 큰 별이 떨어졌다." 그러죠.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아니라면, 마음의 씨가 아니라면 태양도 형성시키지 못했어요. 자기의 마음의 씨가 아니라면 자기도 형성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억겁 천 년 전에서부터 진화됐다고 합시다. 생각을 하는 것이 진화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즉 마음에서 생각을 한 것이 진화라면 창조해 낸 것은 설계를 바깥으로 내놓은 거죠. 그럼 그 설계는 한군데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이 설계도, 이 설계도, 이 설계도, 이 모든 것이 다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물감이 열 가지가 있다면, 물감은 이 열 가지를 한데 몰아서 물감이라고 하지만 색은 전부 다르다 이겁니다.

> **개별적인 자기가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
> **자기 잠재해 있는 원소 자체**
> **실상의 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물감을 쓸 수도 있고, 저 물감을 쓸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물감이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당신이 어머니를 만날 땐 자식이 된 마음으로 어머님 대하죠? 그리고 형님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형님을 만나는 마음으로서 대하죠. 동생을 만났을 때는 내가 동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대하고 친구를 만났을 때는 친구를 만나는 마음으로 대해요. 그게 나툼이에요, 바로. 이 색은 여러 가지지마는 근본은 하나기 때문에, 그럼 이 색 쓸 때에 '나'라고 하겠느냐, 이 색 쓸 때 '나'라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때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평등공이라고 그래요. 어떤 걸 내세울 수 없는 게 물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걸 내세울 수 없는 게 지금 당신이란 말이지요. 자기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게 당신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나투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바퀴가 굴러가면 심봉은 움쩍도 안 하고 능력만 줄 뿐이지 그 심봉이 움죽거리는 건 아니에요. 바퀴가 구를 뿐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모든 일을 나투어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 고정적이기만 한 일 해 보셨어요? 고정적인 생각, 이 날까지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먹고 그런 예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난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먹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들은 그것이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한데 뭉쳐서, 비교해서 에너지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그냥 전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니나니 하고 따지고 이 종교가 틀리니 저 종교가 틀리니 하고 따지고 이러거든요.

비유하자면 종지가 있고 접시가 있고, 사발이 있고 대접이 있고, 컵이 있고 차관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때에 따라선 다 쓰여지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발은 종지를 미워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 이거예요. 또 사발은 저 큰 그릇을 웃보지도 말고요. 때에 따라서는 다 자기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잘난 사람보다 못난 내가 더 귀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엄마도 아무리 못났어도, 코가 언청이라도 아마 잘생긴 남의 어머니보다 당신 어머니가 중요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자기 나무에서 자기 열매가 열려서 그 자기 열매가 무르익어서 그 나무에서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딴 나무에서 무르익은 것은 딴 나무에서 무르익은 거지, 내 나무에서 무르익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아야 해요, 각자. 개별적인 자기가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 자기 잠재해 있는 원소 자체, 실상의 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저도 참나를 알고 싶어요

문 한동안 살기 싫은 마음이 들어 삶의 의미를 찾고자 불교에 관심을 갖고 여러 경전도 보고 조사어록도 좀 보고 그랬습니다만 불법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는 가는 것 같은데 확 잡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참나를 알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답 지금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댁이 구경도 안 해 본 데를 내가 구경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창살이 몇 개니 거기는 무슨 섬이 있느니, 뭐 별 말을 다 해도 가서 보지도 않고 들어 보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은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얘길 한다고 해서 그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직접 가 봐라 이겁니다.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뭐 내가 배고픈 걸 남이 대신 먹어 준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디까지나 눈이 떠져야 되고, 귀가 떠져야 됩니다. 그런데 귀가 뜨이고 눈이 떠지고 가고 옴이 없이 오고 가고, 또 남의 숙명, 타심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게 도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저 미국에 있는 걸 본다 하더라도 내가 집어먹을 줄 모른다면 그건 보나마나니까 말입니다. 열 번 보는 것보다 한 번을 보고 내가 집어먹는 것이, 행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그대로 생활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 부처님 법은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한데 고까짓 생활에서 무슨 쪼밀쪼밀하게 실험을 하라고 그러시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러는데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 마음, 자기 생활을 자기가 업신여기고 자기 몸을 자기가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을, 자기 주처를 자기가 업신여기고 그런다면 어디 가서 찾습니까. 허공에다가 아무리 이름을 가지고 불러 봐도 대답 없는 허공이요, 또 이름을 아무리 불러 봐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 봐도 그건 말뿐인 거란 말입니다. 부처님이 이 앞에 계시다 할지라도 높이 보지 말 것이고,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여기 있다 하고, 풀포기가 있다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절에 가서 칠성이니 무슨 독성이니, 산신이니 용왕이니, 온통 부처님이니 나한님이니 이러고 부르면서 가지각색의 구원을 받으려고 앨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되 모두 각자 나로만 생각해라. 그의 형상은 내 몸이요, 바로 그 마음은 내 마음이니 어찌 둘이겠는가!" 하고요. 그 주처로만 똘똘 뭉쳐서, 바로 주처로 알아라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알게 되고 그 주처마저도 없이 나툼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열반이요, 산 열반이요, 내세울 게 없는 자유인이라 이거죠. 영원한 자유인 말입니다.

이렇게 허구장창 약을 파는데도 자기에 맞는 약을 먹는 사람이 몇몇 될까마는 그래도 내가 업신여기는 것만큼 잃을 것이고, 내가 버리는 것만치 얻지 못할 겁니다. 몰락 버리되 버리지 말고, 버리지 않되 버려라. 하되 하지 말고, 하지 말되 하라. 여기 이렇게 모두 앉아 있고 일체 만물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이 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이 되고 이랬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공했기 때문에 모든 하는 일조차도 공해 버렸어요. 그냥 그 공에서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뭘 살기 싫고, 살기 좋고 이게 있겠습니까, 거기. 붙을 자리도 없는데.

나는 경을 나는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오직 내 주처가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 후에 그 주처마저도 나툼이지, 없다는 거를 내가 시험해 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계발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주처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놈이 있기에 이 살기 싫은 걸 나로 하여금 살게 했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해내고, 말을 하게 하고, 이렇게 움죽거리게 했는가, 어떤 놈이!' 그러고선 한번 지켜본다면 분명 알 바가 있을 것입니다.

법명선원

달콤하고 향기로운 심신개혁 템플스테이

1회 8월 1일(토) 1시 ~ 8월 2일(일) 1시 2회 8월 15일(토) 1시 ~ 8월 16일(일) 1시

• 장 소 _ 강화도 법명선원 (문의전화 032-937-9108) • 참가비 _ 10만원
010-2311-7700

13시~14시	자기소개(꽃과 나무 이름으로 대체) 및 입재식
14시~15시	마음수련법 (선일스님)
15시~16시	내면 정화법 (태광스님)
16시~19시	척추교정과 정체운동 (이남진 교수)
19시~20시	저녁공양
20시~22시	소리선 쿤달리니 각성(윤도곡 법사)
22시~02시	수면 명상
02시~03시	마음수련법 (법명사 주지스님)
03시~06시	싸마타와 위빠사나 그리고 체조명상 (태광스님)
06시~07시	아침공양
07시~10시	동양의학과 육미섭생법 (한명준 교수)
10시~12시	내면정화법과 수련 후 소감 발표 (태광스님)
12시~13시	점심공양 및 회향식

■ 지도교수 소개
• 선일스님 : 인도철학을 전공하고 30년 동안 사람들의 심리를 치료한 배터랑 상담학 박사. 저서 : 선문촬요 강설 등
• 태광스님 : 붓다의 수행법을 배우려고 태국 미얀마 인도 티벳 등지에서 30년 이상 이론과 수행을 배운 수행자 지금도 초막에서 정진 중. 저서 - 붓다가 직접 지도한 수행법 등
• 윤도곡 법사 : 소리로 쿤달리니를 일깨워서 질병을 치유하고 다스리는 소리禪의 전문가, KBS 탤런트 공채9기 흙 피리 제작 연주자
• 한명준 교수 : 식이요법으로 질병을 치유 예방하는 국내 최고의 식이요법 전문가 캐나다에 대학을 창건하고 국내에서도 여러 대학에 출강. 저서 - 동양의학 육미 섭생법 등
• 이남진 교수 : 뒤틀린 척추와 자세를 교정하는 국내 최고의 정체 전문가. 저서 - 정체운동 등

법 명 선 원 주지 무상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자 세상보기

김징자
칼럼니스트

'한량없는 공덕' 이해 할 수있다면

굶주림은 곧잘 비굴함을 불러들인다. 예부터 이를 간파한 군주 가운데 백성이 비굴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은 성군이라면 백성들의 배 채워주는 일에 힘썼을 것이고 독재적 성향을 가진 군주였다면 백성의 가난을 알뜰히 챙기지 않았을 것이다. 비굴한 복종을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독재적 군주에게 바람직한 통치술로 보였을 것이다.

나라의 양식 주머니 끈을 혼자 독점한 다음, 굶주린 이들에게 조금씩 베풀며 '감사함'을 받아들이는 그 기분이란?

굶주린 백성들은 그때마다 군주의 온정 넘치는 베풀음을 찬양했을 것이다.

'따뜻이 입혀 주시고, 배 불리 먹여 주시고…' 그런 세상에서 백성들의 그 찬양은 어쩌면 진심이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베풂이 과연 온정일까? 그것은 온정도 자비도 자선도 사랑도 아닌 사악함이다. 희한하지만 현대세계에서도 그런 '비굴한 복종'을 통치술로 여기는 대책 없는 폭군의 나라가 아직 몇 곳 있으나 '온정'에 대한 의미는 시대를 달리하며 바뀌어 왔다.

동·서양, 봉건시대 식민시대의 양반 귀족 계급이나 지배계층 가운데 자기 땅이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알뜰히 챙긴 온정 넘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야 보기 드문 자비로운 행위로 상찬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심리를 깊게 파고들 줄 알게 된 현대는 이를 '온정적 간섭주의'라 부르기도 한다. '상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온정'이라면 '온정'의 의미가 상당히 희석된다.

여러 이데올로기의 시험을 거치며 사회주의 자본주의 시대를 몸으로 겪으며 살아 온 현대인들에게 자선, 기부, 온정, 사랑, 자비 등 단어들이 갖는 의미와 이들 단어들이 갖는 체감온도는 지난날에 비해 상당히 다르다.

인간 탐욕만을 극대화 한다는 비판을 들어 온 자본주의도 이제 가진 자들이 나서 세계의 빈곤과 질병, 양극화를 없애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창조적 자본주의'에 눈 뜨기 시작했다. 가진 자들의 자선은 가진 자들의 의무라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 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이 '창조적 자본주의'를 주창하고 있으며 미국 대부분의 재벌들이 세운 자선단체들, 그 이외에 3만여 개의 크고 작은 자선단체에서도 그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가진 자들에 의해 자본주의의 모순이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옛 현인들이 지적했듯이 '사유재산은 개인이 자연으로부터 잠시 맡아 있는 것'일 뿐이다.

소유와 보시는 그래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 다니는 것이어야 한다.

달마대사가 양무제의 '수많은 보시에도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답한 뜻을 헤아린다든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한량없는 공덕'을 이해 할 수만 있다 해도 우리는 자선 자비 사랑 온정 등의 단어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남의 선심을 분석하고 파헤치며 의심하거나, 베푸는 이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면 이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상당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를 위해 기부했다고 한다. 시대상황으로 볼 때 분명 앞선 실천으로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비슷한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받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서 이를 부추기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그의 '기부'를 보다 높은 경지로 이끌 수 있는 길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마음가짐임을 그가 알고 있을까?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가야산 생태탐방로의 교훈

충남의 가야산을 관통하려던 도로공사 계획이 생태탐방로 개설로 바뀌었다. 아스팔트를 깔고 직선화 작업을 하는 환경파괴적 개발계획을 거두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교감하는 생태탐방로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충남도와 가야산지키기 시민연대가 합의하여 가야산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은 근래 드문 낭보다. 지난 30여개월 동안 수덕사를 중심으로 한 가야산 살리기 운동이 결실을 맺었다. 이 결실은 몇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우선, 가야산 살리기 시민연대가 개발정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가야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통도로의 폐해를 예견해 홍보 하는 등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수덕사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큰절답게 깊이 있는 대응으로 개발론자들을 감화시킨 것이다. 특히 선원 안거대중들이 반결제일를 맞아 가야산을 한 발 한 발 걸으며 만생명의 합창을 염원한 것은 환경운동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수덕사가 이끌어 온 백제미소길 걷기는 환경운동이 아니라 수행의 차원에서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할 만큼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충남도가 끝까지 관권을 내세우기 보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점이다. 주변의 도로들을 개량해 활용하는 선에서 백제문화권의 생태 보전에 더 신경쓰겠다는 충남도의 고견이 아름답다.

용주사와 봉선사의 '무한돌봄'

물질문명의 발달은 가족을 해체 시켜왔다. 농경사회의 가족 단위가 오늘날 유용할 수는 없지만 핵가족화 시대를 넘어 가족 해체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에 소년소녀 가장이 생기고 독거노인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결손가정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결국 물질의 풍요가 마음의 빈곤을 불러 오고 마음의 빈곤은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퇴화시키며 세상의 그늘을 양산해 내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경기도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사회적 그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사업에 용주사와 봉선사가 동참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내 조계종의 두 교구본사가 그늘 없는 사회 만들기에 경기도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은 불교다운 행보다. 불교는 바로 인간의 무한자유를 향한 종교다.

그늘진 곳에서 가난과 불행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불국토 건설이라는 불교의 궁극을 실현하는 일이다. 두 교구본사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서 할 일이 무척 많을 것이다. 이미 계획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를 통한 희망 만들기와 불자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들을 개발해 낼수 있을 것이다.

굳이 포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경전을 가르치고 찬불가를 부르지 않아도 세상을 향해 무한자유의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이미 포교다. 두 교구본사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현불만평 박구원



마음의 정화가 되는 휴가계획

사부대중 테마칼럼

'고요' 통해 참다운 휴식 취하길

7월의 테마-휴식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 여름휴가를 고민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열심히 일한 자들이 휴식을 위해 떠나고자 하는 소리이다. 경험을 돌이켜 보면, 여름휴가를 통해 휴식을 얻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휴가지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교통체증과 도로의 열기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휴가지에 도착해서는 수많은 피서객들로 인해 지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휴식의 방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부처님의 휴식은 어떠했을까? <증일아함경> 권2, '광연품'에는 부처님이 설하신 휴식에 대하여 나와 있다.

부처님이 슈라아바스티이 제다숲의 '외로운 이 돕는 동산'에 머물고 있을 때다.

"휴식이란 마음의 생각이 쉬고 뜻이 조용하고 밝으면서도 경솔하거나 사납지 않고, 항상 마음을 온전하게 해 뜻은 한가히 있기를 즐겨 하며, 언제나 방편을 구해 삼매에 들어 지나친 광명이나 위로 오름을 탐하지 않기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했다.

부처님이 설한 휴식을 위해서는 '고요'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음의 생각이 쉬기 위해서도, 뜻이 조용하고 밝기 위해서도, 뜻이 경솔하거나 사납지 않기 위해서도, 마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뜻이 한가히 있기를 즐기기 위해서도, 그리고 삼매에 들기 위해서도 마음과 주변이 고요해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가 습관적으로 떠나는 여름휴가에는 '고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휴식 없는 더위 피하기(避暑)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올여름 휴가에는 그 동안의 번잡함을 벗어나 '고요'를 찾아 참다운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하고자 한다.

다행히도 전국의 각 사찰들이 휴가철을 맞아 고요한 휴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단기출가로 스님들의 생활과 수행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새벽 숲길을 걸으며 자신을 찾아보는 프로그램, 참선과 명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등 사찰의 고요한 환경을 배경으로 마음의 고요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물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독서, 음악 감상, 산행 등 일상 속의 작은 틈을 적절히 활용한 '고요'를 통해 그 속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참다운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혼자서도 가능하고 배우자나 가족과도 가능하기에 더욱 현실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요'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이 바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바쁜 대부분의 이유는 마음속에 지나친 광명이나 출세와 같은 세속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쁘다'는 한자 망(忙)은 마음(心)과 죽음(亡) 두 글자의 조합이다. 즉, '바쁘다'는 '마음을 죽인다'는 의미이다.

올여름 휴가에는 마음에서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를 찾아서 마음을 살리는 참다운 휴식을 경험하길 바란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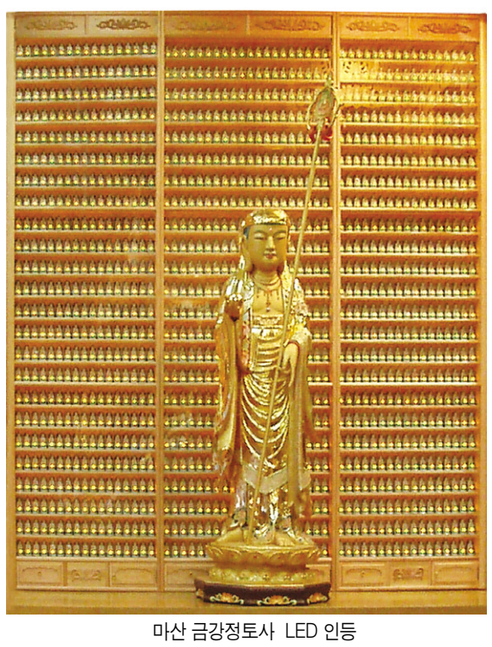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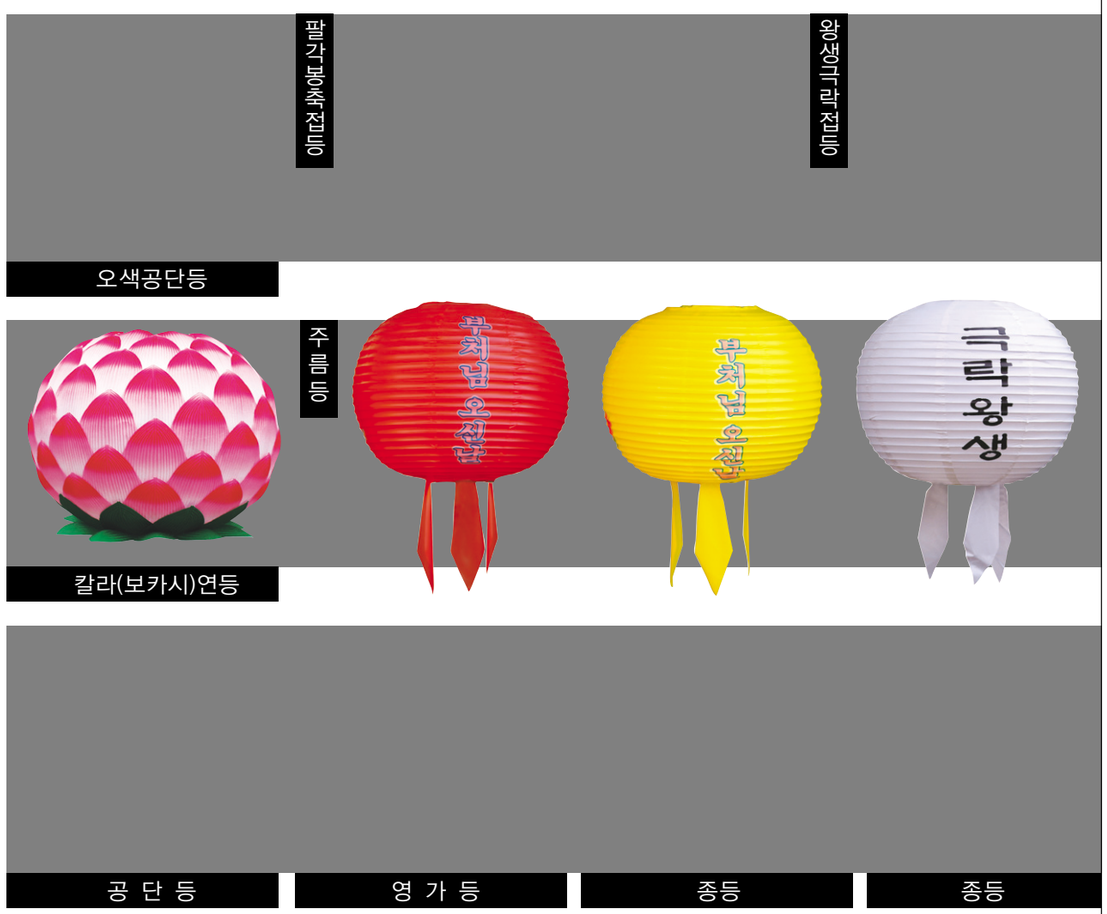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부처님 자비로 복장 행사 개최!"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이름명패

실용신안특허의기술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